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의 일본연구와 일본의 한국연구

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韓国における日本研究と日本における韓国研究

2018年 6月 8日(金) ~ 9日(土)
漢陽大學 國際館 畫像會議室(6F)

| 主催 | 漢陽大學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 主管 | 漢陽大學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土臺研究팀

| 後援 | NRF 韓國研究財團

일 정

6월 8일(금)

13:30-13:40 **개회식**

사 회 : **장혜진**(한양대)
개회사 : **이강민**(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소장)

13:40-13:50 **기념촬영**

13:50-14:40 **기조강연** : **하우봉**(전북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14:40-14:50 **Coffee Break**

14:50-17:45 **Session 1 역사**

사 회 : **김유은**(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소장)

14:50-15:15 발표 1 : **박진한**(인천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 전근대사 연구 성과와 과제」

15:15-15:40 발표 2 : **나가모리 미쓰노부**(텐리대)
「일본의 한국 전근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15:40-16:05 발표 3 : **김종식**(아주대)
「한국의 일본 근현대사 연구의 이해」

16:05-16:30 발표 4 : **마쓰다 도시히코**(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일본의 「제국사(帝國史)」 연구: 현황과 과제」

16:30-16:45 **Coffee Break**

16:45-17:45 **종합토론**

이세연(한양대), **홍성덕**(전주대), **이형식**(고려대), **윤해동**(한양대)

18:30- **저녁식사**

일 정

6월 9일(토)

10:00-12:30 **Session 2 언어**

사 회 : **이경철**(동국대, 한일언어학회 회장)

10:00-10:25 발표 1 : **이길용**(중앙대)
「한국의 일본어학 연구 : 어용론 · 사회언어학 분야」

10:25-10:50 발표 2 : **기시다 후미타카**(오사카대)
「에도(江戸)시대 조일(朝日) 왕복 한글 문서의 분포」

10:50-11:15 발표 3 : **진남택**(오카야마대)
「메이지기(明治期)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

11:15-11:40 발표 4 : **이카라시 고이치**(동경외대)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과제」

11:40-12:30 **종합토론**

박강훈(전주대), **이상혁**(한성대), **신충균**(전북대), **오재혁**(건국대)

12:30-13:30 **점심식사**

13:30-16:00 **Session 3 언어교육**

사 회 : **오현정**(건국대, 한국일어교육학회 회장)

13:30-13:55 발표 1 : **채경희**(배화여대)
「한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과 전망」

13:55-14:20 발표 2 : **모리야 미치요**(소카대)
「지금 한국어 · 중국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 : 인지언어학에 입각하여」

14:20-14:45 발표 3 : **쉬 이핑**(북경외대)
「중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과 과제, 전망」

14:45-15:10 발표 4 : **이길원**(동아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15:10-16:00 **종합토론**

이미숙(명지대), **아이자와 유카**(성결대), **이경규**(동의대), **유예진**(삼육대)

18:30- **저녁식사**

日　程

6月 8日(金)

13:30-13:40 **開会式**

司　会：張慧珍(漢陽大)

開会の挨拶：李康民(漢陽大、日本学国際比較研究所所長)

13:40-13:50 **記念撮影**

13:50-14:40 **基調講演**：河宇鳳(全北大)「通信使研究の現況と課題」

14:40-14:50 **Coffee Break**

14:50-17:45 **Session 1 歴史**

司　会：金裕殷(漢陽大、現代韓国研究所所長)

14:50-15:15 発表1：朴晋熯(仁川大)
「2000年代以降の韓国における日本前近代史研究の成果と課題」

15:15-15:40 発表2：長森美信(天理大学)
「日本における韓国前近代史研究の現況と課題：朝鮮時代を中心に」

15:40-16:05 発表3：金宗植(亞洲大)
「韓国における日本近現代史研究の理解」

16:05-16:30 発表4：松田利彦(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日本における「帝国史」研究：現況と課題」

16:30-16:45 **Coffee Break**

16:45-17:45 **総合討論**

李世淵(漢陽大)、洪性德(全州大)、李炯植(高麗大)、尹海東(漢陽大)

18:30- **晩餐**

日 程

6月 9日(土)

10:00-12:30 **Session 2 言語**

司 会：李京哲(東国大、韓日言語学会会長)

10:00-10:25 発表1：李吉鎔(中央大)
「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研究：語用論・社会言語学の分野」

10:25-10:50 発表2：岸田文隆(大阪大学)
「江戸時代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分布」

10:50-11:15 発表3：陳南澤(岡山大学)
「明治期の韓国語学習書の研究現況」

11:15-11:40 発表4：五十嵐孔一(東京外大)
「日本における現代韓国語文法研究の課題」

11:40-12:30 **総合討論**

朴江訓(全州大)、李商赫(漢城大)、申忠均(全北大)、呉在嫮(建国大)

12:30-13:30 **昼食**

13:30-16:00 **Session 3 言語教育**

司 会：呉玹定(建国大、韓国日語教育学会会長)

13:30-13:55 発表1：蔡京希(培花女大)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況と展望」

13:55-14:20 発表2：守屋三千代(創価大学)
「いま韓国語・中国語母語話者の日本語学習者に求められるもの：認知言語学をふまえて考える」

14:20-14:45 発表3：徐一平(北京外大)
「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況と課題、展望」

14:45-15:10 発表4：李吉遠(東亞大)
「東アジア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現況と展望」

15:10-16:00 **総合討論**

李美淑(明知大)、相澤由佳(聖潔大)、李京珪(東義大)、劉璽真(三育大)

18:30- **晩餐**

목 차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하 우 봉 (전북대) 1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 근세사 연구 성과와 과제 ····· 박 진 한 (인천대) 25

일본의 한국 전근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사를 중심으로
····· 나가모리 미쓰노부 (텐리대) 31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이해 ····· 김 종 식 (아주대) 41

식민지 시기 한국사 연구와 「제국사」: 현황과 과제
····· 마쓰다 도시히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43

한국의 일본어학 연구: 어용론·사회언어학 분야 ····· 이 길 용 (중앙대) 45

에도 시대 조일 왕복 한글 문서의 분포 ····· 기시다 후미타카 (오사카대) 51

메이지기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 ····· 진 남 택 (오카야마대) 57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한국어문법연구의 과제 ····· 이카라시 고이치 (동경외대) 71

한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과 전망 ····· 채 경 희 (배화여대) 81

현재 한국어·중국어 모어화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것:
인지언어학에 입각하여 ····· 모리야 미치요 (소카대) 89

중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과 과제, 전망 ····· 쉬 이 핑 (북경외대) 95

동아시아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 이 길 원 (동아대) 99

발표자 약력 ····· 201

目 次

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 …… 河 宇 鳳 (全北大) 103

2000年代以降の韓国における日本近世史 研究の成果と課題 … 朴 晋 熯 (仁川大) 121

日本における韓国前近代史研究の現況と課題: 朝鮮時代史を中心に
…… 長森美信 (天理大) 129

韓国における日本近現代史研究の理解 …… 金 宗 植 (亞洲大) 139

植民地期韓国史研究と「帝国史」－現況と課題
…… 松田利彦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41

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研究: 語用論·社会言語学の分野
…… 李 吉 鎔 (中央大) 143

江戸時代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分布 …… 岸田文隆 (大阪大) 149

明治期の韓国語学習書の研究現況 …… 陳 南 澤 (岡山大) 155

日本における現代韓国語文法研究の課題 …… 五十嵐孔一 (東京外大) 167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況と展望 …… 蔡 京 希 (培花女大) 177

いま韓国語·中国語母語話者に対する日本語教育に求められるもの:
認知言語学をふまえて …… 守屋三千代 (創価大) 185

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況と課題,展望 …… 徐 一 平 (北京外大) 191

東アジア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現況と展望 …… 李 吉 遠 (東亜大) 195

發表者 略歴 …… 201

韓國語 發表文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하 우 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 조선시대 교린외교의 상징, 통신사

통신사란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교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막부 장군에게 파견한 조선의 국왕사절단을 가리킨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8세기 후반 이래 600여 년 간에 걸친 일본과의 국교 단절 상태를 청산하고 일본의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와 통교를 재개하였다. 1401년과 1403년에 각각 명의 책봉을 받은 조일 양국은 1404년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일본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정식으로 국교를 열었다. 그 후 양국은 활발하게 사절을 교환하였는데, 조선에서 일본 막부에 보낸 사절을 '통신사(通信使)'라 하였고, 일본의 막부에서 조선으로 보낸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불렀다. 통신(通信)이라는 말은 '신의로써 통호(通好)한다'는 의미이며, 통신사는 외교의례상 대등국 간에 파견하는 사절을 가리킨다.

1) 조선 전기의 통신사

조선 전기 일본 무로마치막부 장군(將軍) 앞으로 파견된 사절의 명칭은 통신사 외에도 통신관(通信官)·회례사(回禮使)·회례관(回禮官)·보빙사(報聘使)·회답사(回答使)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모두 18회에 이른다. 그 가운데 조선 전기 통신사 명의로 파견된 사절은 모두 6회였다. 그러나 교토(京都)까지 가서 사명을 완수한 것은 1429년(세종 11)의 박서생(朴瑞生) 일행, 1439년(세종 21)의 고득종(高得宗) 일행, 1443년(세종 25)의 변효문(卞孝文) 일행 등 세종대의 세 차례뿐이었다. 그밖에 임진전쟁 직전인 선조 23년(1590)에 파견한 통신사(정사 : 황윤길)와 전란 중인 1596년(선조 29) '강화사(講和使)'(정사 황신)로 파견된 사절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의 통신사는 교류의 시기도 짧았고, 사행의 형태도 일정하지 않았다.

2) 임진전쟁 후 국교 재개와 회답사 파견

임진전쟁이라는 전란을 치르고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치부하였던 조선이 10년 만에 일본과 국교(國交)를 재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양국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통신사행을 파견하고 접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인 요인은 조일 양국의 지배권력의 확립과 새롭게 전개되었던 국제정세를 들 수 있다.

우선 조선의 입장을 보면, 국민감정이나 명분상으로 일본과의 강화가 불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란 후의 복구와 새로이 부상한 후금(後金)의 위협 아래 일본과의 평화가 필요하였고, 새로이 들어선 일본의 신정권의 성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왕도정치(王道政治)의 명분상 전란 중에 사로잡힌 피로인(被虜人)을 쇄환해 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것이 1607년 제1차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파견하면서 국교를 재개한 실질적인 동기였다.

한편 일본의 입장을 보면, 1603년 개창한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는 내치(內治)에 주력하기 위해 대외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었다. 또 조선국왕사절인 통신사의 내빙을 통해 국내의 다이묘(大名)들에 대해서 장군의 위엄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세계와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쿠가와막부는 조선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3) 조선 후기의 통신사

통신사행이 정례화하고 체계화되는 것은 조선후기부터이다. 임진전쟁 직후 국교재개기에 파견된 세 차례의 사절단의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는데, 이는 전후 처리를 위한 사절로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통신사란 명의로 파견된 사절은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였다. 1636년 조선 조정은 새로이 재편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런데 회답겸쇄환사와 통신사는 모두 국서(國書)를 지참한 국왕사절단이라는 점, 원역의 구성과 사행노정 등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합쳐서 12회의 통신사로 인정하고 있다.

4) 통신사행의 파견목적과 절차

통신사행의 일차적인 사명(使命)은 도쿠가와막부 장군의 습직(襲職)을 축하하는 국서를

전하고 이에 대한 답서를 받아오는 것이다. 조선의 조정은 외교란 상대국의 경조사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의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회답겸쇄환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한 실질적인 목적은 재침 방지를 위해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고, 외교적 현안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636년의 병자통신사는 청(淸)의 압력에 대한 견제와 일본 국정 탐색, 1643년의 계미통신사는 겸대제도(兼帶制度) 실시와 시마바라(島源)의 난에 대한 정보 수집, 1655년의 을미통신사는 일본이 '가도조선(假道朝鮮)'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1682년의 임술통신사는 대마도와의 무역통제를 위한 7개조의 조시약정(朝市約定) 등의 현안문제가 있었다. 18세기에 와서는 외교적 현안이 줄어들고 의례화 하였지만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과 국정 탐색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 조정은 통신사를 통해 일본인을 문화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성을 순화한다는 내부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파견절차를 보면, 일본 막부의 새 장군이 즉위하면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해 조선 조정에 알리고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조정에서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면 대마도주에게 통보한다. 동래부에서는 역관과 외교실무자들을 보내 왜관(倭館)에서 일본 측과 협의하고, 통신사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통신사행강정절목(通信使行講定節目)」을 정한다. 이후 조선에서는 통신사 일행의 구성과 예단 준비에 착수하였다. 일본 막부에서는 정승급 관리인 로주(老中)를 통신사 영접의 총책임자로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통신사행이 통과하는 연로상의 각 번(藩)에서는 접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5) 통신사행의 구성과 노정

조선후기의 통신사는 450명에서 500여 명에 달하였는데, 당시 중국에 파견한 부경사(赴京使)가 평균 250명 내외였다는 사실에 비해볼 때 대규모사절단이었다.

이렇게 통신사행이 대인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살펴보면, ① 해로(海路)로 가는데 필요한 사공 및 격군이 290여 명, ② 악대 및 의장대 100명, ③ 역관 20명, 군관 17명, 노자(奴子) 50명 ④ 문화교류 담당 인원 10여 명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인원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당시의 어떤 사행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통신사행만의 특징으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정을 보면, 통신사 일행은 창경궁에서 국왕에게 하직인사('辭陛')를 한 후 죽산－충주－문경－안동－의성－영천－경주를 거쳐 동래부에 도착한다. 기선(騎船) 3척과 복선(卜船)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 통신사행의 선단은 부산포에서 출발하여 쓰시마(對馬島) – 잇키노시마(壹岐島) – 아이노시마(藍島) – 아카마가세키(赤間關)를 거쳐 세토내해(瀨戶內海)의 가마카리(鎌刈) – 토모노우라(鞆浦) – 우시마도(牛窓) – 무로즈(室津) – 효고(兵庫) – 오사카(大阪)에 정박한 후 요도가와(淀川)를 거쳐 교토(京都)에 도착한다. 이후로는 육로로 가는데, 히코네(彦根) – 나고야(名古屋) – 오카자키(岡崎) – 하마마쓰(浜松) – 슨푸(駿府) – 하코네(箱根) – 시나가와(品川)를 거쳐 도쿠가와막부의 소재지였던 에도(江戶)에 도착하였다.

왕복거리로 하면 도합 1만1천5백여 리에 달하였으며, 서울을 출발하여 귀국해 복명(復命)하기까지에는 대개 10개월이 소요되는 대장정이었다.

6) 일본의 접대

통신사 일행이 에도에 도착하면 막부 측에서는 로주가 통신사의 숙소까지 와서 영접하였고, 다시 도쿠가와막부의 유력친족(有力親族) 세력인 고산케(御三家)가 환영연회를 베풀었다. 국서의 전달이 끝난 후의 연회에는 막부의 장군이 직접 삼사(三使)에게 술을 권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쇄국체제 하에서 유일하게 국교를 맺고 있었던 조선의 국왕사절단의 내빙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야말로 '장군 일대(一代)의 성사(盛事)'였던 만큼 막부는 통신사를 국빈으로서 환영하였다. 한 차례의 통신사행을 접대하는데 1백만 량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었으며, 동원된 연인원이 33만 명에 달하였다, 1711년 신묘통신사행의 접대를 관장하였던 하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계산에 의하면 1709년 당시 막부의 1년 세입총액이 77만 냥이었다고 하니 그 액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부의 번에서는 통신사행의 접대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일회용의 객관을 신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사의 접대는 막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18세기에 들어 통신사의 정치적 의미가 줄어들자 경비 절감을 위해 빙례를 오사카나 대마도에서 하자고 하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1811년 서세동점의 물결 속에서 대마도에서 빙례를 하는 이른바 역지통신(易地通信)을 마지막으로 통신사행은 종언을 고하였다.

2. 통신사행과 문화 교류

17세기 중반 이후 대륙에서는 청(淸)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도 평화가 정착되자 통신사행의 정치적 의미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행은 의례화 하였으며, 대신 문화교류라는 부수적인 기능이 부상하였다.

문화교류는 1682년 임술통신사행부터 특히 활발해졌다. 조선 조정은 처음부터 '교화를 통한 평화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통신사에 대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행에는 제술관·서기·의원·화원·사자관(寫字官)·악대 등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인원이 다수 편제되었다.

쇄국체제 하의 일본은 통신사의 내빙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서 일본의 문화인들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통신사행의 연로에 벗어나 있는 번(藩)에서는 유학자들과 문인을 파견해 문화를 흡수하도록 장려하였다. 통신사행을 통한 이상과 같은 문화교류는 한문학과 유학뿐만 아니라 그림·글씨·의학 분야까지 포함하여 근세 일본문화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통신사행의 왕래는 일본의 지배권력이나 상류층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참여한 일대 문화행사였다. 각종 통신사행렬도(通信使行列圖)에는 당시 일본의 서민들이 통신사의 행렬을 보기 위해 연도에 몰려나와 구경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현재에도 연도지역에는 통신사와 관련된 문화행사나 무용 등이 남아 있다.

통신사의 주요한 문화교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교류 활동

(1) 사문사(四文士)의 필담창화(筆談唱和)

사문사란 제술관과 서기 3인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이들과 일본의 유학자나 문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필담과 한시(漢詩)의 창화는 통신사행의 문화교류 활동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필담창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응도 대단하여 4문사들은 사행 중 각자 천수 이상의 시를 지어야 했다.

일본의 문사들은 통신사행원과의 필담창화를 자신의 문재(文才)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조선의 문사들이 중국에 사행할 때 중국의 유명한 문사들에게 자신의 시문집에 서문이나 발문을 받기를 원했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졌다. 일본의 문사들은 삼사(三使)를 비롯한 통신사행원들에게 서문과 발문을 요청하였고, 통신사행원과의 시문창화를 통해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야시 라잔(林羅山)과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이다. 하쿠세키는 무명시절에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제술관 성완(成琬)에게 자신의 시집인『도정집(陶情集)』의 서문을 요청해 받았고, 그와 창화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하쿠세키는 키노시타 준앙(木下順庵)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스승의 추천을 받아 막부의 시강(侍講)으로 등용되었다. 일본의 문사들은 통신사행원과 창화하면 그 시문집을 바로 간행하였다. 그래서 가는 길에 필담창화가 이루어지면 일본 문

사들은 돌아오는 길에 창화집을 완성하여 사행원들에게 주어 깜짝 놀라는 일이 허다하였다.

(2) 화원(畫員)의 활동

화원이 수행하는 활동은 ① 일본지도의 모사(模寫), ② 수차(水車)와 주교(舟橋) 등 기술제작도 묘사, ③ 주요지역과 사행로의 명승지 묘사, ④ 일본화가와의 교류 등이다. 1748년 무진통신사행의 경우를 보면, 오사카에서 수행화원과 일본화가 사이에 화회(畵會)가 이루어지고, 교토에서는 숙소인 혼고쿠지(本國寺)에서 지역문인들과 필담창화가 있었다. 또 에도에서는 화원들이 막부 장군 앞에서 휘호하고, 막부의 어용화가그룹인 카노파(狩野派)의 일급화가들과 교류하였다. 화회는 회화 교류의 실질적인 교류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1748년 사행 때의 이성린(李聖麟)과 오사카의 오오카 슌보쿠(大岡春卜) 등과의 교류는 유명한 사례이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8세기말까지 이루어지는 통신사 수행화원의 활동은 한일회화교류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의원(醫員)의 활동

임진전쟁 이후 일본에서는『동의보감(東醫寶鑑)』,『의방유취(醫方類聚)』를 비롯한 조선의 의학서를 구입해 간행하였으며 수십 종에 달하는 약종(藥種)을 요청하였다. 8대 장군 요시무네(吉宗)는 1724년『관각 정정 동의보감(官刻訂正東醫寶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 네덜란드 의학이 전해지기 전까지 조선의학은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원의 역할은 ① 통신사행원의 치료 ② 일본인 치료 ③ 일본인 의사들과 나누는 의학문답(醫學問答)이 있다. 특히 의학문답이 중요한데, 통신사행의 의학교류에 관한 필담집은 현재 21종 43책이 전해지고 있다.

2) 일본문물의 전래

조선 후기 통신사를 통한 조일 간의 문화교류가 일방적인 전수관계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문화교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신사행은 한편으로 일본문화가 조선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 통신사행을 통한 일본 문물의 도입과 문화교류가 조선문화의 발전에도 일정한 자극을 주었다.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에 다녀와서 사행 중의 체험과 견문을 적은 일본사행록을 저술하였다. 본래 60여 종 있었는데 현재 40여 종이 전한다. 이것들은 문화견문록으로서 당시 일본의 사회상과 문화를 조선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신사행을 통해 전래된 물품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일본의 서적이다. 조선에 전래된 일본서적은 유학서·시문집·지리서·사서(史書)·유서(類書) 등 다양하며 30여 종이 확인된다.

통신사행원들이 가져온 일본물품과 견문록은 일부 실학자들에게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남인계 실학파에서 일본 연구를 주도하였는데 일본에 대한 재인식을 주창하였다. 특히 정약용(丁若鏞)은 일본 고학파(古學派) 유학자의 논어 주석을 자신의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에 인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북학파 실학자들과 19세기 초반 김정희(金正喜)도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대열에 동조하였다. 그들은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서기로 수행한 원중거(元重擧)와 성대중(成大中)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발전상과 시문의 발전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 통신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조선시대 통신사는 조일 양국의 선린우호(善隣友好)를 상징하는 중앙정부의 공식사절단이었다. 평균 470명에 달하는 사행원들이 8개월에 걸쳐 일본의 각지를 관통하면서 연로의 객관에서는 학술·의학·예술 등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근세 일본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동시에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의 문물이 전해져 일본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양국의 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상이다. 조선시대 일본에 왕래한 통신사와 중국을 왕래한 부경사(赴京使)는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정보통로이자 문화교류의 고속도로였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행을 통한 양국 학자들과 민중들의 문화교류는 순수하였다. 통신사행렬도에 묘사되어 있는 일본민중들의 다양하고 순수한 표정은 그것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래의 한국관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1811년 대마도역지통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사행이 폐지된 이후 정보의 불통에 따른 오해와 상호인식의 갭이 커지며 결국 갈등과 침략으로 가는 역사가 전개되었다. 이 점 조선 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임진전쟁으로 이어졌고, 근대이후 한일 양국의 관계가 침략과 저항이라는 불행한 역사로 점철되었다. 그러한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양 국민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 점에서 근세 500년 간 통신사행을 통해 전개되었던 평화선린외교와 문화교류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모델로서 재조명되고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사와 부경사를 통한 문화와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은 근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사에

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공유하였던 '동문(同文)의 세계'라는 인식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병세의식(並世意識)은 오늘날 추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선행모델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3. 한국에서의 통신사 연구 현황

통신사의 왕래는 양국의 중앙정부 사이에 있었던 직접적인 교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및 상호인식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있었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은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공식적이면서도 유일한 통로였다. 당시 일본인은 동래의 왜관(倭館)까지밖에 올 수 없었고, 조선의 문위행(問慰行)은 54회로 통신사에 비해 횟수는 많았지만 역관을 중심으로 해 대마도에 가서 실무적 현안을 해결하는 사행이었다.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수도인 에도까지 왕래하며 일본의 지식인들을 광범위하게 만나 교류하는 일은 통신사행원만 가능했다. 따라서 조선후기 양국 교류의 거의 전부가 통신사행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또한 통신사행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사에 의한 양국의 교류는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통신사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20세기까지에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연구가 국내의 그것에 비해 10배 이상 된다는 조사(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도 있다. 이러한 연구의 차이는 일본 중심의 시각을 일반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양상이 달라졌지만 연구수준까지 고려해 보면,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시기별로 전개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60년대 이전

이후 현재까지 약 120여 편이 넘는 논문이 나왔으며,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분야는 제도분야가 가장 많고, 상호인식·문학·문화교류·외교체제·기록류 순이다.

한국에서 통신사 연구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일본에 비하면 연구의 역사가 매우 짧다. 1945년 해방되기까지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서만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일본에서 통신사에 대핸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가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와가타씨 히사히코의 조사보고(「조선통신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지역과 역사』 38, 2016)에 의하면 1910년 이래 현재까지 일본에서 통신사와 관련해 발표된 연구논문은 400여 편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해방 이전에는 통신사에 관해 한국에서의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견한 바로는 1931년 김태준이 『한국한문학사』에서 1719년 기해통신사행의 제술관 신유한의 『해유록』을 소개하면서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쌍벽을 이루는 기행문학 작품이라는 논평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한문학사라는 개설서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후 국내에서 통신사 연구가 기행문학과 문화교류 분야에 집중되는 실마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한국에서의 통신사 연구를 보면 처음에는 국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일본 현지에서 통신사 행원들이 행한 시문교류 및 필담을 문학 내지 문화교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많았다.

해방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통신사를 비롯해 한일관계 내지 교류사의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일본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반일정책이 지속된 시대적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통신사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논문은 1964에 발표된바 이현종의 「조선 전기 대외사절 파견의 종별과 의의」(『사학연구』 17)이다. 그런데 이것도 조선 전기 일본에 파견된 사절을 모두 다루는 가운데 통신사에 관해 부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2) 1970년대

1970년대 들어서서 통신사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계기는 국내가 아니라 이진희, 강재언, 신기수, 이원식 등 재일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광개토왕비문 연구로 유명한 이진희는 1976년 『이조의 통신사: 에도시대의 일본과 조선』, 1979년에는 『에도시대의 통신사』 를 간행하였다. 그는 이들 저서에서 당시까지 일본 사회에서 외면하거나 왜곡했던 통신사행의 문화교류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후 신기수가 통신사와 관련된 유묵(遺墨)과 그림 등 각종 자료를 모아 『삼천리(三千里)』란 잡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하였고,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라는 영화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원식 또한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에 남긴 유묵을 직접 수집, 분석해 문화교류의 실상을 밝히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들은 통신사를 조공사로 인식하였던 당시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하고 선린우호의 문화사절로서의 통신사상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일본사회에서도 통신사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의 저술과 일본에서의 '통신사붐'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후 국내의 연구자들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한국에서의 연구경향도 일본에서의 영향을 받아 통신사행의 문화교류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3) 1980년대

이때부터 국내에서의 통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있었던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일반의 일본역사와 한일관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로서는 이 시기에 통신사에 관한 일본의 연구서가 국내에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등 일본연구자들의 저서인『조선통신사』가 1982년『조선통신사 : 일본은 우리가 키웠다』란 제목으로 번역 간행되었다. 그런데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사행의 문화교류 사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한국의 인식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또 1985년에는 김의환에 의해『조선통신사의 발자취』라는 단행본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연구서라기보다는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정사 조엄의『해사일기』를 해설한 수준의 저서이다.

주제에 따른 경향을 보면 이 시기부터 통신사사행록을 대상으로 기행문학 차원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김태준•소재영 편저의『여행과 체험의 문학(일본편)』(1985)에 이어 1990년대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묶은 것으로 이원식의『조선통신사』(1991), 이혜순의『조선통신사의 문학』(1996) 등 수준 높은 연구서로 이어졌다. 하우봉의『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1989)도 내용상으로는 통신사와 관련이 있는 성과물이다. 이후 국내에서 통신사는 "조선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문화사절단"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역사교과서에도 그러한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통신사를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 논문은 당시의 외교상황과 연관해 통신사의 과정과 의미를 해석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통신사의 복식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4) 1990년대

이 시기에 들어와 통신사에 관한 연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신사 연구가 이루어졌고, 양적으로도 괄목하게 성장한 시기였다. 그 배

경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반일(反日) 분위기가 완화된 것을 비롯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 등으로 양국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통신사를 주제로 한 연구저서가 발표되었다. 1994년에는 손승철의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필두로 홍성덕의 『17세기 한일외교사행 연구』(1998,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일본의 통신사 관련 연구서의 번역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통신사 연구자인 미야케 히데토시(三宅榮利)의 저서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예컨대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하우봉 역, 1990), 『근세한일관계사연구』(손승철 역, 1991), 『근세일본과 조선통신사』(조학윤 역, 1994), 『조선통신사와 일본』(김세민 외 역, 1996) 등이 번역 출간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사와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전문적 학술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그리고 1992년에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1994년에 일본역사학회, 1997년에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년에는 조선통신사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들 학회를 통해 전문연구자들이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학회들은 각기 『한일관계사연구』, 『일본사학연구』, 『일본사상』, 『조선통신사연구』라는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수준 높은 학술논문을 발표할 공간을 제공하면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문학분야에도 다양한 학회가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이들 학회가 허브 구실을 하면서 역사분야에 대한 해명과 연구성과가 충실하게 발표된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장순순의 조사보고(「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2005, 경인문화사)에 의하면, 1960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조선시대 통신사 관련 논저는 127편에 이르는데, 연대별 양상과 주제별 분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연구논문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연구주제에서도 문학과 문화교류에 치우치지 않고, 외교체제, 제도, 기록물, 상호인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한국에서의 통신사연구 현황

연대/주제	외교체제	상호인식	제도	기록	문학	문화교류	무역	왜관	복식	선박	음식	회화	계
1960			1		2								3
1970	2		2		1							1	6
1980		2	6	2	4	4			2				20
1990	6	17	13	5	12	10	1	2		1	1	3	71
2000	1	8	8	1	2	2			2		1	2	26
계	9	26	30	8	20	16	1	2	4	1	2	6	127

5) 200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한일 간에 연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1990년대부터 한일관계사학회를 비롯한 전문학회의 출범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학술활동의 영향이 컸다고 여겨진다. 이와카타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이 한국에서 18편(사행록 10, 문학, 문화교류 4, 미술, 복식 2, 정치외교, 의례 2)에 이르고, 일본에서는 12편이 발표되었다. 일본에서 발표된 12편 가운데 저자 8인이 한국인이다. 주제별로 보면, 한국에서는 일본사행록 및 문화교류에 관한 것이 77%를 차지하고, 일본에서는 상호인식과 문화교류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모두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통신사행을 문화교류사절로 보는 기존의 관심과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일반논문의 발표수에서도 역전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통신사와 일본문사와의 필담창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가 300편 발표되었다고 하는 조사보고도 있다.(허경진·박혜민,「이덕무의 필담창화집 문학 연구」,『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학 연구』, 2010, 보고사) 이외가타의 연구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학술지에 발표된 통신사 관련 연구논문이 347편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연구성과는 2002년까지 381편(제1기『일한역사공동연구보고서』, 2005)이고, 2002년에서 2015년에는 70여 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70편 가운데서도 연구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2000년대 들어와 주제 면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는 통신사에 관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고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사행록과 필담창화집에 관한 연구, 통신사의 기행문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 문화교류와 일본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문화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사문사의 필담창화와 의원의 의학문답, 화원들 간의 화사문답과 회화교류 외에도 음식, 복식, 음악, 선박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외교체제와 사행에 대한 비교적 고찰, 통신사행의 구성과 성격에서도 53개 직책으로 구성된 통신사행역원에 분석이 이루어지고, 제술관과 서기, 역관, 화원, 의원 등에 대한 심화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 점 매우 바람직한 형상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학 분야이다. 문화교류를 중시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처음부터 기행문학적 관심에서 출발한 것에서 유래해서, 1970년 재일사학자들 통신사를 선린우호의 문화사절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연세대학교 허경진 교수팀에 의한 필담창화집 역주 간행은 통신사행 문화교류 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통신사 연구자료로서는『조선왕조실록』과『증정교린지』,『통

문관지』와 같은 외교자료집 외에 『통신사등록』, 일본사행록, 일본의 필담창화집, 『통항일람(通航一覽)』, 『종가문서(宗家文書)』 등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운데 문화교류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필담창화집이 가장 상세하고 일차적인 자료이다. 일본인에 의해 편집, 간행된 180여 종의 필담창화집을 한국에서 역주했다는 것은 연구사의 역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팀은 국내 및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에 산재한 통신사 필담창화집 180여 종을 수집해서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총 50권)으로 발간한다. 현재 30권이 간행되었는데, 곧 완간될 예정이며, 번역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가을 일본사행록과 필담창화집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사관련기록물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 신청에 의해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하는데, 매우 뿌듯한 성과이다.

통신사 연구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주제명에서의 편향성이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문화교류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역사나 정치외교사적 연구가 부족하다. 일본에서는 초기부터 통신사를 도쿠가와막부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본의 접대와 환영, 문화전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인식되고 그러한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조선이 왜, 어떤 의도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는지, 국내에서의 준비와 생각, 행사, 의례, 통신사제 개혁, 귀국 후의 영향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접근이 매우 부족하다. 앞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해진 문물과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하우봉이 일본에서 전래된 서적 등 문물, 고학의 영향 등에 관해 연구한 바가 있으나 더욱 심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통신사와 부경사(연행사)와 연결해 '동아시아문예공화국'이 형성되었고, 동북아시아 삼국의 문화교류의 허브가 한양이었으며, 통신사와 부경사가 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시각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교류 면에서도 이러한 폭넓은 시각과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4. 몇 가지 문제들

1) 통신사의 명칭 문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조선통신사'란 명칭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1992년에 필자가 처

음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조선왕조실록』이나 『통신사등록』 등 조선시대의 사료에는 '통신사(通信使)'나 '신사(信使)' 혹은 '일본통신사'로 되어 있고, '조선통신사'란 명칭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조선에서 보면 일본에 파견하는 통신사였기 때문에 '일본통신사'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면 왜 통신사 내지 일본통신사가 조선통신사로 불리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한일관계사에 관한 연구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먼저 진행되어 왔고, 그들이 쓰는 명칭이나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이른바 '조선통신사'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란 뜻으로 일본에서 불렀던 명칭이다. 실은 일본의 사료에도 '조선의 통신사', '조선국의 통신사', '조선으로부터의 통신사'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조선통신사'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명명된 것인데,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930년 일본에서 통신사 연구를 시작한 마쓰다 고(松田 甲)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사항에 대한 명칭을 사료에 나타나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후대의 연구에 의해 규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명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것은 역사철학적인 논쟁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사적 해석보다 문헌실증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전자를, 해석을 중시하는 측은 후자를 선호한다. 예컨대 사료에 나오는 '동학란' 보다는 '동학농민전쟁'이나 '동학농민혁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통신사'에 대한 명칭은 이러한 논쟁과도 다르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학계에서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조선통신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자는 주장이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일반인들도 익숙한 만큼 편의와 관례에 따라 '그냥 그대로' 조선통신사로 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역사용어로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양국에서 '정착되어 있는' 조선통신사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언론계에서 특히 강하다. 2005년 간행된 한일공통역사교재의 제목을 『조선통신사』(한길사)로 했고, 같은 해 부산에서 결성된 '조선통신사학회'에서는 아예 학회이름으로 조선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 대세가 기울어간다는 느낌이다.

한편 서양권 학자에게 문의해 보니, 외교사절단의 이름을 붙일 때 파견대상국보다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선인이 주체로 된 사절단이므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Korean Delegation to Japan' 혹은 'Korean Embassy to Japan' 등으로 하는 것이 영어식 표현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본인도 요즈음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보다 다양한 사례 조사와 학

제적입 입장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명칭을 부여하는 원칙이나 관례를 둘러싸고, 역사학·국제법·외교사 등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해 합의를 본 후 학계와 대중매체에 알려 공인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신사의 성격 문제

첫째, 통신사가 정치사절인가, 아니면 문화사절인가 라는 문제이다. 통신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당시에도 사뭇 달랐다. 일본에서는 통신사를 기본적으로 정치사절로서 이해한 반면 조선 조정은 통신사에 대해 '교화를 통한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문화사절로 보는 인식은 문화적 우월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조선시대 대일외교자료집인『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는 통신사 파견을 외이기미책(外夷羈縻策)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사절이다. 단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안정되는 17세기 후반부터 정치적 현안이 없어지면서 문화사절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8세기 이후에는 부수적인 목적이던 문화교류가 통신사의 주된 역할이 되었다.

둘째, 통신사 조공사절관(朝貢使節觀)의 문제이다.

도쿠가와막부에서는 통신사의 내빙을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였다. 국내의 영주들에게 장군권력의 국제적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통신사를 조공사절인 것처럼 설명하고 그렇게 연출하려고 하였다. 이런 인식은 물론 주류는 아니었지만 막부의 일부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의 국학자(國學者)들은 전통적인 조선번국관(朝鮮蕃國觀)에 입각해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간주하려고 했으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침략적인 대한정책과 연관되면서 이 관념은 강화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논의는 모습을 감추었다가 최근 일부 연구자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이 주장의 논거로 조선에서만 사절을 보내었다는 '일방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 전기의 사절 왕래를 전혀 도외시하고, 또 일본국왕사의 상경이 왜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경우 조선국왕사의 일본 막부 파견은 10회 내외인 반면 일본국왕사의 내빙은 61회이며, 일반호족들의 사절을 합하면 5,000여 회에 달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일본국왕사가 오지 않은 것은 조선이 접대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조선 전기 일본사절의 상경로가 임진전쟁 때 침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며, 상경 거부는 전쟁도발에 대한 응징책의 일환이었다.

또 하나의 근거로 일본의 통신사가 도쿠가와막부 장군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는 표면적인 사명에 집착한 '입공성(入貢性)'을 강조한다.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이웃나라 사이에 교린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경조사에 예의를 표시하는 외교사절로 이해하고 있었다. 매우 전통적이고 이념적인 해석으로 맹자의 이상주의 계승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통신사가 조공사절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통신사 조공사절관은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통신사는 파견형식과 일본의 접대방식, 외교의례 등 어느 면으로 보든 조공사로 이해될 만한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통신사에 대한 접대의례를 보면 항상 일본에서 지나친 접대와 공경이 문제가 되었다. 외교의례상 일본의 격이 오히려 낮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에 대한 개혁안이 몇 차례 일어나는데 모두 재정적 부담의 경감과 함께 외교의례의 불평등성을 대등하게 바꾸자는 내용이었다. 도쿠가와막부 초기 6차례의 통신사를 영접하였던 하야시 라잔(林羅山)도 통신사를 조공사절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국내용일뿐이었다. 통신사행을 상대로 해서는 그러한 인식을 절대 표현하지 않았다.

통신사에 대한 상이한 인식의 근본적인 요인은 자민족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의 대립이다. 17세기 중반 대륙에서 명과 청이 교체되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화이관과 국제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마다 중화(中華)로 자처하는 화이변태(華夷變態)적 현상이 전개되었다. 그것을 일본에서는 일본형 화이의식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조선중화주의사상이라고 한다. 조선의 위상을 낮추어 보고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낮추어보려는 인식은 일본형 화이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일본에서는『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설화에 바탕을 둔 조선번국관(朝鮮蕃國觀)이 있다. 고대로부터 삼국이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이 가공의 설화는 일본인에게는 한국관의 원형으로서 중세, 근세를 거쳐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한국에서는 화이관에 입각해 일본을 오랑캐라고 보는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이 있었다. 문화적으로 교화의 대상으로 낮추어 보는 것이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습직 축하사절', 조선의 '문화전수를 위한 문화사절'은 모두 자민족중심주의의 산물로서 지양해야 할 이해방식이다. 자민족중심주의적 의식은 대내용 자존의식 내지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과 열등의식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퇴행적 의식을 극복하고자 양국 정부가 노력한 외교적 행사가 바로 통신사이며, 거기에 참여한 통신사행원과 일본 문사들 간의 교류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한일 간에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인식상의 격차가 많은데, 통신사에 대한 당시 막부의 일부 관료와 지식인들의 인식을 일반화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통신사행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의도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 가운데 이러

한 관념의 허구성과 한계성을 비판하지 않고 단순히 인용함으로써 재생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잘못된 논리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 있어야 극복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3)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문제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시기는 조선시대 전시기에 해당되며, 일본에서는 무로마치(室町)시대 초기부터 에도(江戶)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성격이나 형태는 양국의 독자적인 정치양상과 넓게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양태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곤란한 면도 있다. 이 점 조선후기의 한일관계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전기와 후기는 일정한 단절성을 지니고 있지만 연결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조선 전기와의 관련문제이다. 조선으로서는 전기와 후기의 조일관계와 외교체제를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었다. 동일왕조 하에서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외교정책의 근본이 유지되었으며 통교체제와 대일인식 상에서는 임진전쟁을 계기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있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일본의 교섭주체가 전기와 같은 다원성에서 벗어나 도쿠가와막부와 대마번으로 일원화된 것은 달라진 모습이지만, 실제 그것은 세종대 이래 조선정부가 지향했던 체제이다. 사절왕래의 형태도 조선에서는 전기와 후기를 같은 논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시기적으로 조선의 전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무로마치막부와 에도막부시대를 중세와 근세로 시대구분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내적인 체제에서도 이질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외교체제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연구경향이나 교과서를 보면 에도시대의 조일관계만 강조하고 무로마치시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다. 통신사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국한시켜 12차례의 통신사로 설명해 왔다. 일본에서 통신사에 대해 '사절의 일방적 파견'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통신사를 비롯한 사절은 전기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전혀 사실과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대와의 연결성 문제이다.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연구가 통신사행에 치중되어 온 데 기인하는 것이지만 17·18세기와 19세기의 전반기, 그리고 개항을 전후한 19세기 후반기의 조일관계가 일관된 논리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이해를 보면 18세기까지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선린우호와 문화교류가 강조되다가 19세기에 들어 갑자기 침략과 저항이라는 갈등구조로 바뀌어 버린다. 그 급작스런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조선후기의 한일관계가 물론 260여 년간 평화스러웠던 드문 시기였지만 선린우호라는 시각만으로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교린'의 실상을 보다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린우호의 기치 뒤에 있었던 상호인식상의 불일치, 교역의 실상, 양국 내정의 변화와 정치적 갈등, 서양제국주의 세력의 진출 등 국제적인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통신사행 폐절 이후부터 개항이전까지의 19세기의 조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절실하다.

5. 앞으로의 과제

마지막으로 연구사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비교사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통신사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사적 접근이 부족하다. 통신사행을 비롯해 양국의 문화교류사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는 '교류와 비교'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류사 부분에 치중해 왔고 일정한 성과도 올렸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교류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비교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신사의 경우 부경사(赴京使, 일명 연행사)와의 비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같은 시기 유구(琉球)의 청에 대한 진공사(進貢使)와 일본 도쿠가와막부에 대한 경하사(慶賀使), 베트남과 태국의 청에 대한 조공사, 청에서 조선·유구·베트남에 파견한 사절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신사에 대한 시각이 한국과 일본의 양자간 구도 속에서만 파악하였고 그것도 민족주의의 과잉의식 하에 대립구도적인 시각에서 보아온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사가 조선과 일본 양국이 연출한 국제적 행위였던 만큼, 통신사의 연구도 자국 중심에서 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를 일방적 전수라는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의 차이와 시간적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교류로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대외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당파적 해석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조선시대 한국과 일본은 상호멸시관을 지니고 있었고, 역사적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도 거기에 입각해 기술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당파성과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상이나 시대정신과 연관해 연구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사료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멸시관이나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역사학이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미래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신사에 대한 인식도 시야를 넓혀 동아시아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사대와 교린도 분절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야 통신사행이 지니는 제요소가 상대화할 수 있고, 그 객관적인 위상과 함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근세에는 조선·중국·일본 모두 해금체제(海禁體制) 하에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의 시기보다 폐쇄적이었다. 정부 간의 공식적인 사절단의 왕래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교류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조선의 통신사행과 부경사행은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통로이자 문화교류의 파이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 삼국의 문화교류와 관련해 베세토(Beseto ; 베이징-서울-도쿄)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통신사행과 부경사행이야말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의 베이징과 일본의 도쿄를 연결하는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이런 점에서 통신사와 부경사를 매개로 한 삼국의 교류를 통해 조선·중국·일본 등 각국의 문화 학술의 위상을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신사와 부경사가 획득한 외국의 지식, 정보, 학술, 문화가 서울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상호 교차하였는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넓은 시각에서 통신사를 재조명하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가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한·중·일 삼국의 지식인들이 공유하였던 동문의식(同文意識)과 병세의식(並世意識)을 재음미하면서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야말로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의 현재적 의미라고 생각된다.

셋째 자료에 관한 문제이다. 다양한 사료의 발굴과 충실한 사료의 이용이 요구된다. 각종 일본사행록,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 등의 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신사관련 사료가 충실히 이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사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사 연구의 국내의 자료로서는『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과 같은 연대기 사료,『통문관지』,『변례집요』,『춘관지』,『고사촬요』,『증정교린지』,『교린지』 등과 같은 외교자료집,『통신사등록』, 일본사행록, 필담창화집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교류 활동에 관해서는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43종의 일본사행록과 180여 종에 달하는 필담창화집이 가장 상세하며 중요한 일차사료

이다. 전자는 한국인이 저술하였던 만큼 주된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후자는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편찬되었고 대부분 일본에서 간행되었다. 자료의 열람과 해독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를 이용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필담창화집이 일본사행록과 비교검토하면서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이에 관한 자료정리와 역주 간행작업이 국내의 연구진에 의해 완성되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실상을 밝히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넷째, 통신사행 연구에서 주제의 편식성을 벗어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신사행원들의 필담의 주제와 문화교류 활동을 보면 문학·유학·역사·불교·의학·지리·그림·서예·음악·건축·음식·무용·복식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접근방법도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에는 그림이나 글씨, 음식 등 분야에 따라서는 문헌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비롯해 학제적 접근을 해야만 실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사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동향을 보면 기행문학과 문화교류, 상호인식 등에 치중되어 있다. 정치·외교, 경제적 요소, 역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해 통신사의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다. 통신사가 지닌 여러 측면과 의의를 생각해볼 때 보다 깊이 있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통신사의 시행과정에서 교섭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 가운데 역관(譯官)은 통신사행 파견에 관련된 사전 업무협의를 주도하였고, 사행 시에는 삼사의 일정 및 업무협의를 위한 통역 밀 실무조정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행을 통한 양국의 외교적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역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신사의 파견 준비와 실무 교섭의 공간인 왜관(倭館)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 그리고 통신사행원들이 귀국한 후에 일본에서의 견문과 체험이 조선의 대일인식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통신사행이 양국의 문화발전이나 화이관 등의 사상적 변화에 끼친 영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교류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필담창화를 통한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종교·음악·미술·무용·생활습속·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양국교류의 양상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사행의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의 연구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더불어 국내정세와 통신사 파견의 관계, 지배세력과의 연관성, 대중국외교와의 관련성 등의 검토가 요망된다.

*** 한국내의 연구저서 목록**

김의환,『조선통신사의 발자취』, 1985, 정음문화사
이원식,『조선통신사』, 1991, 민음사
이혜순,『조선통신사의 문학』, 1996, 이화여대출판부
신성순·이근성,『조선통신사』, 1994, 중앙일보사.
손승철,『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1994, 지성의 샘
박찬기,『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2001, 보고사
강재언,『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2005, 한길사
정장식,『통신사의 길을 따라 에도시대를 가다』, 2005, 고즈윈
나카오 히로시, 유종현 역,『조선통신사 이야기 :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 2005, 한울
손승철,『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2006, 동아시아
손승철,『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 교린관계의 허와 실』, 2006, 경인문화사
구지현,『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2006, 보고사
구지현,『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2011, 보고사
조규익·정영문 편,『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2008, 학고방
후마 스스무, 하정식 외 역,『연행사와 통신사』, 2008, 신서원
허경진 편,『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학 연구』, 2011, 보고사
김형태,『통신사 의학 관련 필담창화집 연구』, 2011, 보고사
나카오 히로시·하우봉 편,『조선통신사 : 한일교류사의 여러 양상』, 2012, 보고사
하우봉,『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2014, 경인문화사
하우봉,『조선시대 바다를 통한 교류』, 2016, 경인문화사

*** 참고논문(본고 작성과 관련)**

이훈,「한국에 있어서의 한일교류사 연구와 과제」,『일본학』20, 2001

손승철,「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한일관계사연구』16, 2002

조광,「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2005, 경인문화사

장순순,「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측 연구성과를 중심으로」,『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2005, 경인문화사

심민정,「조선후기 대외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 국내 대일관계 연구를 중심으로」,『항도부산』23, 2007

이와가타 히사히코,「조선통신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지역과 역사』38, 2016

* 통신사 관련 학회

1. 한일관계사학회 : 1992년 창립,『한일관계사연구』간행
2. 일본역사학회 : 1994년 창립,『일본역사연구』간행
3.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1997년 창립,『일본사상』간행
4. 조선통신사학회 : 2005년 창립,『조선통신사연구』간행

* 조선시대 통신사 일람표

번호	연대			삼사			인원	사명	조선 / 일본	비 고
	서기	조선 일본	간지	정사	부사	종사관				
1	1429	세종11 正長11	기유	박서생	이예	김극유		(조)(일) 장군습직축하, 前將軍致祭		
2	1439	세종21 永亨11	기미	고득종	윤인보	김예몽		(조) 교빙회복, 왜구 금지요청 (일) 舊好회복		
3	1443	세종25 嘉吉3	계해	변효문	윤인보	신숙주		(조)(일) 장군습직축하, 前將軍致祭		피로인쇄환 九州지역 영주들과 통호
4	1590	선조23 天正18	경인	황윤길	김성일	허 성		(조) 국내통일축하, 피로인 송환 답례 (일) 조선의 귀복		
5	1596	선조29 慶長元	병신	황 신	박홍장		309	(조) 수호, 철군요청 (일) 화의		
6	1607	선조40 慶長12	정미	여우길	경 섬	정호관	467	(조) 남변안전을 위한 대일우호, 국정탐색, 피로인쇄환 (일) 和好		회답겸쇄환사 국교재개
7	1617	광해 9 元和3	정사	오윤겸	박 재	이경직	428	(조) 국정탐색, 피로인쇄환, 대마번 견제 (일) 大阪 평정 일본통일 축하		회답겸쇄환사 京都 伏見城에서 교빙
8	1624	인조 2 寬永元	갑자	정 립	강홍중	신계영	460	(조) 습직축하, 피로인쇄환, 국정탐색 (일) 家光 습직축하		회답겸쇄환사
9	1636	인조14 寬永13	병자	임 광	김세렴	황 호	478	(조) 조선정책 확인 국정탐색, 대마번옹호, 중국대책 (일) 태평축하		通信使 호칭 사용. 將軍칭호를 日本國大君이라 함
10	1643	인조21 寬永20	계미	윤순지	조 경	신 유	477	(조) 우호유지, 청국 견제, 국정탐색 (일) 가강탄생 축하		일본 쇄국체제 성립 日光山 유람

번호	연대			삼사			인원	사명	조선 / 일본	비 고
	서기	조선 일본	간지	정사	부사	종사관				
11	1655	효종 6 明曆元	을미	조 형	유 창	남용익	485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家綱습직 축하		日光山 유람
12	1682	숙종 8 天和 2	임술	윤지완	이언강	박경후	473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綱吉습직 축하		
13	1711	숙종37 正德元	신묘	조태억	임수간	이방언	500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家宣습직 축하		통신사의례 개변
14	1719	숙종45 享保4	기해	홍치중	황 선	이명언	475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吉宗습직 축하		통신사의례 환원
15	1748	영조24 延享5	무진	홍계희	남태기	조명채	475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家重습직 축하		
16	1763	영조39 寶曆元	계미	조 엄	이인배	김상익	477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家治습직 축하		최천종 피살
17	1811	순조11 文化8	신미	김이교	이면구		328	(조) 장군습직 축하, 국정탐색 (일) 家齊습직 축하		대마역지통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 근세사 연구 성과와 과제

박 진 한 (인천대)

1.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인식과 일본사연구

한국의 일본사 연구는 해방과 함께 잠시 동안 단절되었다. 일본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친일'로 간주하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사 연구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대학에서 국사, 즉 '일본사'을 전공했던 연구자들은 만선사와 같은 연구를 중단하는 대신, 고대 한일교류사로 연구 방향을 선회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이 주장한 이른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대 한반도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야마토(大和), 아스카(飛鳥) 정권에 선진 제도와 문물을 전수함으로써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과정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文昌魯, 2009).

한편 해방과 함께 단절되었던 한일양국의 외교관계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을 계기로 회복되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앞두고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회담 개최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사회와 경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조국근대화'의 모델로서 일본이 보여준 경제재건과 고도성장에 주목했던 것이다. 미국 유학을 경험한 연구자들은 당시 구미학계를 풍미했던 '근대화론'에 바탕을 두고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전반까지 한국의 일본연구는 반일감정을 기저에 두고 일제강점으로 인한 '식민사관'으로부터의 극복과 '조국근대화'의 모델이라는 진폭 사이를 공진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마치 대극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일본연구는 반일감정이라는 진축을 공유하면서 해방 이후 새로운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동일한 방향을 향해 위치한 것이었다.

'반일'과 '극일'의 대상에서 지역학 내지 역사학의 대상으로 일본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일본사 관련 교수들이 한국 대학의 역사학 관련 학과에 임용되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들의 주도 하에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일본사 전공과목이 개설되었다. 이후 이들의 지도하에 일본과 미국 등지로 현지조사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1992년과 1995년, 1997년에 각기 한일관계사학회(韓日関係史学会), 일본사학회(日本史

学会), 한국일본사상사학회(韓国日本思想史学会)와 같은 관련 학회가 창설되었고 학회지인『한일관계사연구(韓日関係史研究)』,『일본역사연구(日本歴史研究)』,『일본사상(日本思想)』 등이 창간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본사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일본사연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경제와 사회는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모델로서의 효용성이 사실상 상실되었다. 그 대신 세계화 이후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 내지 이웃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한국의 외무부장관이 "피해자의식에서 벗어나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일본과 교류하겠다."고 표명한 발언은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상대방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일국사의 문제의식과 국가주의의 편협함을 넘어서 상호 이해와 교류에 방점을 두고 한일역사공통교재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국과 함께 중국이 G2의 하나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아베정부 수립 이후 미일동맹을 축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화해와 공존을 위한 한일 양국 역사연구자의 노력은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양국의 보수정권은 대다수 국민 정서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무시한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버리려 했다. 식민통치와 과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적당히 뒤덮고 '반일'의식과 '혐한'분위기를 조성해 보수세력의 결집과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이상 한국에서 일본사연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고찰과 응답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지난 2000년 이후『역사학보(歴史学報)』에서 2년마다 학계의 연구 동향과 주요 성과를「회고와 전망」에서 '일본사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사회의 일본근세사 연구 동향과 주요 성과를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관계사 연구의 확장과 심화

2000년 이후 한국의 일본근세사연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할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한 임진왜란, 통신사와 왜관을 통한 한일교류 등과 같이 일본의 침략과 한일 양국의 관계사에 연구 성과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전쟁 역시 대외교류의 극단적 형태라 한다면 근세사연구의 대부분은 사실상 관계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일

본근세사 연구가 주로 관계사에 집중된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부터 기인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 즉 임진왜란 연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사와 한국사 연구자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주된 관심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사의 경우 이순신으로 대표되는 조선수군의 승리, 의병항쟁, 명의 원병 파견에 초점을 두고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전개과정, 특히나 초기의 전투양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일본사연구자는 전쟁의 후반부, 즉 임진왜란의 강화교섭 및 조일 간의 국교재개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쟁의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른 입장이 확인된다. 일본사연구자의 경우 전쟁에 가담한 이들을 침략과 피해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단순화시켜 나누기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을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예컨대 일본에 끌려간 포로와 강제로 피로되어 조정으로부터 '부왜(附倭)'로 간주된 이들은 물론이고 포로로 잡힌 항왜의 투항 배경과 역할 등을 검토했다(민덕기, 2009/2014 ; 노성환 2014).

임진왜란에 관한 최근 연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7년 전쟁의 전개과정과 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종래의 한국사, 일본사전공자 이외에 다양한 인접학문분야에까지 연구가 확대되면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폭과 수준이 한층 넓어지고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대한 명조의 이해와 대응을 명중기인 16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는 '북로남왜(北虜南倭)'의 침입에 대한 대처의 일환에서 살펴보고자 했을(차혜원, 2014)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임진왜란의 명칭을 '동아시아7년 전쟁', '동아시아 삼국전쟁'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김기봉, 2012).

이와 함께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임진왜란의 참전경험이 군담류나 기록들에서 영광과 승리의 기억으로 회고되는 과정(김광옥, 2006/2007; 김시덕, 2012a/b)과 함께 NHK대하드라마에 묘사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 임진왜란의 '영웅'관이 사후적으로 성립되는 과정 역시 연구되었다(김문자, 2013). 이 같은 연구는 임진왜란이 일본사회에 기억되고 재현되고 소환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야사나 군담류가 갖는 사료적 한계, 즉 과장되게 서술된 허구적 이야기를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과 함께 일본근세사 연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주제는 통신사와 왜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통신사연구가 주로 양국 간의 문화교류, 상호인식, 통신사나 수행원의 사행기록에 관한 문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에는 대등관계를 표방하는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 속에 내재된 자민족중심의식 내지 양국 지식인 사이의 간극과 갈등을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허경진, 2014; 허은주, 2014). 통신사와 함께 근세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양국교류의 창구였던 부산의 왜관, 그리고 역관과 통사였다. 총 12회에 걸친 통신사의 공식적인 파견과 방문, 왜관을 통한 조선과 대마도, 막부 사이의 관계(김강일, 2012), 역관과 통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허지은, 2008/2009; 윤정희, 201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통신사, 왜관 등을 소재로 삼은 한일관계사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종래의 제도사나 외교사, 문화교류사와 달리 경제사나 생활사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교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근세한일관계사에서 주목해야할 연구주제는 울릉도, 독도 귀속 문제이다. 독도 관련 연구는 2006년 9월 한국정부가 독도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참배 등의 외교문제에 학술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본, 중국과 상호역사인식의 차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학술단체와 협의를 거쳐「동북아역사재단」을 창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와 관련된 일본 측 기초 사료가『울릉도, 독도관련 사료집 Ⅰ. Ⅱ』(김강일 외, 2013) 으로 정리되어 연구 상의 편의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실태(윤유숙, 2012b; 장순순, 2014)와 그의 귀환으로 촉발된 울릉도 귀속 논쟁이 결과적으로 조선 지식인의 영토인식을 고양시킨 사실(장순순, 2015)이 밝혀졌다. 또한 이른바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를 통해 막부가 독도, 즉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규명되었다(윤유숙 2012a).

3. 정치·제도사의 침체와 사회·사상사로의 확장

정치사나 제도사, 경제사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전공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성과 역시 그리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일단 전공자의 숫자가 적은데다 개인적 관심에 따라 연구주제가 결정되다 보니 연구자 사이의 심도 높은 논쟁과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학계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천황제는 한국의 연구자에게 가장 '문제적'인 연구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오다(織田)정권과 도요토미(豊臣)정권, 그리고 에도(江戸)막부 하에서 현실의 무가권력자와 천황(조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근세 무가권력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으로의 지향성

을 갖는 천황(조정)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무가국가를 만들어가고자 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오다정권 이래 도요토미정권, 에도막부 하에서 장군을 수장으로 삼는 무가국가 수립과정에서 무가권력자들이 천황을 정치권력에서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를 통해 예능의 체현자로 규정한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이 제기되었다(이계황, 1996/1999/2000/2002). 이에 반해 16, 17세기 일본을 방문한 서양선교사의 보고서와 기록을 통해 이들이 당시 일본사회를 '종교적 황제'인 천황과 '세속적 황제'인 장군으로 구성된 이원적 지배구조로 이해했음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윤병남, 2002). 이와 함께 도요토미정권과 천황과의 관계를 상호 '의존론'과 '이용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종전의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양자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히데요시가 말년에 천황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이유와 배경에 주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황을 통해 체현되는 전통질서의 의의를 중시해야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박수철, 2008/2010/2012).

근세정치사에서 오다, 도요토미정권과 천황(조정) 사이의 관계가 '문제적'인 연구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정작 에도막부와 번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문제적인 연구주제가 되지 못했다. 막부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종전의 학설에 대해 번 경영의 상대적 자립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광산경영을 둘러싼 아키타(秋田)번과 막부 사이의 분쟁을 번의 입장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번의 자립성을 중시하는 연구가 제기되었다(윤병남, 2007). 연구소재는 다르지만 센다이(仙台)번의 사례를 들어 국산전매정책에서 나타나는 상인나가마, 즉 상인자본의 역할을 재평가함으로써 전국시장과 영내시장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막부에 대한 번의 상대적인 자립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박경수, 1996/1997/2000)와 하기(萩)번의 어가소동을 통해 수공된 지번이 다시 재흥되는 과정에서 번의 자율성에 주목한 연구(양익모, 2014) 등이 이루어졌다. 다만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에도막부의 중앙집권적인 구심력과 제번(諸藩)의 지방분권적인 원심력을 애초에 장착한 상태에서 구성된 막번체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면 다이묘의 영국지배나 번정 뿐만 아니라 에도막부에 대한 연구 역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이후 일본근세사연구가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사, 경제사로부터 사회사, 사상사로의 확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 분야가 다양화된 것은 비단 일본사회를 폭넓게 이해하려는 한국사회의 요구와 함께 일본사연구의 주제와 소재를 확장하려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이 절충된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사의 경우 관심에 따라 연구분야가 확장되다보니 특정한 경향이나 특징을 찾기 힘들다. 다만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

어진 분야는 여행과 출판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에도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로 조닌(町人)문화의 발달과 서민사회의 출현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에도시대 서민들의 가장 대중적인 여행이었던 이세참궁의 실태와 성격, 의의에 관한 논의(이계황, 2006/박진한, 2012)와 촌락행정인의 일기를 소재로 상층농민의 여행과 여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박진한, 2006)과 여행이 갖는 견물유람적 측면(정영인·신종대, 2014)과 명소안내기를 통한 에도 '명소'의 출현에 주목한 연구(이현영a/b)가 이루어졌다.

에도시대 서민계층에까지 학문과 문화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판인쇄술의 발달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와 관련해서 에도시대 일본에서 간행된 선서(善書)에 대한 서지학적 정리(김시덕, 2014)와 함께 일본 고활자본의 조선기원설(이재정, 2014), 포르투갈,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 이국에 대한 동경과 이문화소비가 대중적 취미로 전이되는 현상(김지영, 2012/2014)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상사는 한국의 일본근세사연구에서 정치사 이상으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다. 에도시대 사상사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성리학이 체제교학으로 기능했던 조선과 달리 일본이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무가국가에서 천황제국가로 급속히 이행해갈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과 국가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에도시대 다양한 사상분파의 형성과 전개양상, 특성을 규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야마가 소코로 대표되는 고학자의 주자학 수용과 무사도에 입각한 직분론(구태훈, 2012/2013), 양명학과의 사상적 융합 내지 절충을 통한 무사도의 형성(신형승, 2007), 안사이학파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이희복, 2005), 모토오리 노리나가의『고사기전』에서 출발해 그의 제자인 핫토리 나카쓰네와 히라타 아쓰타네로 이어지는 국학의 사상경향에 관한 일련 연구(배관문, 2012a/b, 2015a/b ; 박규태,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자학이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 등으로 대표되는 6인의 사상가를 소재로 삼아 주자학의 일본적 전개형태를 고찰하거나(고희탁, 2009), 센다이번의 사례를 통해 유학의 수용과 정착과정을 분석했다(이희복, 1999).

4. 남겨진 결론

관계사가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일본근세사연구에 대해 오히려 한국적 특징...

과연 그러한가? 일본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동북아역사재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

일본의 한국 전근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조선시대사를 중심으로

나가모리 미쓰노부 (텐리대)

들어가는 말

・長森美信[2010]「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中近世史研究――1970年代までの高麗・朝鮮時代史研究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48
– 1970년까지의 일본의 고려・조선시대사 연구에 대하여 당시 연구가 어떠한 배경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또한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長森美信[2015]「日本における韓国学研究の回顧と現況――天理大学と朝鮮学会を中心に――」『慶南学』34(韓国・慶尚大学校慶南文化研究院)
– 식민지 시대의 '경성'에서 본격화된 일본의 근대적 한국학(조선학) 연구가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단절'된 속에서 '경성'의 한국학 연구를 '계승'한 덴리(天理)대학과 조선학회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의 한국학 연구 현황을 고찰하였다.
→ 본 보고의 과제 : 일본의 근대적 조선사학 연구, 조선시대사 연구의 흐름을 되짚어봄과 동시에 특히 근래(2000~2010년대)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며 과제를 전망한다.

1. 일본의 근대 조선사학의 시작 — '경성'에서의 '조선학' 연구 —

오늘날 일본의 '한국학' 연구가 전전 '조선학' 연구에서 유래하는 것에 이론을 제기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본의 '조선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애초에 '조선학'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쓰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1877년(메이지 10)에 일본 최초의 대학으로서 도쿄대학이 만들어졌을 때도 1886년(메이지 19)의 제국대학령 시행에 따라 제국대학이 탄생했을 때도 '조선'의 이름을 붙이는 학과나 강좌가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1] 나카미 다테오(中見立夫)는 1916년(다이쇼 5)에 도쿄제국대학에 '조선사 강좌가 신설되었다'는 기록이 '도쿄제국대학학술대관 총설・문

학부'(도쿄제국대학, 1942년)에 보인다고 지적한다.[2] 이는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을 붙인 강좌가 대학에 설치된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도쿄제국대학이 일본의 조선학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의 조선학 연구의 일대 중심이 된 것은 도쿄가 아니라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경성'이었다.

1924년(다이쇼 13) 4월, 경성제국대학(예과)이 발족하였고 1926년에는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이루어진 본과가 개설되었다.[3] 법문학부에는 조선사학 제1강좌와 제2강좌가 설치되었고,[4]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교토제국대학 교수와 겸임),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 고고학 강좌에서 이적),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1904−1992) 등이 교수를 맡았다.[5]

---

1) 제국대학령 발포와 함께 설치된 '박언학과(博言学科)'에서는 '선택과목'으로서 조선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나(中見立夫(2006)「日本的「東洋学」の形成と構図」岸本美緒編『東洋学の磁場』岩波書店, p.18.) 개강 당부나 수강자 수 등 자세한 것은 불명이다.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육 기관으로는 1880년에 외무성의 한어학소(韓語学所)가 문부성으로 이관되어 이른바 '구 도쿄외국어학교'에 조선어 학과가 설치된 일이 있으니 1886년에 폐지되었다.

2) 이 '조선사 강좌'는 처음에는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강좌'였으나 1932년(쇼와 7)에 동양사학과에 편입되었다고 한다(中見立夫(2006), p.41.). 교토에 제2의 제국대학이 설치된 1897년에 '제국대학'은 '도쿄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다.

3) 경성제국대학은 오사카제국대학(1931년 설립), 나고야제국대학(1939년 설립)보다 앞서 '대일본제국'에서 6번째로 설립된 제국대학이며 '제국' 전체를 통틀어도 걸출한 고등 교육 연구 기관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학 창립 50주년 기념지 편집위원회 편(1974)「京城帝国大学設置の経緯」『紺碧遙かに――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京城帝国大学同窓会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정선이(2002)『경성제국대학 연구』문음사, 朴光賢(2003)『京城帝国大学と「朝鮮学」』名古屋大学博士学位論文 등 경성제국대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있다. 근래의 연구 상황과 그 도달점에 대해서는 通堂あゆみ(2011)「高橋亨と朝鮮」川原秀樹・金光来編訳『高橋亨朝鮮儒学論集』知泉書館의 주석 (31) 및 酒井哲哉・松田利彦編(2014)『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ゆまに書房를 참조. 특히 이 책에 수록된 문헌 목록 및 아카이브 소개(아울러 집필자는 쓰도 아유미(通堂あゆみ))는 참고할 만하다.

4) 교토제국대학에는 이 이외에 조선어학문학 제1강좌와 제2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사학・어학문학 이회의 고고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법학 분야에서 조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았다. 경성제국대학 개설 당초의 법문학부 교수 및 조교수 총 35명 중 9명이 조선학 연구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吉田光男(2005)「日本における韓国中近世史研究教育基盤―大学・学界・研究工具―」『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p.274.)

5) 조선사학 강좌 이외에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 도쿄제국대학 겸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 가와노 로쿠로(河野六郎, 1912−1998) 등이 조선어학문학 강좌의 교수를 맡았고 그밖에 다바타 다메도(田花為雄, 1896−1982. 교육학),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1886−1960. 종교학・종교사), 아베 요시오(阿部吉雄, 1905−1978. 중국철학), 도리야마 기이치(鳥山喜一, 1887−1959. 동양사),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888−1954. 사회학),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 국사학),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1900−1973. 경제학),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1901−1975. 경제학), 하나무라 요시키(花村美樹, 1894−?. 형법・형사소송법), 나이토 기치노스케(内藤吉之助, 1849−1946. 법제사), 오쿠히라 다케히코(奥平武彦, 1900−1943. 정치학 정치사), 스즈키 에이타로(鈴木栄太郎, 1894−1966. 사회학) 등이 정도의 차는 있어도 각자의 분야에서 조선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실로 전전기 일본의 조선학 연구・교육의 중심이었다. (吉田光男(2005), p.274.)

‘경성’에서 ‘朝鮮史’ 6편 37권(1932−1940)이나 ‘朝鮮史料叢刊’ 21종(1932−1944) 등을 편찬 간행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1925년 설치)도 역사학 분야에서 커다란 연구 거점이 되었다. 역사 편찬관이었던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 1876−1940),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1902−1984),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1904−1992) 등은 후에 경성제국대학 교원이 되었으며, 또한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1909−1988)와 같이 경성제국대학의 졸업생이 역사 편찬관으로 취임하는 등 조선사 편수회와 경성제국대학과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거기에 ‘경성’에는 재야의 연구자로 마쓰다 고(松田甲, 1863−1945),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6),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1870−1943),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1870−1953), 아오야기 다로(青柳太郎, 1877−1932),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4) 등이 있으며,[6] 그들과 경성제국대학의 연구자 사이에는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 내용은 ‘서물동호회(書物同好会)’의 활동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7]

당시 ‘최근세사’가 된 조선시대사는 ‘경성’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주된 연구 대상 중 하나였다. 조직적으로 수집된 사료에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전된 한편으로 거기에 그려진 조선시대사상(像)은 후에 남북 조선의 연구자로부터 ‘일제 어용사가(御用史家)’에 의한 ‘식민지주의사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타율성론(반도적 성격론), 정체론, 당파성론, 만선사관 등이 비판 대상이 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은 식민지 도시 ‘경성’의 끝이기도 했다. ‘경성’을 거점으로 한 조선학

각 연구자의 경력과 업적에 대하여 여기에서 상술할 여유는 없다. 木村誠·吉田光男·趙景達·馬淵貞利編(1995) 「日本人の朝鮮·朝鮮史研究」『朝鮮人物事典』大和書房 이외에 宮田節子감수·通堂あゆみ해설(2012) 「京城帝国大学時代の回顧」(未公開資料 朝鮮総督府関係者 録音記録13『東洋文化研究』14)에는 경성제국대학 관계자가 다수 등장하며 각 인물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를 달았으므로 참고. 특히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진에 주목한 연구로는 通堂あゆみ(2008) 「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の再検討—法科系学科の組織·人事·学生動向を中心に—」『史学雑誌』117−2 및 박광현(2009) 「식민지 ‘제국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경합의 양상과 교수진의 유형」『일본학』28(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등이 있다.

6) ‘경성’의 재야의 조선학 연구자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 특히 귀국 후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다. 마쓰다 고(松田甲)에 대해서는 権純哲(2008) 「松田甲の「日鮮」文化交流史研究」『埼玉大学紀要』44−1가 있으며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에 대해서는 출신지인 미야기현(県) 게센누마시(市)에서 落合亮·気仙沼ユネスコ協会編(1999)『日韓文化かけはしの先人 鮎貝房之進』気仙沼市教育委員会 가 간행되었으며 그 밖에 白井順(2013) 「前間恭作と鮎貝房之進の交流—在山楼文庫資料を通して—」『年報朝鮮学』15 등이 있다. 白井順(2015)『前間恭作の学問と生涯』風響社도 아울러 참조 바람.

7) 1937년 5월, ‘경성’에서 ‘서지학적 방면에서 조선 문화 연구에 기여하고자 탄생한’ 것이 ‘경성, 서물동호회’이다. 1943년 4월 시점에 회원 수는 160명을 넘었다고 한다. 매월 1회의 정례회(총 65회 개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내용은 오늘날 ‘서물동호회 책자(書物同好会冊子)’, ‘서물동호회 회보(書物同好会会報)’를 통하여 할 수 있다. (桜井義之(1978) 「解題」『京城書物同好会会報 附冊子』復刻, 龍溪書舍, 참조)

연구자들 다수는 '귀국'하게 되었다. 많은 연구 자원(장서, 문헌 자료 등)을 '경성'에 남긴 채 몸만 돌아온 예도 적지 않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학 연구는 이로써 '단절'을 맞이하였다.

2. 전후 일본의 조선사학과 조선시대사—— '단절' 인가, '계승' 인가 ——

전후 일본의 조선사 연구는 전전의 연구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일선동조론·만선사·타율성론·정체론 등의 '잘못된 조선사상(像)', '일그러진 조선사상(像)'을 비판·극복하며 '새로운 조선사상(像)'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선사의 주체적 발전과 내재적 발전이 추구되었다.

타율성론·정체론 비판과 유물사관이라는 두 지향성은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예제도, 봉건제도, 군현제도, 토지소유 그리고 자본주의 맹아에 관한 연구가 재경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남북 조선의 연구 성과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평가, 흡수하면서 이들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정체된 사회의 전형처럼 보였던 조선시대사상(像)도 서서히 변모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자본주의 맹아론 성황과 더불어 전에는 부진했던 조선 후기에 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어 조선 후기 사회의 제분야에서 근대적 맹아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분야의 연구 축적이 매우 급속하게 진전된 사실의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타다 다카시(旗田巍)가 제창한 '외압과 저항'이라는 새로운 시점이 대외 관계사 연구에 미친 영향도 컸다. 몽골의 외압에 대한 고려의 저항,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대한 의병의 싸움 등 전전 연구에서는 그려진 적 없던 조선사상(像)이 제시되었다. 고려의 군현제처럼 이전에는 알려진 적이 없었던 조선 사회의 독자성·주체성이 잇달아 밝혀진 점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던 것이 1959년에 창립된 조선사 연구회였다.

한편 이러한 '잘못된 조선사상' 극복을 위한 움직임에 스에마쓰 야스카즈, 나카무라 히데타카,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다가와 고조 등 이전의 '경성'에 인적·학적 유대를 갖는 사람들에 의한 정확한 사료적 지식으로 입증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된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후 일본으로 귀국한 '경성'의 연구자들 다수는 덴리대학과 조선학회(1950년 창립)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재개하였다. 국가의 수취 제도(공납제·대동법·균역법 등), 향촌 사회사 연

구의 진전은 그들의 실적이다.

조선사 연구회를 거점으로 한 소장 연구자와 조선학회를 거점으로 한 명사·노대가들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친하게 어울리는 일은 적었던 듯하다. 하지만 전후 일본의 조선사학, 특히 조선시대사 연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자의 움직임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전후의 새로운 조선사 연구의 초석을 구축하게 되었다.

3. 조선시대사 연구의 현황

<표1>은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DB版)'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 편수를 1945-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고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현대 재일, 일반의 7분야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조선시대사를 다룬 논문이 적은 것이 눈에 띈다. 조선 중근세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50년대까지가 16%, 60년대 12%, 70년대가 되면 9%까지 저하된다. 고고·고대사의 성황, 이전에 부진했다는 근대사·현대사의 급격한 증가와 비교하여 보면 절대수의 감소가 뚜렷한 고려시대사는 물론, 절대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조선시대사에서도 뚜렷한 상대적 감소 경향이 보이는 것이다.

<표1> 일본의 조선사 연구 논문 분야별 편수와 비율(1945-1979년)

	고고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현대 재일	일반	계
1945-59	186 (28%)	52 (8%)	105 (16%)	79 (12%)	114 (17%)	25 (4%)	98 (15%)	659 (100%)
1960-69	283 (18%)	75 (5%)	181 (12%)	314 (20%)	492 (32%)	53 (3%)	157 (10%)	1555 (100%)
1970-79	623 (26%)	53 (2%)	205 (9%)	647 (27%)	560 (23%)	78 (3%)	220 (9%)	2386 (100%)

출처 :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論文篇)DB版
(http://www.chosenshi.gr.jp/sengo/ronbun.html)
(비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음으로 <표2>는 같은 DB에 등록된 2000년 이후, 17년간의 데이터를 <표1>의 7분야에 '사료'를 더한 8가지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두 표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고고 고대 분야의 비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

일 것이다. 해에 따라서 증감은 있지만 그 이외의 분야별 비율은 1970년대부터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표2> 일본의 조선사 연구 논문 분야별 편수와 비율(2000-2016년)

	고고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현대 재일	일반	사료	계
2000	120 (13.2%)	12 (1.3%)	95 (9.7%)	234 (25.7%)	266 (29.2%)	54 (5.9%)	116 (12.7%)	15 (1.6%)	912 (100%)
2001	144 (10.8%)	29 (2.2%)	101 (7.0%)	247 (18.6%)	416 (31.3%)	78 (5.9%)	269 (20.3%)	44 (3.3%)	1328 (100%)
2002	125 (13.5%)	13 (1.4%)	65 (6.5%)	164 (17.7%)	242 (26.1%)	46 (5.0%)	236 (25.4%)	37 (4.0%)	928 (100%)
2003	72 (7.4%)	16 (1.6%)	83 (8.3%)	173 (17.8%)	157 (16.2%)	39 (4.0%)	422 (43.4%)	18 (1.9%)	972 (100%)
2004	132 (14.8%)	24 (2.7%)	83 (9.1%)	215 (23.6%)	230 (25.8%)	37 (4.1%)	154 (17.3%)	16 (1.8%)	891 (100%)
2005	80 (10.8%)	11 (1.5%)	52 (6.5%)	168 (22.6%)	162 (21.8%)	42 (5.7%)	217 (29.2%)	11 (1.5%)	743 (100%)
2006	110 (11.8%)	22 (2.4%)	73 (7.4%)	202 (21.6%)	271 (29.0%)	39 (4.2%)	207 (22.1%)	11 (1.2%)	935 (100%)
2007	86 (9.3%)	19 (2.0%)	77 (8.0%)	179 (19.3%)	175 (18.9%)	67 (7.2%)	313 (33.7%)	12 (1.0%)	928 (100%)
2008	88 (10.2%)	18 (2.1%)	89 (9.7%)	155 (18.0%)	195 (22.7%)	38 (4.4%)	260 (30.3%)	16 (1.9%)	859 (100%)
2009	84 (13.9%)	21 (3.5%)	108 (17.1%)	186 (30.7%)	86 (14.2%)	24 (4.0%)	80 (13.2%)	16 (2.6%)	605 (100%)
2010	122 (13.3%)	21 (2.3%)	81 (8.1%)	296 (32.1%)	134 (14.6%)	45 (4.9%)	196 (21.3%)	25 (2.7%)	920 (100%)
2011	90 (10.4%)	13 (1.5%)	111 (12.0%)	241 (27.9%)	199 (23.0%)	36 (4.2%)	168 (19.4%)	6 (6.9%)	864 (100%)
2012	127 (18.8%)	12 (1.8%)	86 (12.4%)	166 (24.6%)	138 (20.5%)	30 (4.5%)	104 (15.4%)	11 (1.6%)	674 (100%)
2013	139 (17.0%)	12 (1.5%)	102 (12.1%)	243 (29.9%)	177 (21.7%)	49 (6.0%)	83 (10.2%)	9 (1.1%)	814 (100%)
2014	96 (15.3%)	25 (4.0%)	79 (12.0%)	187 (29.9%)	95 (15.2%)	28 (4.5%)	108 (17.3%)	8 (1.3%)	626 (100%)
2015	122 (16.4%)	11 (1.5%)	67 (8.5%)	186 (25.0%)	203 (27.2%)	37 (5.0%)	98 (13.2%)	21 (2.8%)	745 (100%)
2016	98 (11.6%)	16 (1.9%)	111 (12.6%)	207 (24.5%)	195 (23.1%)	27 (3.2%)	180 (21.3%)	11 (1.3%)	845 (100%)

출처 :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論文篇)DB版
(http://www.chosenshi.gr.jp/sengo/ronbun.html)

조선시대사로 한정하여 보면 2009년에 대폭적인 증가가 보이는데 17편의 조선시대 논문을 수록한 北島万次他編『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校倉書房)가 같은 해 간행된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은 10%를 넘은 적이 없던 조선시대의 비율이 이 이후 12% 안팎으로 움직이는 추세가 보이는 점은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조선시대사 연구가 어떤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표3> 2000-2010년대 일본의 조선시대사 연구 현황(논문편수·저자·분야별)

편수	저자명(분야)	
		대외관계사
23편	桑野栄治 (의례, 대외관계)	
18편	六反田豊 (사회 경제, 조일 관계) 山本進 (경제사)	
16편	中純夫 (사상, 주자학, 양명학)	仲尾宏 (근세 조일, 통신사)
15편	山内弘一 (사회사, 사상) 山内民博 (사회사, 호적)	
13편		池内敏 (근세 조일)
12편	須川英徳 (경제사)	村井章介 (중세 조일)
11편	長森美信 (사회사, 역사 지리, 교통)	関周一 (중세 조일) ケネス=ロビンソン (근세 조일) ロナルド=トビ (근세 조일, 통신사, 문화사) 糟谷政和 (조일, 표류민, 통신사)
10편	押川信久 (불교사)	伊藤幸司 (중세 조일, 大内氏, 宗氏) 米谷均 (근세 조일)
9편	吉田光男 (사회, 사료) 韓普光(泰植) (불교사)	貫井正之 (조일, 임진왜란, 통신사) 荒木和憲 (중세 조일, 쓰시마) 佐伯弘次 (중세 조일) 須田牧子 (조일, 大内氏, 宗氏) 太田秀春 (조일, 군사사, 성곽사) 田代和生 (근세 조일, 경제) 夫馬進 (조중, 조일, 통신사, 연행사) 木村拓 (조중, 여진)
8편	川原秀城 (사상) 矢木毅 (사회사) 鈴木信昭 (사상, 문화사)	松尾弘毅 (조일, 五島, 平戸) 津野倫明 (조일, 임진왜란) 松浦章 (조중, 동아시아교류) 清水太郎 (조월 교류) 鈴木開 (조청)

7편	井上和枝 (사회사, 여성사) 宮嶋博史 (사회사, 이론, 근세화론)	橋本雄 (중세 조일, 僞使) 中野等 (조일, 임진왜란) 北島万次 (조일, 임진왜란) 李泰勳 (중세 조일, 왜구) 荷見守義 (조중, 여진)
6편	染谷智幸 (문화, 문자)	
5편	川西裕也 (고문서) 藤本幸夫 (서지학) 文純実 (문화사, 사회사, 대외관계)	横山恭子 (근세 조일, 통신사) 河宇鳳 (조일, 통신사) 高橋博巳 (조일, 문화) 姜在彦 (근세 조일) 辻大和 (조청)

출처 :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論文篇)DB版

<표3>은 <표2>에 제시한 2000-2016년의 17년 동안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저자와 그 연구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조선시대사 연구자층이 얇다는 것이다. 보고자는 일찍이 1945-1970년대의 고려시대사·조선시대사 연구 상황을 고찰했을 때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였지만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연구 분야의 경향도 변하지 않았다. 1945-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외관계사 분야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그 다수가 일본사측·중국사측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으로 조선사 전문가에 의한 연구가 적다(<표3>의 집필자 51명 중 조일관계사 분야가 24명, 중기관계사 분야가 7명). 하지만 기무라 다쿠(木村拓), 스즈키 가이(鈴木開), 쓰지 야마토(辻大和) 등에 의해 조선사측에서 바라본 대외관계, 특히 대명(明)·대청(清) 관계사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 점은 2000년대에 들어선 뒤의 변화로서 지적할 수 있다.

조선사 전문가에 의한 연구 분야도 편향적이다. 사회사, 경제사, 사상사 분야의 연구가 비교적 풍부한 반면 정치사 분야 연구는 극히 적다.

맺음말

일본의 조선시대사 연구의 특징은 한정된 수의 연구자들이 각각의 관심에 따라 개별·단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후 한결같이 일본의 조선시대사 연구가 놓인 상황이었으며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에서 조선사는 외국사이다. 자국사로서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는 한국학계와 일본의

조선사학계가 다른 상황에 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점을 전제로 일본의 조선시대사 연구자에게는 무엇이 요구될 것인가.

2000년대에 들어서 조선시대를 무대로 한 '한류시대극'이 일본에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고자도 시민 강좌나 문화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사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 반응은 매우 좋다. 한류시대극은 화려한 조선 왕조, 흥미로운 조선시대라는 이미지를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심어놓았다.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한류시대극의 거대한 영향력은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엔터테인먼트인 한류시대극에는 당연하게도 과장된 연출과 각색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엔터테인먼트성을 사실(史實) 왜곡, 역사 날조 등으로 비판하며 문제 삼는 '혐한'적인 언론이 생겨난다. 그러한 '혐한'적 언론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된다.

이렇듯 한류시대극이 양과 음 쌍방향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으로 조선사 연구자가 학술지에 개별 논문을 발표해 보았자 일반인들이 읽는 일은 없다. 연구 논문이나 전문서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일반서, 한국학계의 성과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번역서 간행 또는 한류시대극 소개, 자막 번역 감수 등은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지도 모른다. 일본의 조선시대사 연구 현황을 볼 때 각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이해

김 종 식 (아주대)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는 한국사회라는 움직일 수 없는 기본토대 위에 서 있다. 일본근현대사연구는 일본에 의한 한국침략과 식민지 경험에 의해 다른 지역 역사 연구와는 다른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자들이 공통의 의식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사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일본사 연구동향을 정리한 함동주는 두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 시기의 특징으로 한일관계사가 한국 일본사연구를 역사학 분과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둘째시기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일본사 연구라고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함동주는 한국학계의 일본사연구를 일본학계의 연구 방향, 목적과는 다르게 한국적 관점에서 일본사를 재해석,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일관계가 한국의 일본사, 특히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출발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일본근현대사의 확대는 세계사적인 연구흐름의 전개에 따른 변화로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의 환경과 한일관계라는 연구 출발점의 확장에 따른 전개로 이해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이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흐름이라고도 생각한다.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 먼저 일본근현대사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다음으로 한국이 일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양국의 상호 교섭·관계, 비교사의 영역이다. 기존 연구도 이와 비슷한 분류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본 발표에서도 일본사의 자체를 다루는 것을 '자체'로 분류하고, 한일의 상호 교섭과 관계의 역사를 '관계'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흐름과 인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45년부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까지는 일본사 연구의 공백기이며, 다음으로 1965년부터 1980년 정도까지는 모색기, 그리고 1980년부터 본격적인 일본사 연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백기

1)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역사학보』(역사학회)의 「회고와 전망」을 참고로 분류하였다.

와 모색기의 일본근현대사 연구는 식민지 시기에 출생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사 학습자 혹은 한국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태동기의 담당자는 1945년을 전후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고,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여 일본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수의 연구자들이다. 이들이 귀국하여 연구자로 교육과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역사연구의 발전기를 맞이하였다. 그 담당자는 태동기의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 일본사 연구를 시작한 세대이다. 이들은 한국적인 배경을 가진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중반까지의 일본근현대사연구는 주로 정치학의 정치사 연구자들이 일본 근대 정치사를 정치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성과를 내놓았고, 동시에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까지 일본근현대사연구는 여전히 한일관계사에 치우쳐 있었다.

1994년 9월 일본역사연구회의 발족과 연구자의 양적 증가로, 일본사연구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근현대사의 한일관계 연구도 대폭 증가하였지만, 일본근현대사 자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근현대사의 자체에서도 연구분야가 다양화되었다.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한국근대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식민지조선에 관한 연구성과가 일본근현대사의 회고와 전망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으로 일본근현대사 자체 연구가 관계 연구보다 양적으로 우위에 서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분야도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확장되었다. 한국의 일본에 의한 침략의 역사적 경험은 먼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주로 일본근대사 속의 조선 혹은 한일관계의 분야이다. 다음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근대 일본'의 국가형성과 그 전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일본 식민지경험으로 일본근현대사 연구는 먼저 식민지조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일본 제국사로 옮아갔고, 식민지조선에 관한 연구도 제국사의 일부로 확장되었다. 또한 한일간의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과거사문제를 비롯한 한일간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한국의 일본근현대사 연구영역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식민지 시기 한국사 연구와 「제국사」: 현황과 과제

마쓰다 도시히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기 연구에는 다른 양국간 관계사와 비교하여도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활발한 교류와 상호 경계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연구를 분리하여 논하기는 어렵지만 본 보고에서는 일본을 하나의 진원지로 삼아 차츰 넓어지는 흐름으로서 '제국사'를 들어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제국사'라는 말은 글로벌리즘의 진전과 '국민 국가' 비판을 배경으로 1980년대부터 역사학계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①복수의 식민지와 일본 본국 상황의 상호 연관을 횡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 ②정치사나 문화사의 영역을 중시하는 것, ③'일본인', '일본어', '일본 문화'의 형성과 수용 과정에 주목하는 시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일본 식민지를 '제국'이라는 틀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 곤란이 따른다. 하나는 식민지 제국 일본의 통치 구조가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횡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식민지 통치를 횡단적으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하는 것보다 원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보고는 먼저 제국 일본의 통치 구조를 개관한다. 식민지 제국 일본의 통치 구조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동시에 내포한 시스템이었던 점, 그중 어느 것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가는 식민지 현지의 상황이나 본국의 정치 정세에 따라 좌우되었던 점, 그로 인하여 '제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 제국사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제국사'가 자기중심적인 역사 서술에 빠지는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즉 일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제국사'가 일본 일국의 역사의 동아시아 확대판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가 필요한지 부단히 성찰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한국사 입장에서 본다면 '제국사'에 의해 한국사가 회수되는 일 없이 동시에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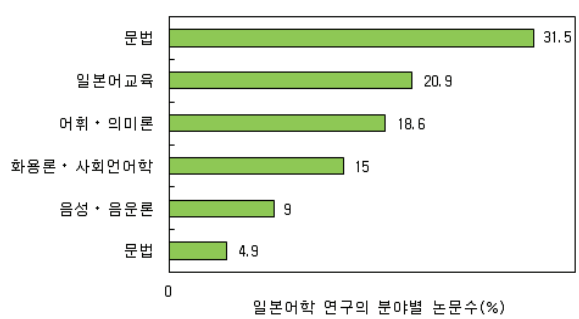
를 일국사적 틀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과제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국사'의 애로를 타개하는 시도의 하나로서 제국사와 지역사(지방사)의 접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일본어학 연구: 어용론·사회언어학 분야

이 길 용 (중앙대)

1. 들어가며

한국일본어학회에서는 2년마다 일본어학 각 분야의 현황과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2015.1.1.–2016.12.31.) 한국연구재단 18개 학술지의 탑재(후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표본수 812편)을 대상으로 일본어학의 연구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문법이 256편(31.5%)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일본어 교육 170편(20.9%), 어휘론·의미론 151편(18.6%), 어용론·사회언어학 122편(15.0%), 음성학·음운론 73편(9.0%), 일본어사 40편(4.9%) 순이다. 즉 문법, 일본어 교육, 어휘 등 상위 3개 분야의 논문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한국의 일본어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는 이 세 분야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홍민표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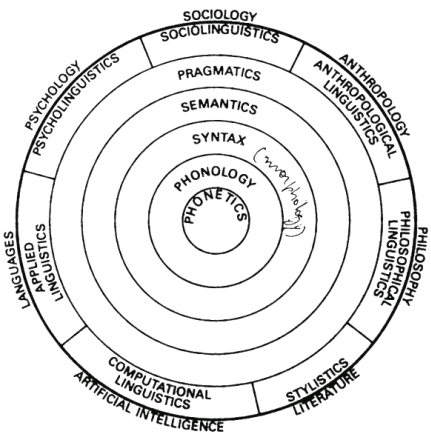


2. 어용론·사회언어학이란

본 발표에서는 어용론 연구·사회언어학 연구로 한정하여 전망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어용론적인 의미, 사회언어적인 의미, 담화 정보와 관련된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시야에 들어온다. 어용론과 사회언어학은 언어학 영역을 나타내는 다음 그림의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어용론적 능력과 사회언어 능력이라는 두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일견하는 것만으로 어느 쪽이 남성의 발화인지, 어느 쪽이 선배인지, 그리고 B는 A의 발화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A: もう12時だね。遅くなったから送ってやるよ。
B: いや、暗いから一人で帰ります。



<The Scope of Linguistics>

어용론과 사회언어학 두 분야는 서로 관련된 화제를 다루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호칭(address term)이나 경어, 스피치 레벨 선택을 비롯한 공손 표현, 발화 행위와 같은 문제는 쌍방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제2언어(또는 외국어)로서 일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 즉 학습자 언어에 초점을 맞추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내용은 한 언어 공동체 속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언어 지식의 총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임에 틀림없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회언어 능력과 어용론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3. 2015-16년의 어용론 연구·사회언어학 연구의 현황

본고에서는 어용론·사회언어학 분야에서 2015-16년도에 한국에서 발표된 122편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몇 편의 공저를 포함한 73명의 저자 중 성명(이름)으로 판단할 때 42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이며 논문 수는 95편에 이른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연구자는 19명 정도이며(논문 수는 15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가 9명 정도이다(논문 수는 9편).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의한 연구는 井上史雄(2015) 등 불과 3편뿐으로 매우 적으며 그중 1편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중국인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이다(金庚芬·関崎博紀·趙海城2016).

<표1> 키워드 분포

실제 수	대표 항목
30	담화
20	한국어
19	일본어
17	대조
15	한일, 발화
14	커뮤니케이션
13	일상 대화
11	언어 행동, 발화 행위(의뢰・거절・사죄・권유)
9	기능, 경어
7	첫 대면, 접촉 장면, 전략
6	정중 표현, 친소 관계, 제2언어, 습득, 지역 방언, 호칭, 종조사
5	ノダ, 문말 표현, 화제, 연쇄 구조, 사회언어학, 성차, 여성, 상관, 평가

이렇게 전체의 약 82%의 논문이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것이며 이 점은 '대조연구'라는 연

구 형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언어 행동)을 부각시키는데 한국인과의 대조를 시도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 시점은 일본인과는 다른 규범을 갖는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그 운용을 어떻게 익히는가 하는 쪽으로 확장된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122편의 논문에서 664개의 키워드를 추려 내어 유사한 것들을 상위 범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할 수 있다. 표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 담화 분석'이라는, 한국에서의 어용론 연구·사회언어학 연구의 특징이 부각된다. 그리고 (1)한일 커뮤니케이션(일상 대화)에서의 기능, (2)첫 대면 시 접촉 장면에서의 발화 행위 전략, (3)제2언어 습득, 등의 분야에서의 키워드가 눈에 띈다. 구체적인 언어 항목으로는 호칭이나 경어, ノダ형식, 종조사 등의 문말 표현, 대화의 화제 도입이나 연쇄 구조 등이 있다. 또한 공손 표현 이론에 의거하여 친소 관계 측면이나 성별차, 지역차를 고려하여 항목간의 상관과 평가에 대하여 분석·고찰하는 방법론이 보인다.

4. 연구 분야로서 사회언어학의 위치

이상을 통하여 한국의 어용론 연구·사회언어학 연구의 세 가지 주류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한일 커뮤니케이션(일상 대화)에서의 기능
(ⅱ) 첫 대면 시 접촉 장면에서의 발화 행위 전략
(ⅲ) 제2언어 습득

여기에서 사회언어학 연구 분야를 Hymes의 방식을 따라 정리해 본다(황적륜(2010)을 참조). Hymes(1974)는 사회언어학의 3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social as well as linguistic phenomena (사회 현상은 언어 현상)
(2) socially realistic linguistics (사회적으로 실사(實寫)하는 언어학)
(3) socially constituted linguistics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학)

(1)의 영역은 말(ことば)을 통하여 사회를 알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며 '언어사회학

(sociology of language)'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Joshua Fishman, Uriel Weinreich 등에 의해 주도되어 언어 저액, 2언어 병용, 언어 교체, 언어 습득 등을 주된 테마로 하는 언어 접촉학파(the language contact stand)이다.

(2)는 Perer Trudgill나 William Labov로 대표되는 영역으로, 사회언어학이야말로 언어학이라는 자세를 취한다(그러한 의미에서 '순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proper)'이라고도 한다). Labov식 사회언어학(Labovian type of sociolinguistics)이라고도 불리는 이 분야의 주된 연구 테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언어 변이(language variation)와 변화(change)이다. 어떤 커뮤니티의 언어 형식의 변화를 파악하여 그 변화가 어떻게 커뮤니티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사상과 역학에 상관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떻게 생성되는지 등을 추구하며 말의 사회적 변이 현상을 통시적 변화(diachronic change)의 공시적 반영(synchronic reflex)으로 나타낸다.

(3)은 '말의 민족지(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라 불리는 영역이며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차이를 탐구한다. 말의 민족지라는 틀에서는 '언어'는 언어 구조보다도 언어 사용을 가리키며 또한 문화는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과 같은 인지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사회와 말의 상관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학제적인 연구 분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어용론 연구·사회언어학 연구의 세 가지 주류 분야는, Hymes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영역 (3)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연구 사례 : 말의 사용법의 변화

여기에서는 최근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언어학 연구를 하나 소개한다. 가제는 '한국은 민주주의국가가 되었다. 말도 변화하였다. −1987년과 30년 후 2017년의 경어의 변화−'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7년 당시의 한국은 군인이 통치하는 나라였다(군사 독재 정권기).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관이 중시되어 권위적인 상하 관계가 사회를 지배하였다. 윗사람에게는 엄격하게 경어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었고 반대로 아랫사람에게는 보통체로 대우해야 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발전기에 접어들어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도 개최하였다. 당시 청자 경어의 사용 양상은 荻野외(1990)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어떠한 인물을 정중하게 대우하는가'에 주목하여 결과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한국에서는 가족 내에서도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정중히 대우한다.
(b) 한국에서는 연령차를 보다 중시하며 사회 관계의 차는 작다.
(c) 한국에서는 친소 관계의 영향이 적고 연령차로 결정되는 정도가 많다.

그 후 1992년 군사 독재 정권의 끝과 민주화 진행, 1997년의 IMF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며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차츰 옅어지고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하였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IMF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약육강식의 초경쟁사회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말의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987년의 荻野외(1990)의 조사와 동일한 것을 2017년에 실시하였다. 30년 후의 청자 경어에 대해서 주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 가족 내에서도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정중히 대우한다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모에게는 약체정중형(略體丁寧形, −합니다)(40%)보다 약체보통형(略體普通形, −해)(60%)이 많아졌다.
(e) 연령차를 보다 중시하며 사회 관계의 차는 작은 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다고 할 수 있다. 30년 전과 거의 같은 결과이다.
(f) 친소 관계의 영향이 적고 연령차로 결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조금 변화의 징조가 보인다. 즉 첫 대면 시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하칭(下稱, −해라)'이 남아 있으며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이나 4−5세 아이에게도 '약대정중형(略待丁寧形, −해요)'을 사용하는 사람이 20%정도 있다.

한국의 청자 경어의 변화는 (a)가족 내에서 시작되어 (b)약체보통형의 확대와 상칭과 하칭의 감소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c)약체정중형이 사회적 존중이라는 판별의 표식이 된 것을 엿볼 수 있다.

6. 나가며

2003−2004년, 필자가 박사 논문을 집필했던 무렵에는 스피치 레벨(대우 레벨) 시프트 연구가, 정중체가 기본인 담화에서 비정중체로 변하는 다운 시프트를 중심으로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에서 활발히 행해졌으며 거기에 친구끼리의 대화에서의 업 시프트를 파

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한 연구의 바람이 멎었다.

지금은 제3절에서 소개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수의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언어 행동의 한일 대조 연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아직 부족하다'는 生越直樹(2012)의 지적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정한 언어 행동 관찰이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한편 어째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요인 분석형 연구가 적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黃迪倫(2010)「사회언어학의 기원과 성립」『사회언어학』18-2, 한국사회언어학회, pp.1-27.

荻野綱男(1989)「対照社会言語学と日本語教育-日韓の敬語用法の対照研究を例にして-」『日本語教育』69, 日本語教育学会, pp.47-63.

荻野綱男・金東俊・梅田博之・羅聖淑・盧顕松(1990) 「日本語と韓国語の聞き手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朝鮮学報』136輯, 朝鮮学会, pp.1-51

生越直樹(2012) 「言語行動の日韓対照研究ーその成果と問題点」野間秀樹編『韓国語教育論講座(第2巻)』くろしお出版(「언어 행동에 관한 한일 대조 연구ー그 성과와 문제점」오고시 나오키・이현희(2015)『일본의 한국어학』에 재게)

홍민표(2017)「巻頭言」『日本語學研究』第51輯, 韓国日本語学会, pp.5-8

Hymes, D.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J. B., & Holmes, J.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Baltimore, USA: Penguin Education, Penguin Books Ltd. pp.269-293(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에도 시대 조일 왕복 한글 문서의 분포

기시다 후미타카 (오사카대)

1. 머리말

에도 시대, 조일간 외교 현장에서의 정보 전달은 다수가 조선어로 이루어졌다고 추측되지만 그때 실제로 어떠한 조선어를 주고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근래 자료 공개의 기운이 비등하면서 서서히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조일 왕복 한글 문서로서 학계에 알려진 것은 이전에 오사 마사노리(長正統)가 소개한 8통의 왜학 역관의 한글 서간이 전부였지만 근래 새로이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의 종가 문서의 조일 왕복 한글 서간류 100여 통이 발견되었다. 발표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밖의 조일 왕복 한글 문서가 전해지는 상황 일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하는 발표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에도부터 메이지 초년에 걸친 조일 왕복 한글 문서 일람을 제시하고 그 분포에 대한 일고찰을 서술한 것이다.

2. 에도 시대 조일 왕복 한글 문서 일람[1)]

[01] 「朝鮮人拾壱人慶良間島漂着馬艦船を以唐え送越候日記」所収書付1通：東京大学法学部法制史資料室所蔵琉球評定所記録[1770]、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p.31, 게라마 제도(慶良間島)에 표착한 조선인이 1723년 12월 1일에 보낸 문서를 수록.

[02] 「韓牘集要」所収書簡63通：京都大学文学部所蔵、사쓰마(薩摩)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전래 조선어학서의 하나, 1732년경 성립.

[03] 「東館修理記録」所収書付2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799], 1750년 3월 20일부로 감동관(監董官)의 군성 최학령(君聲 崔鶴齡)이 보낸 한글 문서 2통을 수록.

[04] 多田主計「裁判記録」巻5所収書付4通：日本国会図書館所蔵[WA1-6-14]、国史編纂委員会

1) 단 이하 한글 문서는 생략한다.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対馬歴史民俗資料館) 편(2015)에 수록된 총 112통의 사료의 한글 문서 및 거기에 언급된 기록류 등 수록 관련 한글 문서 ; 부산 시민 도서관 고문헌실의 근대 한일 외교 자료 중 한글 문서 ; 大浦家鍵屋역사관 소장 한글 문서.

所蔵[記録類1974], 1751년 윤5월 22일에 훈도 현첨지, 별차 황판관이 보낸 문서, 1753년 4월 28일에 훈도 박동지, 별차 박판관이 보낸 문서, 같은 해 5월에 상역(都中)이 보낸 문서를 수록.

[05] 「分類紀事大綱」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33], 1753년 6월 7일에 상역(都中) 일동이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 상기 [03]에 수록된 4통째의 문서와 동일.

[06] 吉村橘左衛門「裁判記録」巻5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879], 1760년 4월 17일에 훈도 최첨정(최수인(대래)), 별차 이첨정(이명화(성흠))이 재판(요시무라 다치바나자에몬(吉村橘左衛門))에게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편(2015)의 참고1, 참고2에 해당.

[07] 「朝鮮人十人国頭間切安田村え漂着に付送届候日記」所収書付1通:東京大学法学部法制史資料室所蔵琉球評定所記録[800]、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p.158, 구니가미(国頭) 마기리(間切) 아다무라(安田村)에 표착한 전라도 강진 출신의 조선인이 1794년 2월 2일에 보낸 문서를 수록. 단 그 한글은 전와가 심하여 해독 불가.

[08] 「朝鮮於和館御用ノ向応対始終之覚書」所収書簡1通: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目録巻2, 記録類2, 朝鮮関係Q56], 1796년 7월 26일에 박치검(경화)가 보낸 서간을 수록.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편(2015)의 사료10에 이어지는 것. 압인이 있는 점으로 보아 서간 원본으로 보인다.

[09] 「朝鮮関係覚書綴」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149], 1804년 12월에 훈도 양원현판관, 별차 경천 현주부가 보낸 문서를 수록.

[10] 文化「信使記録」所収書付1通:慶應義塾所蔵[93−1−58、慶応冊子番号26、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慶應本第50リール], 1807년 10월에 훈도 경천 현동지, 별차 명원 최판관이 히사미쓰 이치지로(久光市次郎)에게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

[11] 文化「信使記録」所収書付1通:慶應義所蔵[93−2−40、慶応冊子番号4、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慶應本第56リール], 1807년 10월에 훈도 경천 현동지, 별차 명원 최판관이 히사미쓰 이치지로에게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 상기 [10]에 수록된 것과 동일.

[12] 文化「信使記録」所収書付1通:慶應義所蔵[93−2−40、慶応冊子番号17、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慶應本第59リール], 1807년 10월에 훈도 경천 현동지, 별차 명원 최판관이 히사미쓰 이치지로에게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 상기 [10]에 수록된 것과 동일.

[13] 「分類紀事大綱」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89], 1832년 11월에 대통관(대통사) 스미나가 게이스케(住永恵介)가 구 훈도 유청 박지사에게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

[14] 櫛田駿編「朝鮮聞見録」所収書簡1通:福岡市博物館・福岡県立図書館所蔵, 1833년 11월 15일에 최내유, 정자건이 조선어 통사인 쓰요시 젠에몬(津吉善右衛門)에게 보낸 서간 1통을 수록.

[15] 「両訳より差出候書面写し并に和解」所収書付2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6169], 1836년 11월 15일에 훈도 성오 이동지, 별차 자술 현첨지가 보낸 문서, 훈도에게서 온 편지 사본을 수록.

[16] 「分類紀事大綱」所収書付2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85], 1836년 11월 15일에 훈도 성오 이동지, 별차 자술 현첨지가 보낸 문서, 훈도에게서 온 편지 사본을 수록. 상기 [15]에 수록된

것과 동일.

[17]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7431], 1837년 9월에 구 훈도 중원 박첨지, 별차 백수 최주부가 보낸 문서.

[18]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6483], 신유년(1861?) 12월 19일에 자의 정천총, 치백 정파총이 보낸 서간.

[19]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1702], 신유년(1861?) 12월 5일에 훈도가 보낸 서간의 별록.

[20]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7060], 1864년 3월에 선주 장백운이 보낸 한글 상서.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고문서8648]이 본 한글 상서의 일본어 해석이다.

[21]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5804], 계해년(1863?) 7월 4일에 선주 채진보, 선원 고운경이 보낸 문서.

[22] 「莱府返答の趣任訳より印書にて差出候写」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984], 1866년 2월에 훈도 학일 이주부, 별차 경문 이주부가 1대관 모리미치(藤守道)에게 보낸 문서를 수록. 표지에는 후세에 써 넣은 「文化三年丙寅」라는 기재가 있으며 ゆまに書房의 조선통신사 기록 마이크로필름에도 분카(文化)통사기록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오류. 1806년(분카 3)이 아니라 1866년이 올바르다.

[23] 「示談書」所収書簡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6464], 1870년 7월 5일에 간전관이 훈도에게 보낸 서간을 수록.

[24] 渡辺小右衛門「年限裁判記録」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972], 1871년 1월 18일에 별차 경오 현주부가 준 문서를 수록.

[25] 「申含」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815], 1871년 4월 15일에 훈도가 보낸 한글 서간 1통을 수록.

3. 그 분포에 관한 고찰

조일 왕복 한글 문서는 에도 초기에는 발견되지 않다가 18세기 초중엽 이후에 출현한다. 그중 왜학 역관들이 발급한 한글 문서가 그러한 시기적 분포를 보이는 배경에는 단지 조선 국내의 한글 사용 지역 확대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조일 교섭을 담당하는 조선의 왜학 역관과 일본의 조선어 통사의 언어 능력·문서 능력의 추이라는 요인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일간 교통의 현장에서 주고받는 문서에는 한문, 조선어리독문(朝鮮語吏読文), 조선어 한글문, 일문이 있었다. 조선의 왜학 역관은 이중에서 한문, 조선어리독문, 조선어 한글문 능력은 모든 근세시기를 통틀어 갖추고 있었다. 특히 한문 능력은 전혀 뒤떨어진 적이 없었

는데 왜학 역관이 일본 측에 발급하는 문서는 근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한문이었다. 하지만 왜학 역관의 일문 능력에 대해서는 18세기 중엽 이후는 서서히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17세기에서 18세기 초까지는 충분한 일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조선 사역원에서 간행한「첩해신어(捷解新語)」권10에는 일본어 서간문의 예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쓰시마종가문서 [고문서278]이나 [고문서11055] 등, 왜학 역관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문 서간 실물도 몇 가지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18세기 중엽 이후는 왜학 역관의 일본어 능력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쓰시마 종가문서 [고문서5030]은 중신(年寄)들이 오노 로쿠로에몬(小野六郎右衛門)에게 보낸 메모인데 18세기 중엽에 활약한 현태익(중거) 등 3명의 왜학 역관들의 일본어 능력이 통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왜관 관수를 네 번 맡았으며 조선통신사 역지행빙(易地行聘)의 강정사(講定使)도 역임한 도다 다노모(戸田頼母)의「췌언시집(贅言試集)」에는 일본 측의 근번(勤番) 통사와 조선 측의 왜학 역관과의 대화를 본뜬 문답 예로, 그 당시 왜학 역관의 일본어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하여 왜학 역관은 18세기 중엽 이후 서서히 일본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측 조선어 통사들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에도 초기부터 중기에 걸친 일본 측의 조선어 통사들은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글을 몰랐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한학생원임용장(韓学生員任用帳)」은 1720년 당시 한글을 아는 자는 3명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조선 측에 문서를 보낼 때는 예조나 동래부사 앞이 아니라 설령 왜학 역관의 훈도 앞으로 보내더라도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겐로쿠(元禄) 9년(1696) 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측되는「倭館記録･信使并訳官聘問之次第(가제)」(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藏)에는 일본 측의 왜관 관수가 조선 측의 훈도에게 보내는 한문으로 된 서간의 문례가 담겨 있다. 왜학 역관의 훈도에게까지 한문으로 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하지만 한문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은 일본 측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다. 물론 일본 측에도 도코지(東向寺)의 승려나 진문역(真文役), 아메노모리 호슈 등의 유학자 같이 한문 능력을 갖춘 자들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조선 측과 접하는 통사나 대관들은 한문이 능숙하지 않았다.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의 1대관 吉野五良七「동래접대기(東萊接待記)」에는 겐로쿠 15년(1702) 5월 2일 접대 상황에서 동래부사가 한문 문서를 1대관에게 보여주자 1대관은 자신은 문맹이라서 읽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는 사

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 개혁에 의해 쓰시마의 조선어 통사가 한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뒤로는 조일간 외교의 실무 레벨의 문서 왕복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일본의 조선어 통사에게 있어서 매우 편리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문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문서가 곁들여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으며 한문의 내용을 일본 측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본 발표에서는 에도에서 메이지 초기에 걸친 조일 왕복 한글 문서 일람을 제시하며 그 분포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들 조일 왕복 한글 문서는 송신자, 수신자 모두 남성이며 외교의 공적인 내용이라는 점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동 시기 조선 국내의 한글 서간류와 차이가 있다. 종래 조선 국내에서 한글이 공적인 문서에 사용된 것은 1882년 갑오개혁 이후의 일로 여겨져 왔지만, 상술한 조일 왕복 한글 문서는 18세기 중엽 무렵부터 이미 공문서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일간 교통이라는 특이한 공간에서 생겨난 현상이며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조선 사역원의 왜학 역관들의 일본어 능력 상실과, 일본 측 조선어 통사들의 한글 능력 획득과 한문 능력 결여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沖縄県史料(前近代5)漂着関係記録』沖縄県教育委員会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対馬宗家文書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 長崎県教育委員会

메이지기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

진 남 택 (오카야마대)

1. 들어가기

메이지 시대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對馬島의 朝鮮通詞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全一道人 交隣須知 隣語大方 등의 한국어 학습서가 사용되어 왔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많은 한국어 학습서가 새로 간행되었는데 특히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 시기에는 한국어의 필요성이 커져 한국어 학습서가 집중적으로 간행된다. 메이지기의 한국어 학습서는 군사, 상업, 무역 등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것이 많으며 메이지 후기로 가면 한국어 문법서도 간행되기 시작한다. 또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뿐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습서도 1890년대부터 간행되는데 자료로서의 성격이 비슷하므로 이 발표에서는 메이지기의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습서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를 구별없이 한국어 학습서라고 부르기로 한다.

메이지기의 한국어 학습서는 내용상으로 무역 및 상업, 외교, 군사, 치안, 철도 및 토지, 조선에의 이주 등의 실용적인 특성이 강하며, 당시의 국내외 정세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회화가 중시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서는 당시 한국어의 생생한 회화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개화기의 한국어 구어를 보여준다는 점, 어휘사의 측면에서 특히 일본어 어휘의 영향 등 개화기의 새로운 어휘의 정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역문은 외국 자료로서 한국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개화기의 한국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특히 1890년대부터 20년 사이에 70종이 넘는 한국어 학습서가 간행된 점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화기 한국어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메이지기 한국어 학습서의 한국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및 방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 저자가 습득한 한국어의 특징 및 교열에 참가한 한국인의 방언적인 배경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서 사이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며, 서지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영인본이 아니라 실물

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1)]

이 발표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새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2)]의 목록과 각각의 습서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제시하고 한국어 학습서를 한국어 언어 자료 및 일본어 언어 자료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개관하고 日韓會話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서의 영향 관계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현황

메이지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서는 小倉進平(1940)와 桜井義之(1974a, 1974b)에 소개되어 있으며, 다음의 박사 논문 및 저서에서도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서지적인 소개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朴基永(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硏究 : 日本에서 刊行된 韓國語 學習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齊藤明美(2006),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成玑妸(2009),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朝鮮語會話書—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その日本語—, 東京大学博士論文

石塚令子(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 명사 어휘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李康民(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역락

黃雲(2016), 韓国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 麗澤大学博士論文

다음의 표는 메이지기 한국어 학습서를 간행 연대 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학습서를 분석한

---

1) 그런 점에서 植田晃次의 일련의 논문에서 제시된 人物史主義는 일본인 저자의 한국어 학습력을 알고자 하는 좋은 시도이며, 原物主義는 서지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역문의 내용이나 음운, 문법 등의 분석에는 영인본의 사용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메이지기 이전부터 사용되던 交隣須知와 隣語大方은 1880년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개정판이 간행되는데 交隣須知와 隣語大方만을 분석한 논문은 따로 정리하기로 하며 交隣須知와 메이지 시대에 새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와의 영향 관계를 다룬 논문은 이 발표에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881年刊 交隣須知(明治14年本) 巻一, 二, 三, 四 浦瀬裕校正増補
1882年刊 訂正隣語大方 浦瀬裕校正増補
1883年刊 交隣須知(明治16年本) 巻一, 二, 三, 四 浦瀬裕校正増補
1883年刊 交隣須知(宝迫本) 巻一, 二, 三, 四 宝迫繁勝刪正
1904年刊 校訂交隣須知(明治37年本) 1巻 前間恭作・藤波義貫公訂

연구논문을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논문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서지학적인 연구 및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한국어 및 일본어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며, 문법이나 음운 등 어떤 주제에 대해 한국어 학습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따로 제시하기로 한다.

	刊行年月	書名	著者	관련 연구논문
(1)	1880/11	韓語入門	宝迫繁勝	李康民(2004) 齊藤明美(2009)
(2)	1880/11	日韓善隣通語	宝迫繁勝	李康民(2004) 齊藤明美(2005b) 成玧妵(2015b)
(3)	1882/08	和韓會話獨學	武田甚太郎	
(4)	1891/05	日語工夫	中野許多郎	黃雲(2016)
(5)	1892/06	日韓英三国対話	赤峰瀬一郎	李康民(2005a) 齊藤明美(2006b) 陳南澤(2010)
(6)	1893/10	日韓通話	国分国夫 国分象太郎校	李康民(2003) 成玧妵(2007) 齊藤明美(2005a) 서경숙(2018)
(7)	1894/06	朝鮮医語類集	鈴木裕三	
(8)	1894/07	朝鮮俗語早學		
(9)	1894/07	實用朝鮮語　正編	中島謙吉	
(10)	1894/07	兵要朝鮮語	近衛歩兵第1旅団編	
(11)	1894/08	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		
(12)	1894/08	日韓會話	參謀本部	李康民(2006b) 朴基永(2009) 陳南澤(2014) 成玧妵(2018)
(13)	1894/08	新撰朝鮮會話	洪奭鉉	李康民(2017a)
(14)	1894/09	日淸韓三國會話	坂井釰五郎	李康民(2005b)
(15)	1894/09	日淸韓三國對照會話篇	松本仁吉	李康民(2014)
(16)	1894/09	旅行必用日韓淸對話自在	鳳林館 太刀川吉次郎	李康民(2013a)
(17)	1894/11	朝鮮通語獨案內	池田勘四郎	
(18)	1894/12	日韓淸會話　獨習速成	吉野佐之助	李康民(2014)
(19)	1894/12	朝鮮語學獨案內	松岡馨	李康民(2010) 陳南澤(2013) 齊藤明美(2014)
(20)	1894/12	日淸韓往復文	堀中東洲	
(21)	1895/05	日語捷径	金澤末吉	黃雲(2016)
(22)	1895/06	日本語獨案內	稲益謙吉	陳南澤(2015) 黃雲(2016)
(23)	1895/06	単語連語日話朝雋	境益太郎, 李鳳雲	黃雲(2016)
(24)	1896/04	實地應用朝鮮語獨學書	弓場重栄,内藤健 編	李康民(2008) 齊藤明美(2013) 陳南澤(2016)
(25)	1897/12	簡易捷径日語獨學	弓場重栄	李康民(2011) 齊藤明美(2015) 黃雲(2016)
(26)	1901/11	朝鮮語獨習	松岡馨	
(27)	1902/05	實用韓語學	島井浩	李康民(2007a) 齊藤明美(2015a)
(28)	1903/04	日韓通話捷径	田村謙吾	陳南澤(2012) 成玧妵(2014b) 李康民(2016)
(29)	1904/01	韓語會話	村上三男	李康民(2005c) 齊藤明美(2006c) 朴基永(2013)

(30)	1904/02	日露清韓會話自在法	武智英	
(31)	1904/02	出征必携日露清韓會話	山本富太郎	
(32)	1904/04	滿韓土語案內 : 袖珍實用	平山治久	
(33)	1904/04	實地應用日韓會話獨習	勝本永次著, 李有鎔閱	
(34)	1904/04	一週間速成韓語獨り卒業	阿部正尹編, 金道義校正	
(35)	1904/05	日露清韓會話自在	通文書院 編	
(36)	1904/05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	小須賀一郎	
(37)	1904/05	日韓會話獨習	山本治三	
(38)	1904/06	朝鮮語案內 : いろは引	林山松吉	
(39)	1904/06	朝鮮移住案內	山本庫太郎	
(40)	1904/06	韓国農事案內: 附韓語會話	青柳綱太郎	
(41)	1904/08	最新日韓會話案內	嵩山堂編輯局	
(42)	1904/10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	金島苔水, 李鎭豊	
(43)	1904/10	韓語獨習通信誌　第1編	大韓起業調查局通信部	
(44)	1905/01	韓語教科書	金島苔水, 廣野韓山	陳南澤(2017)
(45)	1905/03	日韓新會話	金島苔水, 廣野韓山	
(46)	1905/04	東語初階 : 韓訳重刊	伊沢修二 閲	李康民(2009)
(47)	1905/05	實用日韓會話獨學	島井浩	成玧妵(2015a) 齊藤明美(2016)
(48)	1905/06	日清韓會話	劉泰昌閲, 吳完與閲	
(49)	1905/07	日韓會話捷径	金島苔水, 廣野韓山	
(50)	1905/08	獨學韓語大成	伊藤伊吉	조강희(2010) 植田晃次(2012) 朴基永(2016)
(51)	1905/09	獨修自在日語捷径	金島苔水, 廣野韓山	黃雲(2016)
(52)	1905/11	日韓清英露五国単語會話篇	堀井友太郎	
(53)	1906/02	日韓韓日新會話	島井浩	成玧妵(2008a)
(54)	1906/04	日韓言語合璧	金島苔水	
(55)	1906/06	韓語正規	近藤信一	
(56)	1906/07	韓語	安泳中	
(57)	1906/11	六十日間卒業日韓會話獨修	柳淇英, 高木常次郎	
(58)	1907/01	朝鮮語獨稽古	川辺紫石	
(59)	1907/05	日韓いろは辞典	柿原治郎, 朴容観	
(60)	1907/09	獨習日語正則	鄭雲復	片茂鎭 외(2005) 한원미(2014),
(61)	1908/06	日語會話	島井浩	成玧妵(2014a) 黃雲(2016)
(62)	1909	文法註釈韓語研究法	薬師寺知曨	윤영민(2015c)
(63)	1909/02	韓日英新會話	鄭雲復, 鮮于叡	李康民(2013b)
(64)	1909/05	韓語通	前間恭作	齊藤明美(2006a) 鄭世桓(2010) 윤영민(2016b)
(65)	1909/06	韓語文典	高橋亨	윤영민(2016a)
(66)	1910/06	日韓會話	秦兵逸	
(67)	1910/06	韓語五十日間獨習	島井浩	
(68)	1910/07	韓語學大全	津田房吉	
(69)	1910/08	新案韓語栞	笹山章	
(70)	1910/12	日韓韓日言語集	趙義淵, 井田勤衛	李康民(2007)
(71)	1912/05	局員須知 日鮮會話		李康民(2017)

다음은 한국어 학습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거나 한국어의 음운, 문법 등을 여러 한국어 학습서를 통해 고찰한 논문이다.

한중선(1994)	1893년부터 1910년까지의 일본어 학습서 14종	자료적 의의와 내용상의 특징, 한국어 학습서와의 관련성을 고찰
李康民(2005d)	交隣須{知 物名 韓語訓蒙 漂民對話 對談秘密手鑑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語 日韓通話	19세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한국어 학습서를 소개하고 그 변화 과정을 고찰
李康民(2006b)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語 日韓英三国対話 日韓通話 日韓會話 韓語會話	개화기의 대표적인 한국어 학습서 6종의 제작 배경과 언어자료로서의 성격을 고찰
이미향(2007)	日韓通話, 韓語教程, 新案韓語菜	세 자료를 분석하여 소개하고 초기 한국어 교재로서 특성을 고찰
박기영, 채숙희(2007)	1890-1945 사이의 30종의 한국어 학습서	한국어 학습서를 개관
片茂鎭(2009)	全一道人, 交隣須{知, 日韓善隣通語	明治 이전과 이후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한국어에 대한 가나 전사 표기의 특징과 표기법의 변화상을 고찰
고경민(2011)	韓語文典 韓語研究法 韓語通 實用韓語學	1900년대에 간행된 7종의 한국어 학습서(서양인이 간행한 3종의 학습서 포함)의 문법범주 기술에 대한 양상과 특징을 고찰
김정숙(2012)	實用韓語學을 포함한 9종의 한국어 학습서	각 학습서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을 고찰
최영철, 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경향을 기술
吉本一(2014)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에서 출판된 국어교과서와 한국어 학습서의 영인본을 다각도로 분석
윤영민(2015a,)	韓語入門(1880) 實用韓語學(1902) 韓語正規(1906) 韓語通(1909) 韓語文典(1909)	문법 항목과 기술상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
윤영민(2015b)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話 實用韓語學 單語連語日話朝雋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과 그 체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고찰
주현희,김희섭(2016),		1880년부터 1940년대까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한국어의 음운 현상 기술을 고찰
주현희,채영희(2016)		1880년대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의 변천 과정을 망라하여 고찰

다음은 일본어 자료 및 다국어 자료로서의 한국어 학습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齊藤明美(2007)	메이지기 한국어 학습서의 회화문에 사용되는「です」에 대해 조사
成玧妵(2008b)	메이지 전기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을 제시하고 개요와 특징, 형식가 내용 등을 분석하여 근대일본어자료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찰
成玧妵(2009)	일청전쟁 시기의 한국어 학습서의 특징 및 일본어에 대해 고찰
成玧妵(2010a)	메이지 후기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 및 그 특징을 제시하고 일본어의 성격을 고찰
成玧妵(2010b)	메이지 전기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정도 부사(특히 大層와 大変)에 대해 고찰
成玧妵(2015c)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발행된 다국어회화서를 제시하고 출판목적 및 내용에 대해 규명하고, 회화서의 구성, 어휘 및 회화 용례문의 특징을 고찰
李康民(2015)	개화기 일본에서 간행된 13종의 다언어 학습서의 자료적 가치를 소개하고 그 자료성을 검증

3. 한국어 학습서에 대해서

3.1.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한글 및 가나 음주 표기의 보수성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한글 표기 및 가나 음주 표기는 메이지 이전부터 존재하던 한국어 학습서의 전통에 따라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음성, 음운론적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중모음「ㅖ ㅐ ·ㅣ」의 가나 음주 표기는 여러 한국어 학습서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日韓英三國對話(1892)의「英語竝ニ韓語発音考」에는 다음의 기술이 나온다.

> 第五 假名ヲ附ルニハ成ル可ク正規ヲ用ヒタリ假令バ비비히ノ如キ字ガ一寸聞テ聞ユル如ク「メー」「ペー」「ヘー」トセズシテ「マイ」「パイ」「ハイ」トシテ固ク正規ヲ守リテ變訛シタル音聲ニ泥マヌ事ニ定メタリ

위의 설명에서「正規」의 의미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실제의 발음에서는「·ㅣ」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최소한「規範」으로는 아직 이중모음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ㅖ」의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며 예문의 가나 음주 표기에도 일본어의「エ段」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시기에도 이미 단모음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중모음이「正規」라는 의식도 남아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ㅐ」는 거의 예외 없이「ア段＋イ」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日韓英三國對話(1892)보다 후대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에서도 「ㅖ ㅒ ·ㅣ」의 가나 음주에 전이음 「ィ」가 나타나는 경우(즉 이중모음으로 전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3.2. 한국어 학습서 간의 영향 관계 – 日韓會話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문 배열의 비교 등을 통해 交隣須知가 다른 한국어 학습서에 미친 영향을 주로 논하였는데 학습서 사이의 영향 관계는 예문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日韓會話(1894.08)는 당시의 다른 학습서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旅行必用日韓清對話自在(1894年9月21日印刷 太刀川吉次郎 編輯)는 한글이 없이 가나로 한국어를 표기했는데 대부분의 예문이 日韓會話(1894年8月3日印刷)의 예문과 같다. 출판 시기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日韓會話를 직접 참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를 저본으로 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셔울ᄒᆞ고 촌은 풍쇽이 다르오? 각 도가 다 달나요	(日會-61)(旅必-23)
현판 글시가 뉘 글시요? 대원군의 글시요	(日會-111)(旅必-28)(日獨-55)
인쳔셔 셔울 가는 길은 ᄒᆞ나 뿐이요?	(日會-214)(旅必-29)(朝獨-174)

② 朝鮮語學獨案內(1894.12 松岡馨)는 日韓會話(1894.08)와 같은 예문도 많으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예문도 보인다. 그리고 「나일(ᄂᆡ일)」「삼게(삼개)」처럼 틀린 표기도 두 자료에 모두 나타난다. 이는 공통의 저본이 있거나 이 자료가 日韓會話를 참고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나일 (> ᄂᆡ일) 오뎡에 써난다오	(日會-21)(朝獨-130)
ᄂᆡ일 오뎡에 써난다오	(日獨-23)
ᄒᆞ나는 별이게를 넘어 삼게로	(日會-214)(朝獨-175)

③ 日本語獨案內(1985.06 稻益謙吉)도 부문 배열의 구성이 日韓會話(1894.08)와 유사하고 많은 예문이 같다. 심지어 「열ᄀᆡ(열개) ᄯᅳᆯ(뜸)」처럼 잘못된 한글 표기도 두 자료에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어 단어와 표현에서는 다른 부분도 보이며 한국어 표현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고 오자를 고치는 등 저자의 역활도 볼 수 있다.

둘결 살 거시니 열ᄀᆡ(>열개)만 가져 오ᄂᆞ라	(日會-243)(日獨-12)
쏠(>쏨)	(日會-90)(日獨-45)

④ 韓語教科書(1905 金島苔水)에도 日韓會話의 예문이 많이 나타나며 저자 金島苔水가 日韓會話를 참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져 길이 갓가오나 ᄆᆡ오 험ᄒᆞ오	(日會-224)(韓教-125)
화륜션 구경 못ᄒᆞ겟소?	(日會-162)(韓教-144)
져길ᄒᆞ고 이길은 어네거시 갓갑소?	(日會-223)
져길ᄒᆞ고 이길은 어네거시 갓잡소?	(韓教-128)
얼마나 갓갑소? ᄒᆞᆫ 십니나 갓갑지요	(日會-224)
얼마나 갓잡소? ᄒᆞᆫ 십니나 갓잡지요	(韓教-52)
뉵군은 어네 나라히 만소?	(日會-59)
뉵군은 어네 가라이(>나라이) 만소?	(韓教-56)

3.3.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한글 자모의 분류

① 子音과 母音으로 분류한 한국어 학습서[3)]

韓語入門(1880) 日韓通話(1893) 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1894) 日清韓三国対照會話篇(1894)
朝鮮語學獨案內(1894) 日韓會話(1894) 實地應用朝鮮語獨學書日韓通話(1900) 朝鮮語獨習(1901)
日韓通話捷径(1903) 日韓會話獨習(1904)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1904) 六十日間卒業日韓會話獨修(1906)
韓語正規(1906) 朝鮮語獨稽古(1907) 韓語學大全(1910)

① 父音 母音 子音으로 분류한 한국어 학습서[4)]

實用韓語學(1902) 韓語會話(1904) 韓語獨習通信誌 第1編(1904) 最新日韓會話案內(1904)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1904) 韓語教科書(1905) 實用日韓會話獨學(1905) 對譯日韓會話捷径(1905)
對譯日韓新會話(1905) 日韓言語合璧(1906) 韓語(1906) 日韓韓日新會話(1906)

3) 韓語入門(1880) 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1894) 日清韓三国対照會話篇(1894)에는 子音과 母音의 분류가 반대로 나타난다.

4) 金島苔水著의 對譯日韓會話捷径(1905)와 對譯日韓新會話-附文法註解(1905) 日韓言語合璧(1906)에는 父音과 母音의 분류가 반대로 나타난다.

4. 나오는 말

이 발표에서는 메이지기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을 개관하고 한국어 학습서의 영향 관계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한국어 학습서의 한일 대역문은 그 자체로 양언어의 문법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일본인 저자의 한국어 학습력을 포함한 각각의 한국어 학습서의 한국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의 한국 국내 문헌 및 서양인에 의한 한국어 학습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화기 한국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한글에 대한 가나 음주 표기는 보수적인 성격도 강하나 당시 한국어의 음성, 음운적인 특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근대 문명어 등 새로운 어휘의 사용 양태는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구축된 한국어 말뭉치 자료와 함께 검토하면 한국어 어휘사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각각의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한일 대역문을 코퍼스화하면 음운, 어휘, 문법, 방언, 외래어표기법 등의 사적 연구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닐 것이며 에도 시대의 조선자료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 학습서 관련 논문 목록〉

1. 한국에서 간행된 논문

고경민(2011), 근대 계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권2호 pp.25-35

김정숙(2012),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이중언어학 Vol.49 pp.87-109

朴基永(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硏究 : 日本에서 刊行된 韓國語 學習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박사 학위논문

_____(2009),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日韓會話』에 대한 일고찰 : 그 성립 과정과 한국어 교재로서의 구성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Vol.1 pp.35-56

_____(2013), 개화기 한국어 회화서 〈韓語會話〉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63호 pp.103-132

_____(2016), 개화기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 〈獨學 韓語大成 全〉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학습서로서의 특징과 한국어 자료의 성격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No.64 pp.121-154

박기영, 채숙희(2007), 일본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에 대한 고찰-1890~1945년에 간행된 교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34 pp.131-156

齊藤明美(2005a),『日韓通話』と『交隣須知』の對譯日本語について, 日本學報 Vol.63 pp.33-48

_____(2006b),『日韓善隣通語』の硏究, 日本語學硏究 Vol.14 pp.95-115

_____(2006),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6a), 1909년 간(刊)『한어통(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 12권 pp.173-196

_____(2006b),『日韓英三国対話』の日本語と韓国語 -明治16年本『交隣須知』との関係を中心に-, 日本學報 Vol.68 pp.81-98

_____(2006c), 明治37年刊『韓語會話』の言語について, 일본학연구 Vol.19 pp.353-371

_____(2007), 明治期の韓国語学習書にみられる日本語の変化,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00-105

_____(2009),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硏究, J&C

_____(2013),『ポケット朝鮮語獨学』と『實地應用朝鮮語獨学書』について, 日本語文學 Vol.59 pp.153-172

_____(2014), 明治27年刊『朝鮮語学獨案内』の硏究, 日本語文學 Vol.63 pp.37-59

_____(2015), 弓場重栄の三つの学習書にみられる日本語について-『簡易捷径日語獨学』の日本語を中心に-, 日本語學硏究 第44輯 pp.75-81

_____(2015a), 明治35年刊『實用韓語学』の硏究, 日本語文學 Vol.65 pp.35-57

_____(2015b), 島井浩が作成した日本語の教科書について, 한국일본어학회 학술발표회 pp.171-176

_____(2016), 明治38年刊『實用日韓會話獨学』の硏究, 日本語文學 Vol.71 pp.1-23

_____(2017), 明治41年(1908)刊『日語會話』の硏究,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 No.1, pp.19-44

서경숙(2018), 근대 계몽기 한국어 학습서『日韓通話』에 대한 일고찰, 국제어문 Vol.76 pp.7-33
成玧妸(2010b), 明治期朝鮮語會話書における程度副詞の使用狀況と推移, 일본학연구 Vol.17 pp.61-76
_____(2012),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 :조선어회화서 붐의 실체, 아시아문화연구 Vol.25 pp.67-91
_____(2014a), 開化期の日本語學習書『獨學日語會話』に關する考察, 일본어교육연구 Vol.28 pp.65-84
_____(2014b), 개화기 경찰용 조선어 회화서『일한통화첩경』에 관한 고찰 -학습내용 및 일본어 표현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Vol.90 No.1, pp.99-120
_____(2015a), 근대 일본인의 조선어회화 학습서『實用日韓會話獨学』에 대한 고찰, 日本語文學 Vol.65 pp.59-78
_____(2015b), 근대 조선어회화 학습서『일한선린통어』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Vol.55 pp.139-161
_____(2015c), 러일전쟁에 사용된 다국어회화서에 관한 고찰, 日本學報 Vol.105 pp.303-319
_____(2018), 근대 한어회화 학습서의 어학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Vol.66 pp.161-181
吉本一(2014), 19世紀末~20世紀半ばの韓國國語教科書 および朝鮮語學習書, 일본학 Vol.39 pp.93-115
윤영민(2015a), 개화기 일본인이 간행한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 항목 연구, 배달말 Vol.57 pp.1-33
_____(2015b),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 - 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3집, pp.171-201
_____(2015c), 藥師寺知龍외『文法註釋韓語研究法』, 한민족문화연구 Vol.50 pp.207-237
_____(2016a), 개화기 일본인의 한국어 연구 -高橋亨 저『韓語文典』의 문법 사항을 중심으로, 泮矯語文研究 Vol.44 pp.59-82
_____(2016b), 개화기 일본인 간행 한국어 문법서에 대한 일고찰:『한어통(韓語通)』의 품사 설정과 문법 항목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42 pp.371-392
李康民(2003), 1893年刊『日韓通話』의 日本語, 日本語文學 Vol.17 pp.145-165
_____(2004),『韓語入門』과『善隣通語』, 日本語文學 Vol.23 pp.68-88
_____(2005a), 1892年刊『日韓英三國對話』에 대하여, 日本学報 Vol.63 pp.105-116
_____(2005b), 1894年刊『日淸韓三國會話』의 日本語, 비교일본학 Vol.15 pp.131-148
_____(2005c), 1904年刊『韓語會話』에 대하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221-225
_____(2005d), 19세기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pp.265-271
_____(2006a), 開化期 日本의 韓國語 學習書 -言語資料로서의 性格과 成長性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Vol.67 pp.65-80
_____(2006b), 메이지(明治)期 參謀本部의 韓國語 學習書 - 1894年刊『日韓會話』와 관련하여, 일본어문학 Vol.31 pp.211-232
_____(2007a), 島井浩와『實用韓語學』日本學報 Vol.71 pp.79-91
_____(2007b), 1910年刊『日韓言語集』의 日本語와 韓國語,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11-115
_____(2008), 1896년年刊『實地應用 朝鮮語獨学書)』에 대하여, 日本語文学 Vol39 pp.87-106
_____(2009),『東語初階』의 研究, 日本學報, Vol.78 pp.59-71
_____(2010), 1894年刊『朝鮮語學獨案內』에 대하여, 日本學報 Vol.82 pp.69-79

_____(2011), 春園李光洙의 일본어학습서『日語獨學』에 대하여, 日本學報 Vol.86 pp.89-98
_____(2013a), 言語資料로서의『日韓清対話自在』, 日本學報 Vol.94 pp.41-52
_____(2013b), 1909年刊『韓日英新會話』에 대하여, 비교일본학 Vol.29 pp.367-379
_____(2014),『日淸韓三國對照會話』와『日韓淸會話』日本學報 Vol.98 pp.65-74
_____(2015), 개화기 다언어(多言語) 학습서와 근대 한일 양국어, 日本學報 Vol.104 pp.51-72
_____(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역락
_____(2016), 1903年刊『日韓通話捷径 』에 대하여, 비교일본학 Vol.36 pp.307-318
_____(2017a),『新撰朝鮮會話』의 日本語와 韓國語, 日本語文學 Vol.75 pp.51-67
_____(2017b), 1912年刊『局員須知 日鮮會話』와 近代 日本語, 비교일본학 Vol.41 pp.349-362
이미향(2007), 일본어 화자를 위한 개화기 한국어 교재의 언어 교수 고찰 -『日韓通話)』,『韓語教裎』,『新案韓語栞』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권 1호 pp.337-363
石塚令子(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명사 어휘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鄭世桓(2010), 朝鮮語學習書 韓語通の言語學的一考察 -動詞についての記述を中心に-, 일본근대학연구 Vol.27 pp.29-61
정승혜(2011), 오구라문고 소장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일고찰 - 금고기관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3, pp.43-72
조강희(2010),「獨學 韓語大成」におけるハングルのカタカナ音注表記について, 日本語教育 Vol.54 pp.39~50.
주현희,김희섭(2016), 근대 시기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음운현상 기술에 대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351-560
주현희,채영희(2016), 근대 이후 간행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의 변천과정과 문법 내용 연구, 우리말연구 Vol.45 pp.77-118
최영철,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 개항 이후 학제 도입부터 통감시대까지 - 어문논집 Vol.57 pp.453-477
片茂鎭(2009),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仮名) 표기에 관한 고찰 - 명치 이전 한국어학습서류와의 비교를 통하여, 日本文化學報 Vol.43 pp.83-104
片茂鎭 외(2005), 獨習日語正則 : 解題·索引·研究·原文. 불이문화
한원미(2014), 鄭雲復의『獨習 日語正則』의 대역문 연구, 日本研究 Vol.22 pp.439~467
한중선(1994), 開化期 日本語 學習書 小考, 일어일문학연구 Vol.25, pp.139-168.
_____(2017), 韓國 開化期 日本語 學習書『日話獨習』에 관한 考察, 日本研究 Vol.74 pp.593-612
허재영(2011), 독학한어대성(獨學韓語大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교육 자료 1, 역락

2. 일본에서 간행된 논문

植田晃次(2011), 薬師寺知曨－別府地獄めぐりと朝鮮語をつなぐ人, 言語文化研究 Vol.37 pp.1−19

_____(2012), 明治期朝鮮語学習書･伊藤伊吉『獨学韓語大成 全』の書誌学的研究, 日本語言文化研究 第二輯(下)pp.204‐213

_____(2013), 伊藤伊吉の経歴と著書－日本近代朝鮮語教育史の視点から－, 言語文化研究 Vol.39, pp.11−29

_____(2014), 金島苔水とその著書―日本近代朝鮮語教育史の視点からみた商業出版物としての朝鮮語学習書―, 日本语言文化研究 第三輯(上)pp.63‐72

植田晃次･石川遼子･山田寛人･三ツ井崇(2007),『日本近現代朝鮮語教育史』,

小倉進平(1940), 増訂朝鮮語学史, 刀江書院

桜井義之(1974a),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一), 韓 Vol.3 No.7

_____(1974b),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二), 韓 Vol.3 No.8

陳南澤(2010),『日韓英三國對話』におけるハングル表記と仮名音註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6号

_____(2012),『日韓通話捷径』における仮名音註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8号

_____(2013),『朝鮮語学獨案内』における仮名音註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9号

_____(2014), 1894年刊『日韓會話』の韓国語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10号 pp.47−57

_____(2015), 1895年刊『日本語獨案内』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11号 pp.43−53

_____(2016), 1896年刊『實地應用朝鮮語獨学書』の韓国語について, 教育研究紀要 1号 pp.93−106

_____(2017), 1905年刊『韓語教科書』の韓国語について, 教育研究紀要 2号 pp.65−76

成玧妵(2007),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日韓通話』, 日本語学論集 3 pp.125−142

_____(2008a),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日韓韓日新會話』, 日本語学論集 4 pp.37−57

_____(2008b), 日本語資料としての朝鮮語會話書〔明治前期〕, 日本語の研究 第4巻2号

_____(2009),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朝鮮語會話書―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その日本語―, 東京大学博士論文

_____(2009), 日清戦争に使用された朝鮮語會話書―その日本語の様相―, 日本語学論集 5 pp.87−101

黃雲(2016), 韓国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 麗澤大学博士論文

山田寛人(1998), 朝鮮語学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1880年～1945年, 朝鮮学報 Vol.169 pp.53−83

_____(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한국어문법연구의 과제

이카라시 고이치 (동경외대)

핵심어휘 : 대조연구, 어학교육, 활용, 어기(語基)

0

일본의 한국 연구 분야에서의 언어에 관련된 주된 학회, 연구회로는 언어, 문학, 사회, 역사 등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조선학회(朝鮮學會)[1]와 어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2], 어학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어교육학회(朝鮮語教育學會)[3]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학회, 연구회,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간행하는 등 일본에 있서어의 한국 연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대한국어문법연구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한국 연구를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조선학회를 대상으로, 조선학회 학회지 "조선학보(朝鮮學報)"(1 년에 4 번 간행)에 게재된 현대한국어문법에 관한 논문을 개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본다. 또한 한국어의 활용법에 대해 일본에서 흔히 논의되는 '어기(語基)'에 대해 본고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1

먼저 "조선학보" 제 1 집부터 최신호인 제 246 집(2018 년 5 월 현재) 중에서 현대한국어 문법(개설, 방언, 교육을 포함함)에 관한 것들을 찾아낸 결과, 145 편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논문의 게재호, 간행년, 제목, 저자에 대해서는 본고 끝쪽에 일람표를 붙였다. 앞으로 본고에 나오는 '(숫자)'는 일람표의 'NO.'의 숫자이다.

---

1) 1950년 10월～현재. http://www.tenri-u.ac.jp/soc/korea.html

2) 1983년 4월～현재. http://www.tufs.ac.jp/ts/society/tyosengo/

3) 1999년 3월에 조선어교육연구회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에 조선어교육학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름. http://jakle.sakura.ne.jp/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 연구의 특징으로는 한국어에 관하여 일본어화자가 주로 일본어로 연구 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어화자의 의견을 토대로 소설, 신문기사, 시나리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긴 기간 연구해 왔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의 틀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 생각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총 145 편 중에는 21 편의 논문 (25) (30) (36) (38) (44) (47) (53) (57) (72) (74) (95) (98) (102) (106) (112) (116) (125) (129) (137) (138) (140)과 한 편의 연구노트 (75)가 있었다. 이러한 대조연구 논문들은 1970 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구 내용의 범위를 넓혀 왔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어연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어연구회의 최근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4].

(1) 조선어연구회에 있어서의 구두 발표 주제의 예
「한국어 '는데'와 일본어 'ケド'의 대조 분석」(2017.5)
「'のだ'와 '-ㄴ것이다'의 대응관계와 그 전체상」(2017.9)
「일항(一項)명사문에서 본 '이다'와 'だ'의 의미 기능」(2017.12)
「개별적 사태를 나타내는 현대일본어 'と'와 현대한국어 '-자'의 대조 분석」(2018.2)

여기서 "조선학보"의 연구가 어떠한 것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것 (1) (2) (3) (12) (15) (19) (22) (29) (31) (49) (64) (107)이 1960 년대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1960 년대 중반부터는 조사(체언어미를 포함함)를 대상으로 하는 것 (4) (24) (26) (36) (40) (66) (71) (77) (113) (114) (119) (145)들이 보여진다. 한편, 어미(접속형을 포함함)를 대상으로 한 연구 (63) (68) (72) (78) (79) (86) (88) (90) (92) (94) (101) (113)[5] (123) (126) (136)은 느즈막히 1990 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접미사(선어말어미)에 대한 논문으로는 '-겠-' (20) (46) (124) (127) (133), '-었겠-' (82)가 있는데 이 '-겠-'은 일본어화자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미사인 만큼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문법적 형식을 다룬 논문으로는 '-어 놓다, -어 두다' '-다 보니까, -고 보니까, -어 보니까' '관형사형+것 같다' 등 (37) (73) (85) (130) (131) (142)가 있다. 이 논문들은 연구자 자신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느꼈던 용법과 의미에 대한 의문점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점에서

4) 조선어연구회HP(adress는 본고 각주 2) 참조)를 2018년 5월 25일(금)에 열람했음.
5) (113)의 「현대조선어의 '나마'에 대하여」(五十嵐孔一, 2007)에서는 조사로서의 '나마'와 어미로서의 '나마'를 논하고 있다.

볼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틀리기 쉬운 점 등이 연구 동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담화 분야의 연구 (95) (98) (111) (119) (129) (138) (140) (143)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시제(tense) (48) (54) (67), 상(aspect) (33) (55) (60) (67) (92) (105), 법(mood) (46) (51) (85), 태(voice) (38) (39) (69) (75) (108)은 종래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10 여년 동안은 눈에 띄는 논문이 없는 것 같다. 경어(높임말) (13) (14) (16) (23) (28) (34) (53) (57) 또한 같은 상황이다. 한편, 부정 (17) (67) (141), 문법사 (9) (41) (132) (139), 방언 (3) (10) (13) (14) (16) (28) (143)은 각각 20 년, 30 년, 40 년 이상을 지나서 논문이 또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상으로 "조선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한국어문법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문법연구의 특징으로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담화 연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전자는 어학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후자는 발화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연구이다. 말하자면 둘 다 한국어의 어학적 '용법'에 중점을 두고 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십년을 지나서 또다시 연구되는 것들도 있는가 하며 시제나 상, 법 등, 소위 언어학의 '문법'이 연구 주제로서 향후 다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용법과 문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다각적인 시점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2

마지막으로 형태론의 관점에서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에서는 활용을 설명할 때 '어기(語基)'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기란 용언의 어간이 변화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서 어간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활용법과 대립된다. 이 활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다.

[표 1]의 '잡다'의 활용표를 보자. 각각의 활용은 (a)는 어간이 변하지 않는 것이며, (b)는 어간이 세 가지로 변하는 것이다. (a)는 한국의 표준적 문법에 의한 활용법이고 (b)는 어기를 사용한 활용법이다. 어기에는 '잡-'과 같이 어간 그 자체(제Ⅰ어기), '잡으-'와 같이 '으'가 붙는 것(제Ⅱ어기), '잡아-'와 같이 '아/어'가 붙는 것(제Ⅲ어기)의 세 가지가 있다. 일본에서도 (a)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히려 (b)는 소수파이다[6].

6) 발표자의 소속 대학교에서는 (a)와 (b) 모두를 활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a)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나 사전들과 일본에서 출판된 "朝鮮語辞典"(1993), "新版　一冊目の韓国語"(2014/2016) 등을 사용할 때, (b)는 "コスモス

[표1] ‘잡다’의 활용표

	(a)	(b)
	어간-어미	어기-어미
잡고	잡-고	잡-고
잡으면	잡-으면	잡으-면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활용에 대한 논의는 어간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어간에 ‘으, 아/어’가 붙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용언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것이며 후자는 중세한국어의 활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후자 또한 일본어의 활용과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書く(kaku, 쓰다)’의 활용을 들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2] ‘書く(kaku, 쓰다)’의 활용표

	활용		
書かない(쓰지 않다)	かか ない	kak-a	nai
書きます(씁니다)	かき ます	kak-i	masu
書く(쓴다)	かく	kak-u	Ø
書けば(쓰면)	かけ ば	kak-e	ba
書こう(쓰자)	かこ う	kak-o	u

[표 1](b)의 한국어 ‘잡-’에 모음 ‘으, 아’가 결합되는 것과 [표 2]의 일본어 ‘kak-’에 모음 ‘a, i, u, e, o’가 결합되는 것이 활용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들 활용법의 문법적인 정통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견해를 얻기 위해 문법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들 활용법이 공존한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한 권의 교재나 한 편의 연구 논문 중에서 이 두 활용법을 동시에 인정하고 기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활용론에 대해서는 종래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한국어 연구와 교육에서 두 활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도의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한국어 활용을 설명한 적이 있다[7]. 웹 화면에 ‘語基式(어기식)’, ‘語幹式(어간식)’, ‘併記式(병기식)’이라

朝和辞典　第2版”(1988/1991), “朝鮮語の入門　改訂版”(1981/2007)을 사용할 때 각각의 활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는 표지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으)니까'의 접속 방법은 위 세 가지 표지를 각각 클릭함으로써 'Ⅱ-니까', '-(으)니까', 'Ⅱ-니까/-(으)니까'로 표시되게 한 것이다. 종이 매체에서는 어느 한 방식으로밖에 기술할 수 없지만 웹 상에서라면 각각의 방식으로 편하게 바꿀 수 있다. 이 두 활용법이 상호적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장소를 설정함으로써 앞으로의 활용론에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3

일본에서 한국어문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밖에 대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 대부분이다. 한국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터이지만 '연구는 연구, 교육은 교육'이라 하는 것처럼 서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 주제는 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앞으로는 동일한 연구자의 의식 안에서 연구와 교육이 서로 다가서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 2장에서 다룬 '어기'는 문법연구의 입장과 한국어교육의 입장 모든 시점에서 논한 예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간노(菅野裕臣)(저)/하마노우에(浜之上幸)·権容璟(개정)(1981/2007), "朝鮮語の入門 改訂版", 東京, 白水社.

간노(菅野裕臣)외(편)(1988/1991), "コスモス朝和辞典 第2版", 東京, 白水社.

유타니(油谷幸利)외(편)(1993), "朝鮮語辞典", 東京, 小学館.

이카라시(五十嵐孔一)(2014/2016), "新版 一冊目の韓国語", 東京, 東洋書店新社.

조선학회(朝鮮學會)(편)(2011), "朝鮮学報総目録 第1輯～第220輯", 天理, 朝鮮学会.

7) 동경외국어대학 언어모듈 조선어문법모듈http://www.coelang.tufs.ac.jp/mt/ko/gmod/

[표] "조선학보"에 게재된 현대한국어문법연구의 논문과 연구노트

NO.	호	간행년	제목	저자
(1)	23	1962	朝鮮에서의 漢字語彙에 対하여	洪起文
(2)	24	1962	同義語에 対한 一考察	青山秀夫
(3)	27	1963	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学的研究	梅田博之
(4)	35	1965	主格助詞가成立の過程	浜田敦
(5)	37/38	1966	数詞史考究	劉昌惇
(6)	37/38	1966	朝鮮語の観察	酒井改蔵
(7)	39/40	1966	朝鮮語の色彩形容詞に就いて	青山秀夫
(8)	45	1967	三つのJapanese-Korean Dictionary	青山秀夫
(9)	48	1968	周時経의 国語研究	金敏洙
(10)	48	1968	済州島方言における接尾辞「-아기、-아지、-장이、-아치、-바치」の考察	安田吉実
(11)	49	1968	現代朝鮮語形容詞の形成について	青山秀夫
(12)	49	1968	現代朝鮮語の辞典見出し語における語彙の分布状況	中村暎枝
(13)	51	1969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一)—京畿道驪州邑における実態調査報告—	青山秀夫
(14)	53	1969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二)—京畿道驪州邑における実態調査報告—	青山秀夫
(15)	55	1970	現代韓国語の服飾用語考	梁昊淵
(16)	57	1970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三)—京畿道驪州邑における実態調査報告—	青山秀夫
(17)	58	1971	韓国語의 否定	申昌淳
(18)	59	1971	現代朝鮮語用言들다の意味・用法について	中川清
(19)	65	1972	現代朝鮮語の擬声語	青山秀夫
(20)	65	1972	現代韓国語의 用言補助語幹「겠」의 意義와 用法	申昌淳
(21)	69	1973	朝鮮語と日本語	梅田博之
(22)	72	1974	朝鮮語の派生擬態語試考	青山秀夫
(23)	73	1974	現代朝鮮語の敬語に関する一考察	油谷幸利
(24)	76	1975	名詞の後につく「나」の文法機能	金吉鎔
(25)	77	1975	意味理論と朝鮮語の意味記述について—朝鮮語と日本語の意味論における対照言語学的考察—	玉城繁徳
(26)	78	1976	朝鮮語の対格助詞「를(을)」について—とくに、その文法機能および意義素を中心に—	奥田一広
(27)	79	1976	朝鮮語の特徴	青山秀夫
(28)	81	1976	大邱方言における「半敬語」について—朝鮮語方言調査報告(Ⅱ)—	大江孝男
(29)	83	1977	韓国語 語彙比較의 問題点	金芳漢
(30)	85	1977	日本語朝鮮語対照言語学の展望	北島静江
(31)	86	1978	韓国感覚語考	梁昊淵
(32)	86	1978	朝鮮語の味覚表現形容詞	前田綱紀
(33)	87	1978	現代韓国語의 動詞分類—aspect를 中心으로—	油谷幸利
(34)	89	1978	韓国現代敬語法の推移—最近の設問調査をもとにして—	徐正洙

(35)	89	1978	朝鮮語の俚諺の用法について―特定の資料による一考察―	青山秀夫
(36)	90	1979	日本語の副助詞と韓国語の特殊助詞との対照研究(Ⅱ)―その接続機能を中心に―	洪思満
(37)	91	1979	「-어 놓다」と「-어 두다」の意味分析	油谷幸利
(38)	91	1979	朝鮮語の受身と日本語の受身(その一)―「もちぬしの受身」を中心に―	李文子
(39)	94	1980	韓国語使役文誘導制約と意味	金錫得
(40)	96	1980	助辞'와'の問題―共同格助辞'와'の否定と並列助辞'와'の設定―	申昌淳
(41)	97	1980	19世紀における西洋人の韓国語研究	高永根 (油谷幸利訳)
(42)	98	1981	<研究ノート>マイクロコンピュータによる言語データの収集と整理―朝鮮語処理に対する試み―	油谷幸利
(43)	103	1982	マイクロコンピュータによる朝鮮語の入力と自動印字	油谷幸利
(44)	119/120	1986	数量詞の遊離について―日本語と朝鮮語の対照研究―	塚本秀樹
(45)	126	1988	二重主語構文再考	南基心 (鈴木陽二訳)
(46)	129	1988	<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野間秀樹
(47)	130	1989	한국어와 일본어의 재귀대명사 비교연구	鈴木陽二
(48)	131	1989	現代朝鮮語動詞の非過去テンス形式の用法について	伊藤英人
(49)	133	1989	朝鮮語の同形異語について	油谷幸利
(50)	133	1989	時間副詞의 時間表示機能에 대하여―「지금」과의 比較를 통한 時間副詞「이제」에 대한 研究―	徐尚揆
(51)	134	1990	<할것이다>の研究―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mood形式をめぐって―	野間秀樹
(52)	135	1990	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野間秀樹
(53)	136	1990	日本語と韓国語の聞き手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	梅田博之他
(54)	137	1990	現代朝鮮語動詞の過去テンス形式の用法について(1)―했다形について―	伊藤英人
(55)	138	1991	現代朝鮮語動詞のアスペクト的クラス	浜之上幸
(56)	140	1991	現代朝鮮語の程度副詞について―副詞の<程度>と<様態>の意味を中心に―	徐尚揆
(57)	141	1991	日本語と韓国語の第三者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	梅田博之他
(58)	142	1992	語学研修の方法について―朝鮮語教育の一環として―	大江孝男
(59)	142	1992	現代朝鮮語の「結果相」=状態パーフェクト―動作パーフェクトとの対比を中心に―	浜之上幸
(60)	144	1992	アスペクトとテクストの時間的構成について―時間的局所限定性・タクシス性の観点から―	浜之上幸
(61)	144	1992	「漢字語+시키다」について―再帰性・他動性・使役性・受動性との関わりをめぐって―	柴公也
(62)	148	1993	朝鮮語の用例検索について	油谷幸利
(63)	149	1993	現代朝鮮語의 接続形<-다가>에 対하여―aspect・taxis・用言分類―	野間秀樹
(64)	149	1993	현대 한국어의 시늉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풀이말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徐尚揆
(65)	150	1994	한국어 문법범주의 변화에 대한 연구	권제일
(66)	150	1994	現代朝鮮語の-에서格について	趙義成
(67)	150	1994	物語のテクストにおけるテンス・アスペクト・否定	浜之上幸
(68)	152	1994	現代朝鮮語の接続形Ⅲ-서について	権在淑

(69)	153	1994	韓国語における漢語動詞の受身文について	塚本秀樹他
(70)	153	1994	朝鮮語CAIの研究	油谷幸利
(71)	154	1995	韓国語 特殊助詞 研究의 한 反省	蔡琬
(72)	154	1995	条件形式「-어(야)」をめぐって―日本語との対照―	金恩希
(73)	155	1995	「-다 보니까」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	柴公也
(74)	157	1995	透明な言語・不透明な言語―韓日の婉曲表現と挨拶表現をめぐって―	李殷娥
(75)	158	1996	<研究ノート>日・韓両語における使役文―使役文を構成する要素の相関関係を手掛かりにして―	林憲燦
(76)	159	1996	現代韓国語'하오体語尾'の形態論的特徴	徐禎穆 (平木葉子訳)
(77)	160	1996	現代朝鮮語の-로格について―単語結合論の観点から―	陳満理子
(78)	161	1996	現代朝鮮語接続形-고について―その意味・用法をめぐって―	鄭鉉淑
(79)	162	1997	「原因・理由」を表わす接続形"-(아/어)서"と"-(으)니까"について―従属節の包含構造を中心にして―	五十嵐孔一
(80)	162	1997	現代朝鮮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動詞の語尾(아)+「내다」を中心に―	李暻洙
(81)	163	1997	현대한국어이 단어결합에 대하여	趙義成
(82)	165	1997	<했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時間の表現―	村田寛
(83)	165	1997	現代朝鮮語における合成用言について―<用言第Ⅲ語基+用言>の分析―	内山政春
(84)	166	1988	韓国語 統辞構造上의 表現論的 特徴(Ⅰ)	成光秀
(85)	168	1998	<連体形+것 같다>をめぐって―現代朝鮮語のムード形式の研究―	村田寛
(86)	169	1998	現代朝鮮語の用言接続形<-느라(고)>について―「タクシス」と「地と図」の観点から―	五十嵐孔一
(87)	173	1999	辞書検索の指導法について―文末形の場合―	油谷幸利
(88)	173	1999	現代朝鮮語の接続形-어서と-고について	内山政春
(89)	174	2000	尺度名詞 派生과 言語 普遍性의 한 側面	宋喆儀
(90)	175	2000	現代朝鮮語の<-ㄹ>連体形について	村田寛
(91)	176/177	2000	依存名詞만큼について	松尾勇
(92)	180	2001	Ⅰ-고, Ⅲ-서と動詞のアスペクト的特徴との関連性―アスペクト形式による用言分類を通して―	鄭玄淑
(93)	181	2001	接辞「-적(的)」について	松尾勇
(94)	183	2002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한」について	中島仁
(95)	183	2002	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	金珍娥
(96)	184	2002	만들다の格支配構造―人間が主語になる用例を中心に―	油谷幸利
(97)	185	2002	指示詞ユと저の現れ方と知識の共有度について	金善美
(98)	187	2003	"turn-takingシステム"から"turn-exchangingシステム"へ―韓国語と日本語における談話構造:初対面二者間の会話を中心に―	金珍娥
(99)	188	2003	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国語の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	金恩愛
(100)	189	2003	이다の省略と縮約―에요か예요か―	油谷幸利
(101)	190	2004	現代朝鮮語の接続形-다가について	内山政春

(102)	191	2004	韓国語と日本語のturnの展開から見たあいづち発話	金珍娥
(103)	195	2005	日本語を母語とする韓国語学習者の誤用分析―해서形と하고形を中心に―	孫禎慧
(104)	196	2005	現代朝鮮語の‘그나마’について	五十嵐孔一
(105)	197	2005	現代韓国語の「한다」形と「하고 있다」形について―文の種類と語彙という観点から―	張美仙
(106)	198	2006	接続形式における日朝対照研究―朝鮮語教育の観点から―	油谷幸利
(107)	198	2006	의미 빈도 사전과 어휘 연구	徐尚揆
(108)	198	2006	韓国語の自動受身文と他動受身文―<X-ka [Y-eykey] Z-ka 受身動詞>文と<X-ka [Y-eykey] Z-lul 受身動詞>文を中心に―	林田
(109)	199/200	2006	現代朝鮮語の丁寧化のマーカー“-yo/-iyo”について	野間秀樹
(110)	199/200	2006	만들다の格支配構造(2)―人間以外が主語になる用例を中心に―	油谷幸利
(111)	202	2007	談話状況を考慮した韓国語文法教育	白峰子 (松尾勇訳)
(112)	203	2007	単語結合論的観点から見た韓国語の「타다」と日本語の「乗る」―対照語彙論の構築のために―	安垠姫
(113)	204	2007	現代朝鮮語の‘나마’について	五十嵐孔一
(114)	205	2007	韓国語 助詞‘만’과 ‘도’의意味論	林東勲
(115)	206	2008	朝鮮語web辞典の設計について	油谷幸利
(116)	207	2008	現代韓国語と日本語における「이/この+X」の範疇解釈を導く名詞と述語について	金善美
(117)	208	2008	結合関係による‘아래’と‘밑’の意味研究	유현경他(岡裕美訳)
(118)	208	2008	韓国語の文末表現「것이다」のスコープ機能	丁仁京
(119)	210	2009	現代韓国語の談話における無助詞について―主語名詞句を中心に―	金智賢
(120)	211	2009	朝鮮語web辞典について―用例辞典から学習辞典へ―	油谷幸利
(121)	211	2009	意味グループをなす内外空間名詞「안, 속, 밖, 겉」の意味用法について	金恩愛
(122)	212	2009	現代朝鮮語研究の新たなる視座<言語はいかに在るか>という問いから―言語研究と言語教育のために―	野間秀樹
(123)	212	2009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と非修飾名詞の共起に関する研究―hanun(……する)連体形を中心に―	金民
(124)	212	2009	韓国語の先語末語尾‘-겠-’の対人的機能について―ポライトネス効果を中心に―	李憲卿
(125)	213	2009	日本語と韓国語の文末における緩衝表現	金珍娥
(126)	216	2010	韓国語の終結語尾‘-ㄴ걸’‘-ㄹ걸’の研究―話し手が言及する情報と統語形式との関連―	丁仁京
(127)	216	2010	現代韓国語の先語末語尾{-겠-}の文法的機能について	全恵子
(128)	217	2010	位置の名詞と属格	矢野謙一
(129)	217	2010	<非述語文>の現れ方とdiscourse syntax―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から―	金珍娥
(130)	222	2012	現代朝鮮語の“連体形+것같다”形について―<“-ㄴ가보다”形>との比較を中心に―	金美玹
(131)	224	2012	可能形式「할 수 있다/없다」の用法について―<ちからの可能>と<蓋然性の可能>―	高恩淑
(132)	224	2012	<研究ノート>『우리말본』の「씨갈」について(1)	五十嵐孔一
(133)	225	2012	推量を表す‘-겠-’のモダリティ機能―‘-(으)ㄹ 것이-’と交替できない用例を通して―	李憲卿
(134)	225	2012	現代韓国語の動詞分類―<-고 있->と<-어 있->の意味分析を基に―	金京愛

(135)	226	2013	廉想渉の言語意識―ハングル綴字法と漢字に対する認識を中心に―	金慶洙 (大川大輔訳)
(136)	231	2014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と非修飾名詞に関する研究―'han'(…した)連体形と高い頻度で現れる名詞―	金民
(137)	233	2014	現代韓国語の<있다>構文について―日本語の「ある/いる」構文との対照言語学的考察―	韓必南
(138)	235	2015	日本語と朝鮮語の談話における発話連鎖―「質問」と「応答」の連鎖を中心に―	髙木丈也
(139)	236	2015	<研究ノート>『우리말본』の「씨갈」について(2)	五十嵐孔一
(140)	238	2016	人は発話をいかに始めるか―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に照らして―	金珍娥
(141)	238	2016	韓国語における「아니, 아니다」の否定に関する研究	韓松花
(142)	239	2016	現代韓国語の接続形「-고 보니까」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다 보니까」、「-아 보니까」、「-고 나니까」との対照を通じて―	柴公也
(143)	241	2016	遼寧省地域朝鮮語における友人談話の発話形式―基層方言との関係という観点から―	髙木丈也
(144)	243	2017	韓国語の動詞먹다(mekta)の研究	高槿旭
(145)	246	2018	韓国語における助詞の結合形態「에를/엘」の用法と構成	小島大輝

한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과 전망

채 경 희 (배화여대)

1.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의 상황

국제교류기금(재팬 파운데이션)은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에 한번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 조사(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 공표된 최신의 【2015년도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기관 수와 교사 수는 증가하는 한편 교육 기관에서 배우고 있는 일본어 학습자의 총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국제교류기금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 조사(2009·2012·2015)' 결과의 연도별 비교표

	2009년도 조사 결과	**2012년도 조사 결과**	**2015년도 조사 결과**
기관 수	14,925기관	16,046기관	16,179기관
	2006년도 대비 1,286기관(9.4%) 증가	2009년도 대비 1,121기관(7.5%) 증가	2012년도 대비 133기관(0.8%) 증가
교사 수	49,803명	63,805명	64,108명
	2006년도 대비 5,482명(12.4%) 증가	2009년도 대비 13,975명(28.1%) 증가	2012년도 대비비 303명(0.5%) 증가
학습자 수	3,651,232명	3,985,669명	3,655,024명
	2006년도 대비 671,412명(22.5%) 증가	2009년도 대비 334,437명 (9.2%) 증가	2012년도 대비 330,645명(8.3%) 감소

* 2011년도 보고서(2009년도 조사분)·2013년도 보고서(2012년도 조사분)·2017년도 보고서(2015년도 조사분)에 의한 것임.
* 조사 대상: 2009년도 조사(133곳의 나라·지역)·2012년도 조사(136곳의 나라·지역)·2015년도 조사(137곳의 나라·지역)
* 세계 전체: 2006년도 기관 수(13,639기관)·교사 수(44,321명)·학습자 수(2,979,820명)

2. 한국의 일본어 교육 기관의 상황

<표2> 국제교류기금 '한국 일본어 교육 기관 조사(2009·2012·2015)' 결과의 연도별 비교표

	2009년도 조사 결과	2012년도 조사 결과	2015년도 조사 결과
기관 수	3,799기관	3,914기관	2,862기관
	2006년도 대비 220기관(6.1%) 증가	2009년도 대비 115기관(3.0%) 증가	2012년도 대비 1,052기관(26.9%) 감소
교사 수	6,577명	17,817명	14,855명
	2006년도 대비 855명(11.5%) 감소	2009년도 대비 11,240명(170.9%) 증가	2012년도 대비 2,962명(16.6%) 감소
학습자 수	964,014명	840,187명	556,237명
	2006년도 대비 53,057명(5.8%) 증가	2009년도 대비 123,827명(12.8%) 감소	2012년도 대비 283,950명(33.8%) 감소

* 2011년도 보고서(2009년도 조사분)·2013년도 보고서(2012년도 조사분)·2017년도 보고서(2015년도 조사분)에 의한 것임.
* 2006년도 조사분: 한국은 기관 수(3,579기관)·교사 수(7,432명)·학습자 수(910,957명)
* 2009년도 조사분: 한국은 기관 수(1위)·교사 수(2위)·학습자 수(1위)
* 2012년도 조사분: 한국은 기관 수(1위)·교사 수(1위)·학습자 수(3위)
* 2015년도 조사분: 한국은 기관 수(1위)·교사 수(2위)·학습자 수(3위)

<표3> 한국의 교육 단계열 일본어 교육 기관 수·교사 수·학습자 수(국제교류기금)

	조사년도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기타 교육 기관
교육 기관 수	2009	3(0.08%)	2,825(74.36%)	406(10.69%)	565(14.87%)
	2012	5(0.13%)	2,762(70.57%)	476(12.16%)	671(17.14%)
	2015				
교사 수	2009	3(0.05%)	3,900(59.30%)	1,501(22.82%)	1,173(17.83%)
	2012	5(0.03%)	3,724(20.90%)	1,858(10.43%)	12,230(68.64%)
	2015				
학습자 수	2009	557(0.06%)	871,200(90.37%)	59,401(6.16%)	32,856(3.41%)
	2012	1,793(0.21%)	694,036(82.61%)	57,778(6.88%)	86,580(10.31%)
	2015	1,160(0.21%)	451,893(81.24%)	51,963(9.34%)	51,221(9.21%)

*2015년도 교육 기관 수 및 교사 수의 교육 단계별 조사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중등 교육이나 기타 교육 기관의 감소폭이 큼.

2.1. 초등 교육의 일본어 교육 기관 상황

교육 단계별로 보면【2015년도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 조사' 결과】에서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고등 교육이나 중등 교육에서는 기관 수, 학습자 수는 감소 혹은 변동이 없는 상황

임을 알 수 있는데 비해 초등 교육에서는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 수, 교사 수, 학습자 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표4> 초등 교육의 해외 일본어 교육 기관 수·교사 수·학습자 수(국제교류기금)

	2009년도 조사 결과	2012년도 조사 결과	2015년도 조사 결과
기관 수	663기관	907기관 (2009년 대비 36.80% 증가)	1,124기관 (2009년 대비 23.93% 증가)
교사 수	932명	1,271명 (2009년 대비 36.37% 증가)	11,827명 (2012년 대비 930.53% 증가)
학습자 수	142,568명	169,881명 (2009년 대비 19.16% 증가)	211,195명 (2012년 대비 24.32% 증가)

한편 <표3> '한국의 교육 단계별 일본어 교육 기관 수·교사 수·학습자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초등 교육에서는 기관 수, 교사 수, 학습자 수 전체의 규모는 작지만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의 조기화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한 정부의 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2. 중등 교육의 일본어 교육 기관 상황

2.2.1. 중학교

중학교의 일본어 학습자에 관해서는 2009년도 421,631명(중등 교육에서 48,40%의 점유율)에서 2012년도 267,218명(중등 교육에서 38,50%의 점유율)으로 감소하였으며 기관 수도 2009년도 929기관(중등 교육에서 32.89%의 점유율)에서 2012년도 881기관(중등 교육에서 31.90%의 점유율)로 감소하였다. 즉 학습자 수가 154,413명·36.66%, 기관 수는 48기관·5.17% 감소하였으며 특히 학습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는 전국의 중학교의 14%에서 일본어 수업을 도입하고 있으며 중학생 전체의 7.3%를 전후하여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된다. 유감스럽게도 2015년도의 통계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2. 고등학교

2009년도 고등학교의 일본어 학습자는 449,569명(중등 교육에서 51.60%의 점유율)에서

2012년도 426,818명(중등 교육에서 61.50%의 점유율)로, 기관 수는 2009년도 1,896기관(중등 교육에서 67.11%의 점유율)에서 2012년도 1,881기관(중등 교육에서 68,10%의 점유율)로 감소하였으며 학습자 수가 22,751명·9.49%, 기관 수는 15기관·0.79%로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 수(%)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험실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독일어	3.9	2.9	2.7	2.9	3.4	2.9	2.8	2.2	1.9	1.89
프랑스어	4.3	3.5	3.2	3.6	4.0	3.3	2.8	2.3	1.9	1.82
스페인어	2.5	3.1	3.1	3.7	4.2	3.1	2.9	2.4	2.0	1.99
중국어	13.5	10.5	9.3	9.1	10.6	19.6	7.8	6.2	5.5	5.33
일본어	**27.5**	**21.2**	**18.6**	**17.0**	**17.2**	**13.1**	**11.2**	**9.1**	**8.3**	**8.59**
러시아어	1.9	2.7	3.0	4.2	5.7	2.9	1.8	1.5	1.4	1.44
아랍어	**29.4**	**42.3%**	**45.7%**	**45.8**	**41.1**	16.6	20.0	**51.6**	**69.0**	**71.42**
베트남어						**38**	**42.4**	18.4	5.5	3.10
한문	17.0	13.9	14.4	13.7	13.8	10.5	8.3	6.3	4.5	4.42
합계 인원 수(%)	99,693 17.8%	**120,817 18.9%**	107,377 16.1%	86,575 13.5%	90,277 13.5%	**79,533 12.2%**	84,044 13.1%	90,752 14.4%	94,358 15.6%	92.831 15.6%

* 시험 실시 연도는 시험이 실시된 해를 나타냄.(○○년 11월 실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 자료)

<표5>에 나타난 분포율은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수강 점유율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6> 연도별 고등학교 제2외국어/한문 학습자 수

연도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합계 인원 수
2008	학교 수	190	165	24	781	1214	7				
	학교 수	688	951	115	4,262	9,026	31				
	학교 수	21,004	19,973	3,885	121,822	296,457	781				463,922
2009	학교 수	159	157	19	826	1,266	5				
	학교 수	586	692	93	3,826	8,806	24				
	학교 수	19,008	19,959	3,510	130,218	306,534	835				480,064
2010	학교 수	119	126	20	688	1044	8				
	학교 수	438	620	83	3,457	7185	25				
	학교 수	12,579	15,058	2,390	104,950	237,205	755				372,937

2011	학교 수	128	144	29	911	1,322	8	3			
	학교 수	495	635	129	4,431	8,749	40	9			
	학교 수	14,206	18,624	1,987	144,149	292,899	800	93			472,758
2012	학교 수	56	102	21	661	887	3	1		567	
	학교 수	215	279	52	2,029	3,703	9	2		3,741	
	학교 수	6,524	7,865	1,514	61,820	121,114	257	12		131,383	330,489

* 2015년도 이후의 학교 수·학급 수·학생 수 통계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자료)

<표7>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수 증감

○년도 (시험 실시 연도)	수험자 수 (명)	전년도 대비 수험자 수(증감)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 수		
		명	%	명	전체 수험자 대비%	전년도 대비(명/%)
2012 (2011.11)	693,631명					
2013 (2012.11)	668,552명	25,109명 **감소**		90,277명	13.5%	
2014 (2013.11)	650,747명	17,775명 **감소**	2.7% **감소**	79,553명	12.2%	10,744人/11.9% **감소**
2015 (2014.11)	640,621명	10,126명 **감소**	1.6% **감소**	84,044명	13.1%	4,509人/5.7% **증가**
2016 (2015.11)	631,187명	9,437명 **감소**	1.5% **감소**	90,752명	14.4%	6,708人/8.0% **증가**
2017 (2016.11)	605,987명	25,199명 **감소**	4.0% **감소**	94,358명	15.6%	3,607人/4.0% **증가**
2018 (2017.11)	593,527명	12,460명 **감소**	2.1% **감소**	92,831명	15.6%	1,527人/1.6% **증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 자료(2013.9.7./2014.9.13./2015.9.12/2016.9.10/2017.9.11)

2.3. 고등 교육의 일본어 교육 기관 상황

<표8> 고등 교육의 대학교 일본어 관련 학과 수(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자료)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학교	100	101	105	105	104	101	105	109	112	112
전문대학	71	77	73	73	76	66	59	54	50	46

일본어 관련 학과의 총 재적 학생 수는 1999년 조사에서는 21,658명(대학교 12,315/전문대학 9,307)이었지만 2009년은 25,999명(대학교 19,177/전문대학 6,822), 2011년은 28,731명(대학교 21,544/전문대학 7,187)으로 1999년에 비해 2017년에는 약 34%나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9> 전문대학의 외국어 관련 학과 수·학생 수·입학 정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자료)

	전공	학과 수	재적 학생 수	입학 정원	지원자	입학자
2011 년도	일본어	73	7,187	2,380	18,541	2,614
	중국어	57	4,601	1,610	15,491	1,715
	영어	82	7,952	2,503	25,705	2,945
	유럽·기타	8	718	143	496	306
2012 년도	일본어	76	6,464	1,867	13,386	1,943
	중국어	53	4,507	1,425	12,747	1,572
	영어	82	7,366	2,183	21,526	2,617
	유럽·기타	11	935	306	908	289
2017 년도	일본어	46	3,511	897	9,195	990
	중국어	40	3,642	1,064	9,422	1,161
	영어	62	4,047	1,027	10,911	1,163
	유럽·기타	8	236	33	157	40

* 전반적으로 외국어 관련 학과 수·학생 수·입학 정원 등이 대폭 감소하였음.

<표10> 대학교의 외국어 관련 학과 수·학생 수·입학 정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자료)

	전공	학과 수	재적 학생 수	입학 정원	지원자	입학자
2011 년도	일본어	89	21,544	3,026	31,247	3,321
	중국어	113	26,020	3,984	44,815	4,367
	영어	208	52,441	7,096	88,337	7,810
	유럽·기타	187	34,955	5698	68,835	6,109
2016 년도	일본어	112	17,043	2,239	17,300	2,436
	중국어	149	25,418	3,214	28,727	3,484
	영어	225	46,496	6,292	57,095	6,924
	유럽·기타	217	32,543	4,712	45,604	5,110
2017 년도	일본어	112	15,530	1,889	15,781	2,063
	중국어	151	23,470	2,721	24,771	3,080
	영어	226	42,787	5,296	46,535	5,883
	유럽·기타	233	31,531	4,304	43,515	4,848

* 전반적으로 외국어 관련 학과 수는 증가하였지만 학생 수·입학 정원 등이 감소하였음.

▸대학원 : 2017년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설치된 일본어 관련 연구 학과 수는 34/재적 학생 수는 323명이며 박사과정 학과 수는 23/재적 학생 수는 102명이다.

2.4. 기타 교육 기관의 일본어 교육 기관 상황

2011.3.11.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어 학습열이 급속히 식었다. 2012년도 일본어 관련 학과의 입학률이나 대학교의 일본어 전공자 수, 교양 과목 이수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민간 어학 학교(학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일본어 과목 강좌가 폐강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표11>'민간 학원의 일본어 수강생 연도별 증감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최대 규모 일본어학교의 수강생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의 총 수강생 수를 100%라고 하면 2011년 총 수강생 수는 84.47%, 2012년은 68.18%에 그치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도 3.11을 경계로 하여 일본어 교육 수요가 급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도는 104.00%로 2010년 기준점까지의 회복을 보인 뒤 2016년도 143.69%, 2017년도 121.79%, 2018년도 111.65%로 일본어 학습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경향으로 일본의 대학 수험을 목표로 하는 EJU 수강생이 급증한 것도 그 특징 중 하나이다. 2015년도를 기준점으로 한 EJU 수강생의 전년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도 163.03%, 2017년도 152.10%, 2018년도 152.65%이지만 이것은 민간 학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표11> 민간 학원의 일본어 수강생 연도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강생 전년 대비 증감률	100% 기준	84.47%	68.18%	93.17%	90.06%	104.00%	143.69%	121.79%	111.65% *1/4분기

* 1년 4분기 : 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3. 나오며

한국은 2006-2010년에 실시된 '영어 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 대책'을 비롯하여 공교육제도의 변천 속에서 영어 교육의 조기화가 강화되어 왔다. 한국의 일본어 학습자 수 및 일본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정한 교육 과정/정책
・대학 입시에서의 제2외국어 과목/일본어 취급
・동일본 대지진・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일본의 경제 상황, 한일 정치 외교 관계 악화 등
・저출산 현상 배경

현재 한국어·중국어 모어화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것
: 인지언어학에 입각하여

모리야 미치요 (소카대)

1. 들어가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글로벌화를 주장하게 된 지 오래이다. 이 배경에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각 성청(省庁)에 의해 2020년을 목표로 한 '유학생 30만 명 계획'(2008) 아래 각 대학도 글로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도 유학생·외국인 채용의 제약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유학생이 일본 기업으로의 취직을 희망하게 되었다. 기업은 그들에 대하여 즉전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보다 뛰어난 일본어 능력과 이문화 대응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어 교육 분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급 일본어 능력이란 일본어능력검정시험 N1 합격이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N1 수준의 일본어 능력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미 기업들 사이의 상식이 되었다. 유학생은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를 적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인턴십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채용 시험에서는 일본인의 대학교 4학년에 상당하는 일본어 능력을 문제 삼으며, 취직 후에는 이문화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겨우 취직한 외국인이 이문화 마찰을 원인으로 이직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와중에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일본어 교육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확실히 국내의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는 직장에서의 이문화 마찰을 상정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힌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일본어 교재가 속속 개발·간행되고 있지만 특정 언어의 화자를 상정한 이문화 마찰 사례를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적용시키며 응용을 도모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상에 입각하여 일본어 화자와 한국어·중국어 화자가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마찰의 요인과 그 회피를 위한 바람직한 일본어 교육 방법을 인지언어학의 입

장에서 고찰한다.

2. 인지언어학의 사태 파악 : 사태의 주관적 파악 VS 객관적 파악

인지언어학은 언어 형식과 의미의 대응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언어 활동을 통괄하는 모어 화자의 존재에 주목한다. 화자가 언어화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언어 화자에 의해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한다. 일본어 교육에 응용할 때에도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언어의 모어 화자 사이에 인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다. 학습자는 일본어에서는 ①1인칭인 '나'를 그다지 쓰지 않는다, ②종조사가 자주 쓰인다, ③경어를 필요로 한다, ④수수동사가 많이 쓰인다, ⑤자동사 표현을 선호한다, 등의 점을 의문으로 여기는 일이 있는데 이들 모두 인지언어학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다. 즉 일본어 화자는 언어화하는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를 객체화·추상화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신을 대명사화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사태의 주관적 파악) 그렇게 주관적으로 파악한 채로 언어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①). 마찬가지로 청자도 주관의 연장으로 보아 언어화하지 않고 주관의 공유를 지향하면서 협동적으로 대화를 구성한다. 이 주관적 파악 경향에 따라 사태에 등장한 채로 사태를 표출적으로 언어화한다는 점에서 발화는 내언(內言)적·독화(獨話)적인 것이 된다. 그 결과 발화가 청자 중심인지 내면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종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②). 객관적 사태 파악 경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영어나 중국어 화자의 경우 화자도 청자도 추상화되고 언어화되어 그것에 입각하여 대등한 대화가 구성된다. 이러한 차이의 결과로 일본어 화자는 '나'를 반복하는 학습자의 발화에 대하여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느끼기 쉬우며 반대로 객관적 파악이 높은 언어 화자는 일본어 화자의 발화가 애매하여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다. 종조사 중에서도 필요도가 높아지는 것은 'ね'인데 이것은 공동 주관성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공동 주관성 성립 여부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인지 방식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선생님 배에서 소리가 났을 때, 학생이 친밀함을 담아 '선생님은 배가 고프시군요, 나중에 같이 밥 먹어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일본인 선생님에게 있어 사적 영역을 넘은 무례한 발화가 된다. 이것들을 포함하여 일본어 화자의 사회적 인지 경향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성을 언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경의나 겸손, 정중한 표현, 친소 관계나 남성어·여성어 등 사회적 인지를 나타내는 형식을 세세하게 구별하여 사용한다(③).

주관적 파악 경향이 강한 일본어 화자는 화자가 자신을 추상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화자 자신이 사태에 대한 관여—주로 감정•심리적 변화—의 언어화에 관심이 향하기 때문에 화자와 관계되는 사태는 수익 표현이나 수동 표현, '오다(来る)'와 같은 추향(趨向)적인 동사 등을 수반하여 언어화되어 그 다수가 문법화되어 있다(④). 이 점에서 일본어 화자는 화자 중심적 경향이 강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언어 화자들은 수신자 우선적인 표현보다도 대상화된 행위자가 그 의지로 행위를 실현하는 표현을 선호한다. 그 때문에 「いろいろお世話をな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와 같이 교사가 신세를 졌다는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그 행위에 대해 경어를 사용하여 감사의 뜻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결과 수익 표현을 빠뜨리기 쉽다. 이러한 오용은 일본어 화자에게는 수익 표현과 그에 동반되는 은혜 의식이 결여된 문장으로 보여서 무례한 발화라고 느끼기 쉽다. 이렇듯 일본어 화자는 사태를 받아들이는 인지자로 자신을 파악하고 그에 입각한 표현을 선호한 결과,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행위를 실현하는 표현보다도 사태의 추세에 따라 행위가 실현되고 그 결과가 화자에게 남는, 그러한 표현에 가치를 찾아내는 경향을 갖는다. 이것은 「ナル」를 비롯한 자동사에 의한 자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⑤). 그 전형적인 예로 「このたび結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것은 객관적 파악 경향이 있는 화자에게는 기묘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일본어 화자에게는 「このたび結婚することにしました」라고 하면 화자 자신을 둘러싼 사태의 흐름을 거스르며 결혼을 실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중국어 화자는 위의 객관적 파악 화자와 거의 상응한다. 문제는 한국어 화자의 경우이다. ①한국어 화자는 일본어 화자보다도 1, 2인칭을 언어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화자•청자를 객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한국어에서는 문체가 발달하였지만 일본어와 같은 청자 목표의 지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등한 대화가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③한국어도 경어가 발달하였지만 사회적 관계나 그 장면의 상황에 맞추어 구별하여 사용하는 일본어의 상대 경어와 달리 연령의 위아래 등 보다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절대 경어이다. ④한국어에도 수수동사는 존재하지만 「クレル」나 「~してモラウ」같은 형식이 빠지는 점이나 수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통하여 일본어와 비교해 보면 화자 중심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⑤한국어에도 「ナル」에 상당하는 동사가 존재하지만 일본어의 기능 동사가 「スル」뿐인 점에 비해 사실 관계에 맞추어 「スル」와 「ナル」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 본다면 일본어와 공통점도 많지만 사태 파악 측면에서는 객관적 파악 경향이 현저하며 중국어 화자에 보다 가깝다는 사실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들이 상

호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다.

3. 사회언어학적 특징 : 하이콘텍스트적 언어 VS 로우콘텍스트적 언어

3.1. 「おばあさんが横断歩道で困っていたので、手を引いてあげました。」

위 문장은『日本語文型辞典』의「~してあげる」의 예문 중 하나이며 문맥(context)에 매우 의존한 문장이다. 일본어 화자는 이 문장을 읽으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할머니가 있어서 (독자는) 그녀의 손을 끌어 함께 건너가 주었다'는 식으로 문맥을 보완하며 또한 자신이 그 사태에 등장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는 일본어가 하이콘텍스트(High Context)적이며 또한 화자의 주관적 파악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필요한 단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어가 로우콘텍스트(Low Context)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화자에게는 위의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하이콘텍스트적 언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어 화자인 독자는 장면을 보충하여 이해하는데 그 장면에는 자신은 등장하지 않는, 즉 주관적 파악 경향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일본어와 같은 하이콘텍스트적 언어의 발화는 로우콘텍스트적 언어의 화자에게는 애매한 것이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본 회사에서는「例のあれ、どうなった？」「そこを何とか」「宜しく」와 같이 하이콘텍스트적인 표현은 일본인 사이에서도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발화가 어떻게 외국인에게는 난해함이라는 이문화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품게 되는지 일본어 모어 화자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3.2. 학생의 메일 「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かったので、他の先生に印鑑をお願いしました」

어떤 유학생이 세미나를 담당하는 일본인 교사와 약속한 시간에 만나지 못하여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받지 못하였다. 서둘러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였다. 그 사실을 위와 같이 그 교사에게 보고했더니 '말투가 참으로 무례하다'고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객관적 사태 파악•로우콘텍스트적 표현 언어의 경향을 갖는 언어 화자의 경우 상대방이 선생님이므로 자신은 경어를 사용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째서 꾸중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주관적 사태 파악•하이콘텍

스트적 표현의 경향을 갖는 일본어 화자는 마치 자신이 부재중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교사를 번거롭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듯한 표현으로 느끼게 되어 불쾌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かったようなので」라고 하여 화자의 책임으로 부재중이라고 판단했다는 표현을 선택한다면 일본어 화자와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부재중이신 것 같았다(先生がお留守のようだった)'고 추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부재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택하지 않아야 할 표현일 것이다. 또한 한국어 화자로부터는 중국어 화자와 거의 동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 「ようだ」와 같은 표현을 수반할 때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4. 나오며

이문화간의 마찰은 화자가 사용 언어의 모어 화자인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청자가 그 발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발생한다. 문제가 없는 단어라면 꼭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인지언어학을 일본어 교육에 응용한 결과,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생성하는데 있어 힌트가 명확해졌지만 청자가 이문화 마찰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대방의 발화가 의도한 의미를 상대방의 사태 파악에 입각하여 헤아릴 필요가 있다.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언어의 모어 화자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발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A언어의 모어 화자라면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고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등, 각자가 조심한다면 마찰은 중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문화 이해의 요점이 되는 사태 파악이나 하이·로우콘텍스트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이문화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 그리고 과도기인 지금은 화자와 청자 쌍방의 중간 역할이 되는 이문화의 가교—멘토—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과 과제, 전망

쉬 이 핑 (북경외대)

1. 중국의 일본어 교육 현황

1949년 신(新) 중국이 성립된 이래로 일본어 교육은 줄곧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수의 종합대학과 외국어대학에서는 50년대 초반에 일본어 전공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은 거의 중단되고 말았고 재개된 것은 1972년 중일 국교가 회복된 이후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일본어 교육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4년제 대학 1,117곳 중 일본어 전공이 설치된 대학은 2015년 현재 506개 대학이라고 한다. 베이징일본학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이 506개 대학 중 약 60%인 353개 대학이 2000년 이후 개설된 것이다.

대학의 일본어학습자 수는 674,005명(60% 이상, 세계 평균은 9%), 일본어 교육기관은 1,153곳, 일본어 교사는 11,271명이다. 이 수치를 보면 중국의 일본어 교육은 규모가 크며 특히 대학의 일본어 교육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일본어교육계에서의 두 가지 큰 사건은 '심상고등학교 일본어 과정 표준(尋常高等学校日本語課程標準)' 반포와 '보통고등교육 본과 전공류 교육 질량 국가 표준(普通高等教育本科専攻類教育質量国家標準)' 제정이다.

2. 고등 일본어과정 표준 개정

다음 문헌을 참고
『中国学生発展核心素养体系』(2014-2015)
『普通高中課程方案(改訂稿)』(2014)
『アメリカ外国語学習スタンダード』(1996)
『CEFR』(2001)
『日本の学習指導要領(高校)』(2009)

『JF日本語教育スタンダード』(2010)
『アメリカ各州共同核心スタンダード』(2010)
『JLC日本語スタンダーズ2011改訂版』
『外国語学習のめやす』(2013)
『オーストラリアスタンダード』(第二外国語英語、中国語、日本語)(2015)

'핵심적 소양'에 대한 이해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와 새로운 경제 모델 아래 인재 육성 방법에 관한 재고찰
복잡하고 불확정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소질적인 문제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학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학제적인 종합 능력 양성이 필요
일본어학과의 혁신적인 소양은, 상호 작용하는 '언어 능력', '문화 의식', '사고 자질', '학습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일본어학과의 인재 육성의 근본이 된다.

3. 대학 일본어과정 국가 표준 제정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공별 교육 기준, 중국어로는 '국표(国標)'로 줄이며 여기에서는 '기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92개 대분류에 587개 전공을 담고 있다.
각 전공의 교육 내용, 학과 구성, 육성 목표
(1) 학생을 중심으로 교원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이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2) 결과 중시, 사회의 요구, 국제 사회, 취직, 사회 활약 능력
(3)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내용
(1) 개설(概說) : 학과 기초 육성 목표
(2) 적용 범위와 전공
(3) 육성 목표
(4) 육성 기준, 학제, 학위, 이수 시간, 단위 수
(5) 교원, 기본 인원 수, 구성, 출신 학과, 연수

(6) 설립 조건 : 교실, 도서, 설비, 경비 등
(7) 질 보장 평가
(8) 부록 : 지식 구성, 강의 구성
・구체적인 요구 : 일본어 인재 육성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지식, 소양, 능력과 같은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요구를 명확히 함
・소질적인 요구
・지식으로서의 요구
・능력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키워드 : ①효과 ②적절성
4요소 : 지식, 기능, 태도, 의식
・인재 육성의 다양성 : 학술형 인재, 응용형 인재

4. 핵심적 소양의 확립을 통하여 일본어 교육을 생각하다

・이 두 가지 표준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어 교육은 어떠한 인재를 양성할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핵심적 소양'의 양성에 의해 학생의 학습 방법 변화를 촉진하고 또한 교사의 교육 이념과 교육 방법, 교육 전략의 변화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을 지도함에 따라 새로운 교재의 개발도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능력 육성을 관철할 것인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전수' 교육을 어떻게 '정신 육성' 교육으로 바꾸는가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학생을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이 길 원 (동아대)

1.머리말

세계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인 21세기에는 교류와 융합으로 창조되는 새로운 문명생성의 글로벌시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여 상생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에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한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교육의 필요성은 요구되며, 밖으로부터 안으로 향한 언어문화에 대한 수용과 교육의 중요성도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언어,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고유의 것을 연구 계발하는 한국학 중에서 한국의 언어에 관하여 특히 한국어교육에 관한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조망해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지역의 한국어교육

(1) 일본의 한국어교육

한류붐과 한일월드컵(2002년)을 기점으로 한국어교육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각 대학의 전공한국어과정의 설치, 교양한국어과정의 확대. 전임강사의 수가 증가하였다.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강사의 비율이 적고 전공으로 일본어 및 일본문학 전공자의 비율이 많은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동기가 여행이나 단위취득 등으로 한국어의 활용 동기가 낮은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전공과정(한국어) 국립대 7개교, 공립대 4개교, 사립대 11개교, 단기대 1개교 총 23개교에 설치되었다.

1995년 교양과목(한국어) 전체대학의 25.3% / 2003년 47.7%(702개 대학 중에서 335개 대학) 2002년 교양과목 – 독일어(577개교 84.1%), 중국어(568개교 82.8%), 프랑스어(543개교 79.2%), 한국어(322개교 46.9%), 스페인어(240개교 35.0%), 러시아어(189개교 27.6%), 라틴어, 이탈리아어, 아랍어(44개교 6.4%)

2012년에는 교양과목(한국어)이 전체대학의 50% 이상의 대학에서 개설되었다.

일본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으로는 한국어 교원임용의 문제(전공과 국적)와 전임교원이 부족한 상황, 한국어 교육 연구와 실천 연구(교재와 교수법 개발 등)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2) 중국의 한국어교육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1945년 당시 중국 수도였던 남경의 국립동방어문전문대학에 한국어과를 개설한 것을 시점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한중 수교 이전의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바, 1980년 말까지 양적인 변화는 없었다.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어인재 수요량이 급증하여 중국대학들에 한국어과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한국어과의 개설은 한국과 경제교류가 가장 빈번한 북경, 상해, 천진, 산동, 요녕 등 지역에 편중되었다. 그러다가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한류열풍이 중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의 대학들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한국어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12년 통계로 중국에서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학교는 117개이며, 재학생 수는 약 35,000명에 이른다. 그 중 석사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27개, 박사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7개이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당면 과제로는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토대 구축과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지향해야 하는 점 그리고 한국어 고급 인재의 양성과 한국어 교육•연구 역량의 결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3) 홍콩의 한국어교육

한국어/한국학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학부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홍콩시티대와 홍콩대 2 곳이며 부전공 과정은 시티대, 홍콩대, 이공대, 중문대 4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부학사(고급학위 포함) 과정은 시티대전문대와 중 문대전업진수학원, 그리고 최근 개설된 홍콩대전업진수학원 까지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콩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사설학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수강생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 타이완의 한국어교육

타이완에 한국어문학과 또는 한국어조(한국어 전공)가 개설된 대학은 정치대, 문화대, 가오슝대 등 3개 대학이며, 그 중 정치대와 문화대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지난 1956년에 설립된 정치대 한국어문학과와 1963년에 설립된 문화대 한국어문학과는 한류 열풍이 불기 전부터 한국어 또는 한국학 인재 육성을 전담해 왔다. 가오슝대 동아시아 어문학과는 지난 2008년에 설립되었지만 불과 7년 만에 국제화를 실현하여 한국어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 몽골의 한국어교육

몽골 15개의 대학교에서 전공 (700여 명)과 교양 및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 (1500명)가 총 2,2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기준). 그리고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 수가 총 76명인데 몽골인 교원이 51명이고, 한국인은 25명이다. 2007년부터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몽골국립대학교와 국제 울란바타르대학교에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베트남의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경제대학교, 공학대학교 등에서도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북부에서 한국어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지만 발전 과정에 따라 남부의 교육기관 수가 훨씬 앞서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경제 중심지인 남부(호찌밍 시)에 더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7) 태국의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이 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방영된 2000년 전후로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앞선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관련 교육은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보다 한국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가 먼저 시작되었다. 8개의 대학(2014년 통계)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학사과정을 개설하였고 1개의 대학에서 한국학전공으로 석사과정도 개설하였다. 1964년 후반의 태국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 과정에 한국의 정치나 사회, 문화 과목도 이미 포함시키고 있다.

(8) 미얀마의 한국어교육

1993년에 양곤 외국어대학교에 1997년에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양곤 외국어대학교의 학부는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비정규과정도 있는데, 하나는 아침수업이라고 불리는 Diploma 수업으로 대상자는 대학교 졸업자들이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다. 또 다른 하나는 오후수업이라고 불리는 강좌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어학당 같은 과정이다. 2009년부터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이미 석사 졸업자만도 총 10명이 되었다. 2016년부터는 박사과정의 개설도 예정하고 있다. 미얀마의 한국어교육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한국어교원의 체계적인 연수와 학습자의 요구를 감안한 한국어교재개발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편과 학습자들의 한국 어학연수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9)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

한국기업의 진출과 함께 한국어교육은 더욱 활성화 되었다.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과 양국의 경제적인 교류의 증가 등도 한국어교육에 더 박차를 가하는 현상이 되었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확대와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한국어시험 학습열풍이 한국어교육의 수요증가에 큰 배경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양질의 교재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고, 디지털학습 시스템과 온라인 교육 사업과 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한국의 투자와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 필리핀의 한국어교육

필리핀에서는 2003년 공중파 방송사 GMA7에서 한국드라마를 방영한 이후에 한류붐이 확산되었다. 2004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어교육이 확산되었다. 필리핀의 대학에서 전공으로 한국어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1개 대학(필리핀 국제대학교)이며 5개 대학(2015년 기준)에서 교양선택과목으로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다. 필리핀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학문목적과 특수목적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한국어전공 개설의 확대를 목표로 2+2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통한 학점인정과 장학금제도의 구축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아시아 각 나라들의 한국어교육 지원강화와 발전방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1)한국어교재의 작성과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 편성에 따른 지원 2)각 나라의 교육 환경과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각 나라의 언어학자와 한국어교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방안 모색 3)각 나라의 다언어사회에서 언어교육시책의 확립에 따른 노력의 존중과 원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맺음말

21세기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보는 2018년 이 시점에서 특히 한국어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국어, 일본어와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언어 중의 하나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세계적인 한류의 흐름과 함께 보다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언어로도 부각되었다. 또한 한국어를 국제어의 하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범국가적인 프로젝트(한국어의 세계화)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어는 장래에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동북아에서 중요한 언어,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 정착될 것이다.

日本語 發表文

通信使研究の現況と課題

河 宇 鳳 (全北大 史学科 名誉教授)

1. 朝鮮時代における交隣外交の象徴、通信使

通信使は、対日交隣政策を実現するために日本の将軍へ派遣した朝鮮の国王使節団である。朝鮮王朝を建国した太祖李成桂は、8世紀後半以来、約600年間にわたる日本との国交断絶を解除し、室町幕府との通交を再開した。 朝鮮と日本は1401年と1403年に明の冊封を賜り、1404年には3代将軍足利義満が朝鮮へ「日本国王使」を派遣することで正式に両国の国交が回復された。其の後、両国は活発に使節を派遣し合い、朝鮮の使節を「通信使」といい、日本の使節を「日本国王使」といった。通信とは「信をもって通好する」という意味で、さらに通信使は外交儀礼上、敵礼国として対等な関係をもって派遣する使節団を意味する。

1) 朝鮮前期の通信使

朝鮮前期、日本室町幕府の将軍へ派遣された使節の名称は通信使の外に通信官・回礼使・回礼官・報聘使・回答使などがあり、派遣回数は18回に至る。その中に通信使という名称で派遣されたのは6回であった。しかし京都まで辿り、使命を果たしたのは1429年の朴端生一行、1439年の高得宗一行、1443年の卞孝文一行などの世宗時代の3回のみである。それ以外は、壬辰戦争直前の1590年に派遣された通信使と戦乱中の1596年に派遣された講和使がある。このように朝鮮前期における通信使は、交流の期間が短く、また使行の形態も定かではなかった。

2) 壬辰戦争後の国交再開と回答使の派遣

壬辰戦争後、日本に対しこの世に生かしておけない敵(不倶戴天の敵)として思っていた朝鮮がわずか10年ほどで日本と国交を再開したわけが何だろうか。ま

た両国とも莫大な費用をかけて通信使を派遣し、接待したわけは何だろうか。

基本的な要因は、両国の支配権力の確立と新たに展開していく国際情勢が取り上げられる。

朝鮮からみると、国民感情や名分上に日本との講和が不可能であったが、現実的には戦乱後の復興と後金の台頭による危機感が働いて日本との平和を成す必要があり、なお日本の新政権を把握する必要があった。そして王道政治の名分上、戦乱中に発生した被虜人を刷還することも重要な課題であり、1607年、第一次回答兼刷還使の派遣が朝日国交再開のきっかけとなった。

一方で日本から見ると、1603年開いた徳川幕府は、内治のために必然的に対外関係の正常化が欠かせなかった。また朝鮮国王使節の来聘を通じて国内の大名に対し将軍の威厳を誇示することができ、政治的優位を確認しようとした。さらに中国をはじめる東アジア世界とのつながりも図った。したがって、徳川幕府は朝鮮との国交正常化のために積極的に力を注いだ。

3) 朝鮮後期の通信使

通信使の定例化が行われ、体系が整ったのは朝鮮後期以来である。壬辰戦争直後、国交再開のために派遣されたのは3回であり、名称は回答兼刷還使である。回答兼刷還使は戦後処理のための使節で、過渡期的な性格をもっている。通信使という名称で派遣し始まったのは1636年から1811年まで行われた9回であった。

1636年、朝鮮朝廷は新たに再編された東アジアの国際秩序に対応するため、日本に通信使を派遣した。回答刷還使と通信使は国書を持参した国王使節団ということと、員役の構成と使行路程などの類似性があるわけで、一般的に両方を合わせて12回の通信使ともいえる。

4) 通信使行の派遣目的と手続き

通信使行の第一の使命は、徳川幕府将軍宛の襲職を祝う国書と、これに応じる回答書の交換である。朝鮮朝廷にとって外交とは相手国の慶弔に対し礼儀を示す儀礼であった。しかし内側には回答刷還使のように政治的な狙いがあった。真の目的は、日本の再侵略を警戒し日本国政を探索し、外交懸案を調整ないし解決す

るためである。例えば、1636年丙子通信使は清の圧力に対する牽制と日本国政の探索、1643年癸未通信使は兼帯制度の実施と島原の乱についての情報収集、1655年乙未通信使は日本の「仮道朝鮮」という情報への確認、1682年壬戌通信使は対馬との交易統制のための七箇条の朝市約定などという懸案があげられる。

18世紀に入っては、外交懸案より儀礼の方が重視され、日本に対する情報収集と国政探索は基本的に維持するほどであった。同時に、朝鮮朝廷は通信使を通じて日本人を文化的に教化することで、日本の侵略性を純化する目的をもっていた。

派遣の手続きからみると、新しい将軍が即位するとき、幕府は対馬島主に命令し、朝鮮朝廷に知らせ通信使の派遣を要請する。それから朝鮮朝廷は通信使の派遣を決めると、対馬島主に通報する。東萊府では訳官と外交の実務者を倭館へ行かせ、日本側と交渉を行い通信使行のあらゆる事項を規定する「通信使行講定節目」を定める。以後、朝鮮では通信使一行の構成と礼単を用意し始める。幕府は老中に通信使の接応を一任し、通信使行が通過する各藩での接待の準備を任せた。

5) 通信使行の構成と路程

朝鮮後期の通信使は450～500人余りで、当時中国に派遣された250余人位の赴京使と比べると大規模の使節団であった。このように通信使行の編成は、①海路に必要な船頭・水夫290余人、②音楽と行列を担当する楽隊100余人、③訳官20人、軍官17人、奴子50人、④文化交流の担当者10余人などであった。とりわけ文化交流を担当する人を編成するとは通信使行の特徴で文化使節団としての性格を表すところである。

通信使行の路程は、昌慶宮で朝鮮国王に辞陛した後出発し、竹山–忠州–聞慶–安東–義城–永川–慶州–東萊に到る。騎船3雙と卜船3雙に乗って釜山港を出発し、対馬島–壱岐島–藍島–赤間関–瀬戸内海の鎌苅–鞆浦–牛窓–室津–兵庫–大阪に到って停泊し京都に到着する。その後は陸路を利用し、彦根–名古屋–岡崎–浜松–駿府–箱根–品川を経て江戸に到る。往復路は約11,500余里ほどで、漢城を出発して帰国するまで約10ヶ月がかかった。

6) 日本での接待

通信使行が江戸に到着すると、老中は通信使の宿舎まで来て出迎えた。それから御三家の饗応が施された。国書伝命礼の後の饗応には、将軍が参席し直接に三使に杯を差すなど、手厚い接待が行われた。日本における朝鮮の国王使節団の来聘は「将軍一代の盛事」という意味があり、通信使行は国賓として歓迎された。饗応にはおよそ百万両の費用がかかり、饗応に動員された人数は33万人に達した。1711年辛卯通信使行の接待を担当した新井白石によれば、1709年幕府の総収入は一年間77万両で、饗応に使われた費用の莫大さがわかる。一部の藩では通信使行の接待のために6ヶ月前から一回のみの客館を新築することもあった。

こうした通信使行への接待は幕府の財政を圧迫する要因となった。18世紀に入り、通信使に対する政治的な目的が弱まり、経費の減少のために大阪聘礼や対馬聘礼を進める改革案が出され、とうとう1811年に対馬島での易地通信が行われた。

2. 通信使行と文化交流

17世紀半ば以後、清が政治的に安定し、朝鮮と日本も平和的な交隣関係が維持され、通信使行の政治的な意味が弱まった。代わりに文化交流の機能が強まった。

文化交流は、1682年壬戌通信使行から活発になった。朝鮮朝廷は「教化を通じた平和の維持」という名分を取り上げて文化使節団という意味を与え、製述官・書記・医員・絵員・写字官・楽隊などの文化交流を担当する人を多数編制した。

鎖国体制下における日本の文人は通信使の来聘に大きな期待をもっていたので積極的に交流を行った。各藩から儒者や文人を派遣して朝鮮の文化を受け入れようと勧めた。通信使行との文化交流は、漢文学と儒学だけでなく絵・文字・医学の分野も含めて近世日本文化の発展に相当な影響を及ぼした。

通信使行との文化交流は日本の支配権力者や上流層、また民衆も参加できるイベントであった。通信使行列図には当時日本の庶民が通信使の行列を見るために沿道に群れを成している様子がよく描写されている。また現在、沿道にあたる地域には通信使と関わる文化イベントや舞踊などが残されている。通信使の主な文

化交流の活動は次のようである。

1) 文化交流の活動

(1) 四文士の筆談唱和

四文士とは製述官と書記3人を称する。四文士と日本の儒学者や文人の間で行われる筆談と漢詩の唱和は「文化交流の花」といわれるほど重要だった。筆談唱和に対する日本人の反応も凄まじくて、四文士は各々一千以上の詩を書くほどであった。

日本の文士は通信使行との筆談唱和を個人の文才を誇示する機会にした。朝鮮の文士が使行に中国に派遣される時も中国の有名な文士に自分の詩文集に序文や跋文を書いてもらおうとした。これと同じ現象が行ったことである。日本の文士は三使をはじめて通信使行に序文や跋文を要請し、通信使行の詩文唱和をもって自分の名を広める目的があった。代表的な人物は林羅山と新井白石である。白石は名を広める前の1682年に壬戌通信使行の製述官の成琬に自分の詩集『陶情集』の序文を要請し、また唱和を実現し名を広めることができた。これをきっかけに白石は木下順庵の門下に入り、師匠の推薦をもって幕府の侍講に登用された。日本の文士は通信使行と唱和すると、直ちに詩文集を刊行した。こうして日本の文士は通信使行の江戸行きの際に唱和が行われると、その後、唱和集を完成し通信使行の帰り道にこれを差し上げることも多かった。

(2) 絵員の活動

絵員の遂行する活動は、①日本地図の模写、②水車と舟橋などの技術製作図の描写、③主な地域と使行路の名勝地の描写、④日本画家との交流などである。1748年戊辰通信使行の場合、遂行絵員は大阪で日本画家と絵会を行い、京都の本国寺で地方の文人と筆談唱和を行った。江戸では将軍の前で揮毫し、幕府の画家(狩野派)との交流も行った。絵会は絵画の実質的な交流と発展をもたらす意味のあるイベントであった。1748年使行の李聖麟と大阪の大岡春卜の交流は有名な事例である。17世紀半ばから18世紀末まで行われた通信使行の絵員の活動は韓日絵画交流史に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る。

(3) 医員の活動

壬辰戦争後、日本は『東医宝鑑』『医方類聚』をはじめて朝鮮の医学書を購入して刊行し、何十の薬種を要請した。1724年には8代将軍吉宗が『官刻訂正東医宝鑑』を刊行した。18世紀半ばオランダの医学が日本に伝わるまでに朝鮮医学は日本の医学発展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

医員の役割は①通信使行の治療、②日本人の治療、③日本の医員との医学問答などがある。特に医学問答は大事なことで通信使行の医学交流に関する筆談集は、現在21種類43冊が伝われている。

2) 日本文物の伝来

朝鮮後期、通信使を通じる韓日文化交流は一方的な伝授関係ではなかった。交流の差があるが、双方に行われた。通信使行によって日本文化が朝鮮に輸入された。通信使行による日本文物の輸入と文化交流が朝鮮文化の発展にも刺激を与えた。

通信使行は帰国して使行中の体験と見聞を書いた日本使行録を著した。本来60余の種類があったが、現在は40余の種類だけ伝わっている。これは文化見聞録として当時日本の社会と文化を朝鮮に知らせること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通信使行の伝来した物品の中に最も価値のあるものは日本の書籍であった。朝鮮に伝来された日本の書籍は儒学書･詩文集･地理書･史書･類書などに多様で30余の種類が確認できる。

通信使行がもってきた日本物品と見聞録は、一部の実学者に知的好奇心の対象となった。とりわけ李瀷を中心とする南人系実学派が日本研究を主導的に行っていて、対日への再認識を主張した。丁若鏞は日本古学派儒学者の論語注釈を自分の『論語古今注』に引用し本格的に研究した。18世紀後半には北学派実学者と、19世紀初金正喜も日本に対する新しい認識に同調した。彼らは1763年癸未通信使行の書記の元重挙と成大中を通じて日本の経済的な発展と詩文の発展を知ることが分かり、日本に対し深い関心も持つことになる。

3) 通信使行の文化史の意義

朝鮮時代の通信使は朝日両国の善隣交隣を象徴する中央政府の公式使節団で

あった。平均470人に達する使行員が8ヶ月間、日本の各地を経て沿路での客館では学術・医学・芸術などの多様な文化交流を行った。そして近世日本の社会に意味のある影響を与えたと評価できる。同時に通信使行を通じて日本の文物も伝わり、日本を再認識するきっかけにもなった。両国の歴史だけではなく東アジア史的な観点からも尤も重要な意味をもつ現象である。朝鮮時代、日本に往来した通信使と中国を往来した赴京使は東アジアをつなげる情報の通路であり、文化交流のハイウェイであったといえる。

通信使行を通じた両国の学者と民衆の交流は純粋であった。通信使行列図に描写されている日本民衆の多様で純粋な表情はそれを事実的によく表している。こうした姿は明治維新以来の韓国観とは全く対照的である。

1811年対馬易地通信を最後に通信使行が閉止されてから、情報の不通による誤解と相互認識の差が大きくなり、結局葛藤と侵略への歴史が展開された。朝鮮前期の壬辰戦争のように近代以降も韓日両国の関係が侵略と抵抗という不幸な歴史につながった。こうした余波は今日までも両国民の意識の中に深く位置付けられている。近世500年間、通信使を通じて展開された平和善隣外交と文化交流は正しい韓日関係のモデルといて再照明されて、積極的に評価されるべきである。

通信使と赴京使の文化と学術の交流及び情報交換は近世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に重要な意義をもっている。当時東アジアの知識人たちの共有した「同文の世界」という認識と同じ時代に生きていく並世意識は現在追求している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先行モデルとして研究する価値のあるテマである。

3. 韓国における通信使研究の現況

通信使の往来は両国の中央政府の直接的な交流であったため、その意義は両国の政治・経済・文化及び相互認識などの諸分野に関わっている。朝鮮後期の通信使は朝鮮と日本の知識人たちの唯一の公式的な通路であった。当時日本人は東萊の倭館まで来ることができた。朝鮮の問慰行は54回で通信使より回数が多かったが、訳官を中心に対馬島に渡り実務的な懸案を解決する使行であった。朝鮮人として日本の首都・江戸まで往来し、日本の知識人と幅広く交流することは通信使行員のみが可能であった。つまり朝鮮後期の両国の交流は、ほとんど通信使を通じ

て行われたといえる。朝鮮で日本の情報を入手することも通信使行を通じてであった。こうしたところで、通信使による両国の交流は朝鮮時代の韓日関係を理解することに重要なテマのなかの一つであ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おける通信使研究を日本と比べると20世紀までには量的な側面から見ても乏しくて足らなかった。1980年の日本における研究が韓国の10倍以上になるという調査もある。こうした研究の差は日本中心の視角を一般化する問題がある。2000年代に入って韓国での研究が活発になったが、研究レベルについてはまだ十分だと言い難い実情である。韓国における研究成果を時期に分けて展開の様相をみてみよう。

1) 1960年代以前

今まで約120以上の論文があり、1990年代から急増している。<表1>によると、制度に対する研究が一番多くて、相互認識、文学、文化交流、外交体制、記録類の順番である。

韓国で通信使研究についての論文が出始まったのは、1960年代以降で研究の歴史がとても短い。1945年までは日本人によって研究が進められた。日本における通信使についての本格的な学術研究は1910年代から始まり、日本支配下にも持続的に研究された。岩方久彦の調査報告によると、1910年以来現在まで日本での発表論文の数は400余編に至るという。

韓国では、1931年『韓国漢文学史』に1719年己亥通信使行の申維翰が著した『海游録』を紹介し、『熱河日記』と肩を並べるほどの紀行文学という論評があるだけである。しかし本格的な研究とは言えず、ただし韓国での通信使研究の傾向が紀行文学と文化交流に集中する糸口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はじめての通信使研究は国文学者を中心に行われた。主に日本現地で通信使行員の行われた詩文交流及び筆談を文学ないし文化交流の側面から研究したものが多かった。

1945 年から 1960 年代まで通信使をはじめて韓日関係ないし交流史の研究がほぼ行われていなかった。こうした現象は日本支配に対する反感と、日本との国交断絶という反日政策が続いていた時代性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韓国で歴史の観点から書かれた最初の論文は、1964 年に発表した李鉉淙の「朝鮮前期対外使節派遣の種類と意義」(『史学研究』17)であった。だが、これも朝鮮前期日本に派

遣したあらゆる使節を扱うなかに通信使に関しては一部だけを叙述したものにすぎない。

2) 1970年代

1970 年代に入って通信使研究に注目する変化が現した。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在日韓国人研究者による研究であった。李進熙は 1976 年『李朝の通信使:江戸時代の日本と朝鮮』、1979 年『江戸時代の通信使』を刊行した。李氏は当時までの日本社会で排除されて歪曲されていた通信使行の文化交流の実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大きな関心と肯定的な反応を集めた。以降、辛基秀は通信使と関連する遺墨と絵などの各種の資料を集めて『三千里』という雑誌に通信使を紹介し続けた。「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という映画も製作し大衆にも大きな反響を呼び起こした。李元植も通信使行員が日本に残した遺墨を直接に収集、分析し文化交流の実相を追究する研究を集中的に発表した。彼らは朝貢使と認識されていた通信使への歪曲された認識を批判し、善隣友好の文化使節団としての通信思想を強調した。このような努力によって日本社会でも通信使への関心が高まった。在日韓国人研究者の著作物と日本での「通信使ブーム」が韓国に紹介されて、以後韓国での研究傾向も日本からの影響をうけて通信使行の文化交流史への研究が主流となった。

3) 1980年代

この時期から韓国での通信使研究が本格的に行われ始めた。1982 年「歴史教科書波動」の影響もあり、一般の日本歴史と韓日関係史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たといえる。

学術的な意義としては、この時期に通信使に関する日本の研究書が韓国に紹介されたところである。中村栄孝などの日本研究者の著作物『朝鮮通信使』が 1,982 年『朝鮮通信使:日本は私たちが育んだ』という題目に翻訳、刊行された。しかし副題から分かるように通信使行の文化交流の事実を我が田へ水を引くように解釈した韓国の認識がよくみられる。また 1985 年には金義煥の『朝鮮通信使の足跡』という断行本が刊行された。この著書は研究書というより 1763 年癸未通信使行の正使趙曮の『海槎日記』を解説したレベルのものである。

テマによる傾向をみると、この時期から通信使行録を対象にする紀行文学についての研究論文がたくさん発表された。1985年『旅行と体験の文学(日本編)』に次いで、1990年代には『朝鮮通信使』(1991)、『朝鮮通信使の文学』(1996)など、 レベルの高い研究書が続いて刊行された。河宇鳳の『朝鮮後期実学者の日本観研究』(1989)も内容上は通信使と関連のある成果物である。その後、韓国では「朝鮮文化を日本に伝播した文化使節団」としての通信使の認識が普遍化され、歴史教科書にもこのような概念が取り入れられた。

一方で通信使を歴史的な観点から研究した成果も出始めた。当時の外交情況と関連し通信使の過程と意味を解釈した成果だと言える。さらに通信使の服飾に関する論文も発表され、多様な分野からの関心が現れた。

4) 1990年代

この時期から通信使についての研究が軌道に乗ったともいえる。1990年代には様々な分野からの通信使研究が行われて、量的に驚くほど成長した時期である。背景として、社会に反日ムードが緩やかになり、1986年アジア大会、1988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開催など、両国関係が友好的に発展されつつ、日本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

1994年『朝鮮時代韓日関係史研究』を筆頭に1998年『17世紀韓日外交使行研究』などの代表的な研究著書が発表された。また日本の代表的な通信使研究者の三宅栄利の著作物が韓国に紹介された。翻訳・刊行物には『歴史からみた日本人の韓国観』(1990)、『近世韓日関係史研究』(1991)、『近世日本と朝鮮通信使』(1994)、『朝鮮通信使と日本』(1996)などがある。

更に注目すべき現象の一つは、日本史と韓日関係史と関連する専門的な学術団体が結成したことである。1992年若手研究者を中心とする韓日関係史学会が結成され、1994年日本歴史学会、1997年韓国日本思想史学会、2005年朝鮮通信使学会が創立された。これらの学会を通じて専門研究者が共同研究や情報交換を行い、より組織的で体系的な研究が進められる基礎が設けられた。これらの学会は各々『韓日関係史研究』『日本史学研究』『日本思想』『朝鮮通信使研究』という学術誌を定期的に刊行して、学術論文の発表の場を提供し研究の活性化に貢献した。文学分野にも様々な学会があった。これらの学会の特徴はハブ(hub)の役割を果たしつ

つ、歴史分野についての解明と研究成果が充実に発表されたことである。

張舜順の調査報告によると、1960年から2002年まで発表された朝鮮時代の通信使関連の論著は127編に至るが、年代別の様相とテマ別の分布度をよく示している。1990年代に入り研究論文の数が飛躍的に増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研究テマも文学と文化交流に傾かず、外交体制、制度、記録物、相互認識など、多様に行わ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表1＞ 韓国における通信使研究の現況

年代/テマ	外交体制	相互認識	制度	記録	文学	文化交流	貿易	倭館	服飾	船舶	飲食	絵画	合計
1960			1		2								3
1970	2		2		1							1	6
1980		2	6	2	4	4			2				20
1990	6	17	13	5	12	10	1	2		1	1	3	71
2000	1	8	8	1	2	2			2		1	2	26
合計	9	26	30	8	20	16	1	2	4	1	2	6	127

5) 2000年代以降

21世紀に入って一番注目される変化は、韓日間に現れる研究の逆転現象である。1990年代から韓日関係史学会をはじめとする専門学術学会の創立と、これらの学会を根幹とする活発な学術活動の影響が大きかったと思われる。岩方の調査によれば、2002年から2015年の間に発表された博士学位論文は韓国で18編(使行録10、文学･文化交流4、美術･服飾2、政治外交･儀礼2)が、日本で12編が発表された。この12編中、8編の著者が韓国人である、主題別にみると、韓国では日本使行録及び文化交流に関して77%を占めている。日本では相互認識と文化交流が50%を占めている。両国とも文化交流に関する研究が大部分を占めていることが共通している。通信使行を文化交流使節としてみる既存の関心と視角が反映されている。

一般論文の発表にも逆転現象が起こった。2000年から2010年の間に通信使と日本文士との筆談唱和についての研究成果が300編発表されたという調査報告もある。岩方の研究によれば、2002年から2015年の間に学術誌に発表された通信使関連の研究論文は347編に達するという。これに比べて、日本の研究成果は2002年ま

で381編、2002年から2015年の間に70編が発表された。どころが、この70編のなかに研究者の半分が韓国人だという。

2000年代に入って、主題面からみられる特徴は通信使について色々なアプローチの研究成果が現れている。例えば、日本使行録と筆談唱和集に関する研究、通信使の紀行文学を検討する研究、文化交流と日本認識などに関する研究が深化された。文化交流の活動についても四文士の筆談唱和と医員の医学問答、絵員間の絵事問答と絵画交流。外にも食べ物、服飾、音楽、船舶などがある。外交体制と使行についての比較研究、通信使行の構成と性格の研究にも53の職制を基にする通信使行役員の分析が行われ、製述官と書記、訳官、絵員、医員についての深まった研究成果が見られる。

殊に一番目立つのは文学分野の研究である。延世大学の許敬震教授のチームによる『筆談唱和集』の翻訳事業は通信使行の文化交流研究に決定的な寄与をした。日本人によって編集、刊行された180種類の筆談唱和集を韓国で翻訳したのは、研究史の逆転を象徴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このチームは韓国及び日本、アメリカ、ロシアなどで散在している通信使の筆談唱和集を集めて「朝鮮後期通信使筆談唱和集翻訳叢書」(50巻)として発刊する。現在、30まで刊行しているが、もうすぐ全巻を発刊してデータベース化する予定である。

通信使研究史と関連して問題点を考えると、テマの偏向性が指摘できる。韓国での研究は文化交流にあまりにも偏重している。歴史や政治外交史からの研究が乏しい。日本では当初徳川幕府の外交政策の一環として通信使研究を進め政治的な側面を重視していた。韓国では通信使を迎える日本の接待と歓迎、文化伝授のイメージを強く認識していた。朝鮮がなぜ、どのような意図をもって通信使を派遣したのか、国内での準備と考え方、行事、儀礼、通信使制の改革、帰国後の影響などについての問題を認識した研究が足りない。次に通信使行を通じて日本から伝来された文物とその影響に関する研究も必要である。これに関して河宇鳳は日本の書籍・古学の影響などについて研究したことがあるが、より深まった研究が求められる。最近、通信使と赴京使(燕行使)を絡めて「東アジア文藝共和国」が形成されたという視角が提起されている。東北アジアの文化交流のハブが漢陽であり、通信使と赴京使が通路の役割をしたという。文化交流の面からもこうした幅広い視角と新たな研究方法を取り入れると、より意味のある研究成果が期待される。

4. いくつの問題点

1) 通信使の名称問題

1992年、筆者は現在通用されている「朝鮮通信使」の名称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主張を初めて提起した。根拠として、『朝鮮王朝実録』『通信使謄録』などの朝鮮時代の史料には、「通信使」や「信使」あるいは「日本通信使」と表記されて「朝鮮通信使」という名称は見当たらない。朝鮮から日本に派遣する通信使であったため「日本通信使」と称した。

すると、なぜ通信使ないし日本通信使が朝鮮通信使と呼ばれたのか。今まで韓日関係史に関する研究が先に日本人学者によって進められて、日本側で使われた名称や用語を無批判に受け入れられた結果である。いわゆる「朝鮮通信使」は「朝鮮から来た通信使」という意味で、日本から当てられた名称である。実に日本の史料にも「朝鮮の通信使」「朝鮮国の通信使」「朝鮮からの通信使」などと記されている。「朝鮮通信使」は後代の学者によって名称されたもので、最初に使った人は1930年日本で通信使の研究を始めた松田甲と知られている。

歴史事件や事項に対する名称を史料上の用語をそのまま使用するのか、或いは、後代の研究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性格を基にして名称するかという問題は簡単ではない。歴史哲学的な議論にまで拡大されることができる事案である。歴史的な解釈より文献実証を重視する側からは前者を、解釈を重視する側からは後者を選ぶ。例えば、史料の「東学乱」よりは「東学農民戦争」や「東学農民革命」という名称が正しいという主張である。しかし「通信使」という名称の議論はこのような問題とは異なる。筆者が問題を提起した後、学会には大体正しいという反応が多か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は勿論韓国でも「朝鮮通信使」という用語をそのまま使うようにしている。これまで使用してきて、一般人も聞き慣れているので、便宜と慣例に従って「そのまま」だという。もう一つの事件に対する歴史用語として韓国と日本が統一した用語を使用するのがよいの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で現在両国で「定着している」朝鮮通信使の用語を使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うした傾向は言論系に強く働いている。2005年刊行された韓日共通歴史教材の題目を『朝鮮通信使』にし、同年釜山で結成された「朝鮮通信使学

会」は学会の名を朝鮮通信使とそのまま使っている。

他方で、西洋の学者に問い合わせてみると、外交使節団の名を付けるとき、派遣する相手国よりは主体を基準にして定めるのが一般的だと言われた。つまり朝鮮人が主体となる使節団であるので、「朝鮮通信使」が一般的であるという。「Korean Delegation to Japan」あるいは「Korean Embassy to Japan」などの英語表記が自然だという。

より多様な事例調査と学制的な立場からの検討が求められる問題だと考える。

2) 通信使の性格問題

一番目、通信使は政治使節なのか。或いは文化使節な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両国における通信使の認識は当時もさも異なった。日本では基本的に政治使節で、朝鮮では「教化を通じた平和の維持」を名分に文化使節として意味を与えた。文化的な優越を表している。『増正今交隣志』には通信使の派遣を外夷羈縻策の一環として把握した。結論からいうと、通信使は政治使節である。ただ東北アジアの情勢が安定する17世紀半ばから政治的な懸案が無くなって文化使節の性格が強まったと考えられる。18世紀からは文化交流が通信使の主な機能となった。

二番目、通信使の朝貢使節観の問題である。

徳川幕府は通信使の来聘を政治的なイベントとして利用した。日本国内の大名(領主)に将軍権力の国際的威厳を誇示するために通信使を朝貢使節のように説明し、そのように演出した。このような認識は一般的ではなかったが、幕府の一部の官吏は朝貢使節として認識した。18世紀後半の国学者は伝統的な朝鮮蕃国観に即して通信使を朝貢使節に認識し、明治維新以来、侵略的な対韓政策とつながってこの観念はもっと強くなった。この問題は、最近一部の研究者によって再び提起された。この論拠として、朝鮮から使節を派遣したという「一方性」を挙げているが、事実を歪曲する主張である。朝鮮前期の使節の往来を全く度外視し、日本国王使の朝鮮上京が禁止された理由についての説明を意図的に無視している。朝鮮前期の場合、朝鮮国王使の日本派遣は10回内外で、日本国王使の来聘は61回。一般豪族の使節も合わせると5000回に達している。朝鮮後期には日本国王使が来られなくなったのは、壬辰戦争の理由に朝鮮が拒んだわけである。上京の拒否は戦争挑発に対する懲らしめの一つであった。

もう一つの論拠として、通信使の派遣の目的が徳川将軍の即位を祝うためであったという「入貢性」を強調している。朝鮮は隣国との交隣の理念を実践するために慶弔のことに礼儀を示す外交使節として通信使を理解していた。古くからの伝統で、孟子の理想主義を継承していることである。通信使の派遣形式と日本の接待方式、外交儀礼など、どちらからみても朝貢使として理解できるところは見つけられない。通信使に対する接待儀礼は、いつも日本での過度な接待と恭敬の問題があがった。外交儀礼上、寧ろ日本の格が低かったと考えられる。日本では通信使に対する改革案が何回も出されたが、全て財政的負担の軽減と共に外交儀礼の不平等を対等に改善する内容であった。林羅山も朝貢使節のように通信使を認識していたが、あくまでも日本国内向けであって、通信使行を相手にして気付かせることは一切なかった。

通信使に対する異なる認識の根本的な要因は、自民族中心主義的の思考の対立である。17世紀半ば、明清交替が終わると、東アジアの伝統的な華夷観と国際秩序が崩れた。諸国には各々自ら中華という華夷変態的な現象が展開された。日本では日本型華夷意識といい、韓国では朝鮮中華主義思想という。朝鮮の位相や通信使を見下して朝貢使節として認識するには日本型華夷意識が基底になっている。

通信使に対する日本の「襲職祝賀使節」、朝鮮の「文化伝授のための文化使節」は両方とも自民族中心主義の産物で止揚すべき理解方式である。

韓日の間には昔も今も歴史事件をおいて認識の格差が大きい。通信使に対する認識も当時幕府の一部の官吏と知識人の認識を一般化し、それを基にして通信使行の性格を規定することは間違っているのである。正しくない論理について厳しく批判をしてこそ、のり越えられると考えられる。

3) 連続性と断絶性についての問題

通信使が日本に派遣された時期は朝鮮時代の戦時に当たり、日本は室町時代初期から江戸時代に当たる時期である。その性格や形態は両国の政治的様相と、広くは東アジアの国際的様態を反映している。また画一的に有形化することも難しい。朝鮮前期と後期は一定の断絶性をもっているが、連続性を看過してはならない。

朝鮮は朝鮮前期と後期の朝日関係と外交体制を一貫して把握していた。同王朝下で事大交隣という外交政策の根本が維持され、通交体制と対日認識は壬辰戦争

を契機に相当変化があったが、基本は変わっていなかった。朝鮮後期に至って日本交渉の主体が前期と違って徳川幕府と対馬藩に一元化されたが、実際は世宗代の以来、朝鮮朝廷が志向した体制であった。

日本の場合、時期的に朝鮮前期と後期に該当する室町幕府と江戸幕府時代を中世と近世に取り分けている。故に対内的に体制の異質性を強調し、外交体制にも大きな差異があった。これまでの日本の研究傾向や教科書を確認すると、江戸時代の朝日関係ばかりを強調し、室町時代の関係は粗末に扱ってきた。通信使の派遣も江戸時代に限って12回の通信使だと説明してきた。さらに通信使に対し「使節の一方的な派遣」という側面だけを浮き彫りにするのもこうした視角から出たのである。通信使を含めた使節は朝鮮前期との連続線上から把握しなければ事実の誤りを犯す恐れがある。

次は、近代との繋がりの問題である。朝鮮後期韓日関係史の研究が通信使行に傾けていたわけで、17−18世紀と19世紀初期、それから開国を迎える19世紀後半までの朝日関係が一貫した論理をもって説明できていない。すなわち、これからの理解から考えると、18世紀までは通信使を中心に善隣友好と文化交流が強調されるが、19世紀に入っていきなり侵略と抵抗という葛藤の関係に変わってしまう。突然の変化の原因と過程についての理解が非常に足りない。朝鮮後期の韓日関係だけを善隣友好とみる視角は皮相の見で、交隣の実相をより多方面から分析する必要がある。特に通信使行の廃止後から開港以前の時期までの19世紀朝日関係についての具体的な解明が切実に必要である

5. 今後の課題

一番目、比較史的な研究の必要性。既存の通信使行の研究は比較史的なアプローチが十分ではない。通信使行をはじめて両国の文化交流史を研究する基本方法として「交流」と「比較」の二つが重要なポイントである。これまでは交流史に重点をおき、ある程度の成果もあげている。今後は今までの交流史的成果を踏まえて比較史的な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る。

通信使の場合、赴京使との比較が最優先の課題である。さらに同じ時期に清と日本に派遣する琉球の進貢使と慶賀使、清に派遣するタイと安南の朝貢使、清か

ら朝鮮･琉球･安南に派遣する使節との比較も必要であろう。

二番目、東アジアの視角からより構造的に接近する姿勢が必要である。

今まで通信使に対する視角は韓国と日本の両方関係の構図のなかで把握してきた。しかも民族主義の過剰意識のなかで対立構図的立場からみてきた。しかし何よりも重要なことは、通信使の研究も自国史の中心から脱して客観的に、実証的に、そして相互補完的に取り扱うべきであろう。

通信使の文化交流を一方的な伝授という視角から解釈することは正しくない。基本的に相互的に取り交わす交流という認識が重要である。朝鮮時代の韓国と日本は相互蔑視観をもっていて、歴史事実と現象もそれに即して記述してきた。研究者は党派性と自民族中心主義から脱皮し、正しい未来像や時代精神と関連して研究の方向を定立し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でこそ歴史学は正しい未来像を提示することに寄与するにたる未来学となろう。

その点で、通信使への認識も視野を広げて東アジアの構造の中で把握する試しが緊要である。事大と交隣も一つとしてつなげて考える必要がある。

最近、東北アジア共同体と東北アジアの三国の文化交流に関連してベセト(Beseto:北京−ソウル−東京)と用語は流行っている。朝鮮時代の通信使と赴京使はソウルを中心として北京と東京をつなげる文化のハイウェイであった。この使節を媒介する三国の交流を通じて各国の文化、学術の位相を定立することができ、18世紀後半韓中日の知識人の同文意識と並世意識をよく吟味することで通信使による文化交流の現在的意味がわかると思われる。

三番目、資料に関する問題である。多様な史料の発掘と充実な史料の利用が求められる。各種の日本使行録、奎章閣所蔵の対日関係の謄録類などの史料があるにも関わらず、韓国の通信使関連の史料を充実に使っていない。国史編纂委員会所蔵の対馬島宗家文書も同じである。これらの史料の緻密な分析と検討を踏まえて私たちの立場を体系的に整理する研究を本格的に行う必要がある。通信使研究の国内資料には、年代記の史料と外交資料集、『通信使謄録』、日本使行録、筆談唱和集がある。資料の閲覧と解読上の大変さがあり、これまでの国内研究にはあまり使われていなかった。これからの研究には、筆談唱和集の場合、日本使行録と並行し比較検討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近、これに関する資料整理と翻訳刊行の事業が国内研究チームによって完成された。通信使の実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

画期的な転機が迎えたと思われる。

四番目、通信使行研究における主題の偏食から脱し、学制的で総合的な接近が必要である。

通信使行員の筆談テマと文化交流の活動は、文学･儒学･歴史･仏教･医学･地理･絵･書道･音楽･建築･飲食･舞踊･服飾の多様な分野に亘っている。当然、接近方法も様々な学問の協力を得る必要がある。

これまで韓国における通信使研究の動向をみると、紀行文学と文化交流、相互認識などに重点を置いていた。政治･外交･経済･歴史の側面からの研究が乏しく、通信使の全体像を理解することに限界がある。通信使がもっているいろんな側面と意義を考えると、より深くて総合的な研究が必要である。例えば、通信使の施行過程のなかで交渉に参加した構成員についての研究が求められる。とりわけ訳官は通信使行の派遣に関連する事前協議を主導し、使行のときには三使の日程及び業務協議のための通訳、実務調整を担った。使行が両国の外交的な懸案業務を推進する過程での訳官の機能と役割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り、続いて通信使の派遣準備と実務交渉の空間である倭館についての考察も重要である。そして通信使行員が帰国した後、日本での見聞と体験が朝鮮の対日認識と政策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のか、また通信使行が両国の文化発展や華夷観などの思想的な変化に及ぼした影響も議論する必要がある。そして通信使行の経費の調達と経済的な側面からの研究も必要であり、国内情勢と通信使派遣の関係、支配勢力との関連性、対中外交との関連性などの検討も求められている。

(※ 参考文献および一覧表は原文を参照。)

2000年代以降の韓国における日本近世史研究の成果と課題

朴 晋 熯 (仁川大)

1. 解放後の韓国の日本に対する認識と日本史研究

韓国の日本史研究は、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とともに少しの間中断することとなった。日本に関心を持つこと自体を「親日」とみなす時代の雰囲気の中で、日本史の研究は極度に萎縮してしまうほかなかった。日本の占領期に大学で国史、つまり「日本史」を専攻していた研究者たちは満鮮史のような研究を中断する代わりに、古代日韓交流史へと研究の方向を変えた。これらは、日本の占領期に日本人学者らが主張したいわゆる「植民地史観」を克服するために、古代朝鮮半島の様々な国家が日本の大和、飛鳥政権に先進の制度と文物を伝授したことをもって日本の古代国家成立過程に「寄与」した点を強調した(文昌魯、2009)。

一方、解放とともに断絶していた日韓両国の外交関係は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会談をきっかけに回復した。日韓基本条約締結を前に、国民感情を考慮しない会談開催に対する非難が強まった。しかし、これと同時に日本社会と経済に対する大衆の関心も非常に高まった。言葉を変えれば、朴正熙政権が打ち立てた「祖国極大化」のモデルとして、日本が見せた経済再建と高度成長に注目していたのである。米国留学を経験した研究者たちは、当時の欧米の学会を風靡していた「極大化論」を背景に、日本の政治、外交、経済について研究を始めた。このような点において、1980年代前半までの韓国における日本研究は、反日感情を基礎として、日本の占領による「植民史観」からの克服と「祖国近代化」のモデルという振れ幅の間を共振しながら進められてき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まるで対極に置かれたように見える二つの日本研究は、反日感情という軸を共有しながら、解放後の新しい国民国家の形成という同じ方向へ向かっているものであった。

「反日」と「克日」の対象から地域学や歴史学の対象へと日本を捉え始めたのは、

1980年代中盤から終盤にかけてであったと言える。何よりも、この時期を前後して日本史関連の教授たちが韓国の大学の歴史学関連学科に任用されたのである。米国や日本等で留学を終えて帰国した彼らの主導のもとに、大学の学部と大学院に日本史専攻科目が開設された。その後、彼らの指導のもと日本や米国等での現地調査と留学を終えて帰国した後続研究者を中心として、1992年、1995年、1997年にそれぞれ韓日関係史学会、日本史学会、韓国日本思想史学会のような関連学会が創設され、学会誌である『韓日関係史研究』、『日本歴史研究』、『日本思想』等が創刊されたことで、本格的に日本史研究を始めることのできる基盤が作られた。

一方では1990年代後半以降、韓国の日本史研究をめぐる社会的環境に大きな変化が起こった。バブル経済の崩壊以降、長期不況が続くことにより日本の経済と社会は解放後の韓国の経済発展のためのロールモデルとしての有効性を事実上失った。その代わりに、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以降の東アジア独自の地域秩序を構築するためのパートナー、あるいは隣人として新たに認識され始めた。1993年、金泳三政府当時の韓国の外務省長官が「被害者意識を抜け出し、パートナーという意識を持って日本と交流していく」と表明した発言は、日韓両国の新しい関係変化を示す一例であるといえよう。このように東アジアのパートナーとして相手を新しく認識するために、日本国史の問題意識と国家主義の偏狭さを乗り越え、相互理解と交流に力点を置いて日韓歴史共通教材を作ろうとする努力が進められ、少なからぬ成果を収めたことも事実である。しかし、2000年代以降米国とともに中国がG2の一つとして急浮上する中で安倍政権が誕生してから、日米同盟を軸として軍事的に「強い日本」を追求する動きが加速し、和解と共存のための日韓両国の歴史研究者の努力は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2015年12月28日、日韓両国の保守政権は、大多数の国民感情とこれまでの研究成果を無視したまま、日本軍慰安婦問題を「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してしまおうとした。植民統治と過去史に対する日韓両国の認識の違いが解決されない状況において、むしろこれに適当に蓋をし、「反日」意識と「嫌韓」の雰囲気を醸成し、保守勢力の結集と動員のためにイデオロギーとして利用する動きが続く以上、韓国における日本史研究は、社会的懸案に対して考察しこれに答える必要性を考えずにはいられない。

本稿は、2000年以降の『歴史学報』で2年ごとに学界の研究動向と主な成果をまとめた「振り返りと展望」から、「日本史研究動向」を中心に最近の韓国社会の日本近

世史研究の動向と主要な成果を簡略にまとめ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2. 関係史研究の拡張と深化

2000年以降の韓国の日本近世史研究において、まずはじめに言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豊臣秀吉による文禄･慶長の役(壬辰倭乱)、通信使と倭館を通じた日韓交流などのように日本の侵略と日韓両国の関係史に研究成果が集中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戦争もまた対外交流の極端な形態とするならば、近世史研究の大部分は事実上関係史だ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このように韓国での日本近世史研究が主に関係史に集中しているのは、韓国が日本から幾度もの侵略と植民地支配を受けたという歴史的な事実による結果だということができる。

しかし戦争、つまり文禄･慶長の役の研究において一つ特異な点は、日本史と韓国史研究の間でこれを見る主な関心領域が異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例えば韓国史の場合、李舜臣に代表される朝鮮水軍の勝利、義兵抗争、明の援兵派遣に焦点を置き、文禄･慶長の役の具体的な展開過程、特に戦闘の様子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焦点が置かれているならば、日本史研究者は戦争の後半部分、つまり文禄･慶長の役の講和交渉及び日朝間の国交再開過程に対して多くの関心を持って研究を展開している。これとともに、戦争の主体を見る視点にもまた、別の立場が確認できる。日本史研究者の場合、戦争に加担した者たちを侵略と被害の二分法的な見方に単純化して分けるというよりは、戦争による被害の様相を国家と個人の関係からより深層的に具体的に探ろうとしている。例えば日本に連れて行かれた捕虜や、強制的に捕まり朝廷から「附倭」と見なされた者たちはもちろんとして、捕虜として捕まった抗倭の投降の背景と役割等も検討した(ミン･ドッキ、2009/2014　; ノ･ソンファン、2014)。

文禄･慶長の役に関する最近の研究の特徴の中の一つは、東アジア的な観点からこの7年の戦争の展開過程と意義、影響を見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特に従来の韓国史、日本史専攻者以外に様々な隣接学問分野にまで研究が拡大し、文禄･慶長の役に対する理解の幅と水準がいっそう広がり、深められた。例えば、文禄･慶長の役に対する明朝の理解と対応を、明の中期である16世紀半ばから本格化した「北虜南倭」の侵入に対する取り組みの一環として調べた(チャ･ヘウォン、

2014)だけでなく、東アジア的観点から、文禄･慶長の役の名称を「東アジア7年戦争」、「東アジア三国戦争」と呼ぶことを提案したこともある(キム･ギボン、2012)。

これとともに戦争が終結してから、文禄･慶長の役の参戦経験が軍談類や記録で栄光と勝利の記憶として回顧される過程(キム･グヮンオク、2006/2007；キム･シドク、2012a/b)とともに、NHK大河ドラマに描写された豊臣秀吉を通して、文禄の役の「英雄」観が事後的に成立する過程もまた研究された(キム･ムンジャ、2013)。このような研究は文禄･慶長の役が日本社会で記憶され、再現され召喚される過程を明らかにしたことで、文禄･慶長の役に対する日韓両国の歴史認識の違いを理解するのに大きな助けとなった。しかし、野史や軍記類が持つ史料的限界、つまり大げさに叙述された虚構的な話を日本社会の歴史認識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さらに深層的な研究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文禄･慶長の役とともに日本近世史の研究で最も多くの比重を占める研究テーマは、通信使と倭館に関するものである。従来の通信使研究が主に両国間の文化交流、相互認識、通信使や随行員の個人行動の記録に関する文学的アプローチに焦点を合わせていた反面、最近では、対等な関係を標榜する日韓両国の外交関係の中に内在する自民族中心意識、ないし両国知識人の間の隙と葛藤を指摘した点が目を引く(ホ･ギョンジン、2014 ； ホ･ウンジュ、2014)。通信士とともに近世日韓関係で重要な役割を占めているのは、両国交流の窓口だった釜山の倭館、そして訳官と通史だった。計12回にわたった通信使の公式な派遣と訪問、倭館を通じた朝鮮と対馬、幕府の間の関係(キム･カンイル、2012)、訳官と通史の具体的な役割と活動(ホ･ジウン、2008/2009 ； ユン･ジョンヒ、2013)に対する研究が行なわれた。最近の通信使、倭館などを題材にした日韓関係史研究で注目すべきなのは、従来の制度史や外交史、文化交流史とは違って、経済史や生活史の観点で具体的な交易物品の種類や数量などに関する実証的かつミクロ的な分析が行われ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

これと共に近世日韓関係史で注目すべき研究テーマは、鬱陵島、独島(竹島)の帰属問題である。独島関連研究は2006年9月に韓国政府が独島の領有権及び歴史教科書、靖国神社参拝などの外交問題に学術的に対応する一方、日本、中国と相互の歴史認識の差を改善しようと、民間学術団体との協議を経て「北東アジア歴史財団」を創立し、本格化した。独島領有権に関する研究は、安龍福の鬱陵島渡海に関

連した日本側の基礎資料が『鬱陵島, 独島関連史料集Ⅰ・Ⅱ』(キム・カンイル他、2013)に整理され、研究上の便宜を得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と共に安龍福の鬱陵島渡海の実態(ユン・ユスク、2012b ; チャン・スンスン、2014)と彼の帰還に触発された鬱陵島帰属論争が結果的に朝鮮知識人の領土認識を高揚させた事実(チャン・スンスン、2015)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いわゆる「鬱陵島争界」を通じて幕府が独島、つまり日本名「竹島」を朝鮮の領土として認めた事実が究明された(ユン・ユスク、2012a)。

3. 政治·制度史の低迷と社会·思想史への拡張

政治史や制度史、経済史研究はその重要性に比べて専攻者が多くないだけでなく、関連研究成果もあまり見られない。まず専攻者の数が少ないうえ、個人的関心に基づいて研究テーマが決定されるため、研究者の間の深い論争と後続研究がなされ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学界構造による結果と思われる。しかし、このような状況にもかかわらず、幾つかの傾向性は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何よりも天皇制は韓国の研究者にとって最も「問題的」な研究領域とみなされた。織田政権と豊臣政権、そして江戸幕府の下で現実の武家権力者と天皇(朝廷)との間の関係をどのように把握するのかは、近世の武家権力の性格を理解する上で核心的な問題とみなされた。これによって織田信長、豊臣秀吉が権力への志向性を持つ天皇(朝廷)とどのような関係を維持し、武家国家を作ろうとしていたのかについて様々な立場が提起された。まず織田政権以来、豊臣政権、江戸幕府の下で将軍を首長とする武家国家の樹立過程において、武家権力者たちが天皇を政治権力から排除し、最終的に「禁中並公家諸法度」を通じて芸能の体現者と規定した事実を強調する立場が提起された(イ・ゲファン、1996/1999/2000/2002)。これに対して16、17世紀に日本を訪問した西洋の宣教師の報告書と記録を通じて、彼らが当時、日本社会を「宗教的皇帝」である天皇と「世俗的皇帝」の将軍で構成された二元的支配構造でとして理解したことに注目した研究が行われた(ユン・ビョンナム、2002)。これと共に豊臣政権と天皇との関係を相互「依存論」と「利用論」の観点から見ようとする従来の捉え方を脱し、両者の関係が時期によって変化するものと見て、秀吉が晩年に天皇の権威を積極的に活用しようとした理由と背景に注目する

ことで、結果的に天皇を通じて体現される伝統秩序の意義を重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提起された(パク・スチョル、2008/2010/2012)。

近世政治史から織田・豊臣政権と天皇(朝廷)の間の関係が「問題的」な研究対象だったのに比べ、江戸幕府と藩の間の関係はあまり問題的な研究テーマにはならなかった。幕府の絶対的優位を主張した従来の学説に対して、藩の経営の相対的自立性を認める見解が支配的だったためである。鉱山経営をめぐる秋田藩と幕府の間の紛争を藩の立場から再構成することにより、藩の自立性を重視する研究が提起された(ユン・ビョンナム、2007)。研究素材は異なるが、仙台藩の例を挙げ、国産の転売政策に現れる商人仲間、つまり商人資本の役割を再評価することで、全国の市場と領内の市場を上下関係ではなく、自律的なものと見て結果的に幕府に対する藩の相対的な自立の可能性を提示した見解(パク・ギョンス、1996/1997/2000)や、萩藩の御家騒動を通じて支藩が再び再興する過程において藩の自律性に注目した研究(ヤン・インモ、2014)などが行われた。ただ、圧倒的な軍事力と経済力を持った江戸幕府の中央集権的な求心力と藩の地方分権的な遠心力を最初から備えた状態で構成された幕藩体制を実証的に分析するためには、大名の領国支配や藩政だけでなく、江戸幕府に対する研究もバランスよく行われるべきであろう。

2000年代以降の日本近世史の研究が持つ特徴の一つは、政治史、経済史から社会史、思想史への拡張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このように研究分野が多様化したのは、日本社会を幅広く理解しようとする韓国社会の要求とともに、日本史研究のテーマと素材を拡大しようとする研究者個人の努力が合わさった結果だと言えるだろう。社会史においては、関心に基づいて研究分野が拡げられるため、特定の傾向や特徴を見つけることが難しい。ただ、最も活発に研究が行われた分野は旅行と出版に関するものだった。これは江戸時代の社会文化的特徴のうち、注目に値する変化がまさに町人文化の発達と庶民社会の出現であることと無縁ではない。例えば、江戸時代の庶民たちの最も大衆的な旅行であった伊勢参宮の実態と性格、意義に関する議論(イ・ゲファン、2006 / パク・チンハン、2012)と村役人の日記を素材とした上層農民の旅や余暇に関する具体的な事例分析(パク・チンハン、2006)、旅が持つ見物遊覧的側面(チョン・ヨンイン、シン・ジョンデ、2014)と名所案内記を通じた江戸「名所」の出現に注目した研究(イ・ヒョニョンa/b)が行われた。

江戸時代に庶民階層にまで学問と文化が大衆化できたのは、まさに出版印刷術の発達と深い関係がある。これに関連して江戸時代に日本で刊行された善書に対する書誌学的整理(キム・シドク、2014)とともに、日本古活字本の朝鮮起源説(イ・ジェジョン、2014)、ポルトガル、オランダとの交流を通じて異国に対する憧れと異文化消費が大衆的な趣味へと転移する現象(キム・ジヨン、2012/2014)などについての研究が行なわれた。

思想史は韓国の日本近世史の研究において政治史以上に多くの研究者の関心を集めてきた分野である。江戸時代の思想史に対する関心はおそらく、性理学が体制教学として機能していた朝鮮とは違い、日本が西勢東漸の危機の中から、明治維新を通じて武家国家から天皇帝国へと急速に移行することができた思想的背景と国家イデオロギーの形成過程を究明しようとする努力の一環だったと考えられる。これによって江戸時代の様々な思想の分派の形成と展開の様相、特性を究明した研究が行なわれた。例えば、山鹿素行に代表される古学者の朱子学の受け入れと武士道に立脚した職分論(ク・テフン、2012/2013)、陽明学との思想的融合ないし折衷を通じた武士道の形成(シン・ヒョンスン、2007)、闇斎学派に対する歴史学的アプローチ(イ・ヒボク、2005)、本居宣長の『古事記伝』から出発し、彼の弟子である服部中庸と平田篤胤へとつながる国学の思想傾向に関する一連の研究(ペ・グァンムン、2012a/b、2015a/b ; パク・ギュテ、2012)などが挙げられる。これとともに朱子学が日本に収容される過程を明らかにするため、伊藤仁斎や荻生徂徠などに代表される6人の思想家を素材にして朱子学の日本的展開形態を考察したり(コ・ヒタク、2009)、仙台藩の事例を通じて留学の受け入れと定着過程を分析したりした(イ・ヒボク、1999)。

4. 残された結論

関係史が事実上大多数を占める韓国の日本近世史研究について、むしろ韓国的特徴……

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 日本史に対する関心と研究が現実的な必要性によって動か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北東アジア歴史財団の順機能と逆機能についても考慮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時点……

日本における韓国前近代史研究の現況と課題

――朝鮮時代史を中心に――

長森美信（天理大）

はじめに

- 長森美信[2010]「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中近世史研究――1970年代までの高麗・朝鮮時代史研究を中心に――」『朝鮮史研究会論文集』48
  - 1970年代までの日本における高麗・朝鮮時代史研究について、当時の研究が、どのような背景のもとで、何を指向し、どのような成果をあげたのか、また後世への影響について考察した。
- 長森美信[2015]「日本における韓国学研究の回顧と現況――天理大学と朝鮮学会を中心に――」『慶南学』34(韓国・慶尚大学校慶南文化研究院)
  - 植民地時代の「京城」で本格化した日本の近代的韓国学(朝鮮学)研究が日本の敗戦によって「断絶」するなか、「京城」における韓国学研究を「継承」した天理大学と朝鮮学会を中心に、戦後日本における韓国学研究の現況を考察した。

→ 本報告の課題: 日本における近代的朝鮮史学研究、朝鮮時代史研究の流れを振り返るとともに、特に近年(2000～2010年代)の研究動向を確認し、課題を展望する。

1. 日本における近代朝鮮史学のはじまり――「京城」における「朝鮮学」研究――

今日の日本における「韓国学」研究が、戦前の「朝鮮学」研究に縁由することに異論を唱える者はいないだろう。しかし、その日本の「朝鮮学」がいつどのように始まったのかという問いに答えることはそう易しいことではない。そもそも「朝鮮学」という言葉がいつ使われ始めたのかもはっきりしない。

少なくとも、1877年(明治10)に日本最初の大学として東京大学が作られたときも、1886年(明治19)の帝国大学令施行によって帝国大学が誕生したときも、「朝鮮」の名を冠する学科や講座が設けられることはなかった。[1] 中見立夫は、1916年(大正5)に東京帝国大学に「朝鮮史講座が新設された」との記録が『東京帝国大学学術大観 総説・文学部』(東京帝国大学、1942年)に見えると指摘する。[2] これは日本で最初に「朝鮮」を冠する講座が大学に設置された事例と思われるが、東京帝国大学が日本の朝鮮学研究の中心的役割を担ったと見るのは難しい。この時期の朝鮮学研究の一大中心となったのは東京ではなく、朝鮮総督府統治下の「京城」であった。

1924年(大正13)4月、京城帝国大学(予科)が発足し、1926年には法文学部と医学部からなる本科が開設された。[3] 法文学部には朝鮮史学第一講座と同第二講座が置かれ、[4] 今西龍(1875～1932。京都帝国大学教授と兼任)、小田省吾(1871～1953)、藤田亮策(1892～1960。考古学講座から移籍)、末松保和(1904～1992)らが教授を務めた。[5]

---

1) 帝国大学令発布とともに設置された「博言学科」では、「選択科目」として朝鮮語が設けられたというが(中見立夫[2006]「日本的「東洋学」の形成と構図」岸本美緒編『東洋学の磁場』岩波書店、18頁)、開講の当否や受講者数など、詳細については不明である。
外国語としての朝鮮語教育機関としては、1880年に外務省の韓語学所が文部省に移管され、所謂「旧東京外国語学校」に朝鮮語学科が設置されたことがあるが、1886年に廃止された。

2) この「朝鮮史講座」は、はじめは学科に属さない「独立講座」であったが、1932年(昭和7)に東洋史学科に編入されたという(中見立夫[2006]41頁)。京都に第二の帝国大学が設置された1897年に、「帝国大学」は「東京帝国大学」に改称された。

3) 京城帝国大学は、大阪帝国大学(1931年設立)、名古屋帝国大学(1939年設立)に先がけて、「大日本帝国」で6番目に設立された帝国大学であり、「帝国」全体を見わたしても傑出した高等教育研究機関であった。京城帝国大学の設置経緯については、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集委員会編[1974]「京城帝国大学設置の経緯」『紺碧遙かに――京城帝国大学創立五十周年記念誌』京城帝国大学同窓会に詳しい。정선이[2002]『경성제국대학 연구』문음사、朴光賢[2003]『京城帝国大学と「朝鮮学」』名古屋大学博士学位論文など、京城帝国大学そのものを対象とする研究も進んでいる。近年の研究状況とその到達点については、通堂あゆみ[2011]「高橋亨と朝鮮」川原秀樹・金光来編訳『高橋亨朝鮮儒学論集』知泉書館の注31および酒井哲哉・松田利彦編[2014]『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ゆまに書房を参照。特に同書所収の文献目録およびアーカイブズ紹介(ともに執筆者は通堂あゆみ)は参考になる。

4) 京城帝国大学には、これ以外に朝鮮語学文学第一講座と同第二講座が開設された。また史学・語学文学以外の考古学や社会学、経済学、法学分野で、朝鮮を研究対象とする研究者も少なくなかった。京城帝国大学開設当初の法文学部教授および助教授、計35名のうち9名が、朝鮮学研究に直接的な関係を持っていたという。(吉田光男[2005]「日本における韓国中近世史研究教育基盤―大学・学界・研究工具―」『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274頁)

5) 朝鮮史学講座の外では、小倉進平(1882～1944。東京帝国大学併任)、高橋亨(1878～1967)、河野六郎(1912～1998)らが朝鮮語学文学講座の教授を務めたほか、田花為雄(1896～1982。教育学)、赤松智城

「京城」にあって、『朝鮮史』6篇37冊(1932～1940年)や『朝鮮史料叢刊』21種(1932～44年)等を編纂刊行した朝鮮総督府朝鮮史編修会(1925年設置)も、歴史学分野における大きな研究拠点になっていた。同会修史官だった稲葉岩吉(1876～1940)・藤田亮策(1892～1960)・中村栄孝(1902～1984)・末松保和(1904～1992)らは、後に京城帝国大学教員となり、また田川孝三(1909～1988)のように、京城帝国大学の卒業生が修史官に就任するなど、朝鮮史編修会と京城帝国大学とは濃密な関係にあった。

これに加えて「京城」には在野の研究者として、松田甲(1863～1945)、鮎貝房之進(1864～1946)、前間恭作(1868～1942)、今村鞆(1870～1943)、菊池謙譲(1870～1953)、青柳太郎(1877～1932)、細井肇(1886～1934)らがおり、[6] 彼らと京城帝国大学の研究者との間には学問的な交流があった。その一端は「書物同好会」の活動から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7]

当時、「最近世史」に位置づけられた朝鮮時代史は、「京城」にあった日本人たちの主たる研究対象の一つであった。組織的に蒐集された史料に基づく実証的な研究が進展した一方、そこで描かれた朝鮮時代史像は、後に南北朝鮮の研究者から

(1886～1960。宗教学・宗教史)、阿部吉雄(1905～1978。支那哲学)、鳥山喜一(1887～1959。東洋史)、秋葉隆(1888～1954。社会学)、田保橋潔(1897～1945。国史学)、四方博(1900～1973。経済学)、鈴木武雄(1901～1975。経済学)、花村美樹(1894～?。刑法・刑事訴訟法)、内藤吉之助(1849～1946。法制史)、奥平武彦(1900～43。政治学政治史)、鈴木栄太郎(1894～1966。社会学)らが、程度の差こそあれ、それぞれの分野から朝鮮を対象に研究を進めていた。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はまさに戦前期日本における朝鮮学研究・教育のセンターであった。(吉田光男[2005]274頁)
個々の研究者の経歴と業績について、ここで詳述する余裕はない。木村誠・吉田光男・趙景達・馬淵貞利編[1995]「日本人の朝鮮・朝鮮史研究」『朝鮮人物事典』大和書房があるほか、宮田節子監修・通堂あゆみ解説[2012]「京城帝国大学時代の回顧」(未公開資料　朝鮮総督府関係者　録音記録13『東洋文化研究』14)には京城帝国大学の関係者が多く登場し、個々の人物についても詳細な注を付しているので参考にされたい。特に京城帝国大学の教授陣に注目した研究としては、通堂あゆみ[2008]「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の再検討―法科系学科の組織・人事・学生動向を中心に―」『史学雑誌』117-2および박광현[2009]「식민지 '제국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경합의 양상과 교수진의 유형」『일본학』28(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などがある。

6) 「京城」における在野の朝鮮学研究者の活動の詳細、とりわけ帰国後の状況については不明なことが多い。松田甲については権純哲[2008]「松田甲の「日鮮」文化交流史研究」『埼玉大学紀要』44-1があり、鮎貝房之進については、出身地である宮城県気仙沼市から、落合亮・気仙沼ユネスコ協会編[1999]『日韓文化かけはしの先人　鮎貝房之進』気仙沼市教育委員会が刊行されているほか、白井順[2013]「前間恭作と鮎貝房之進の交流―在山楼文庫資料を通して―」『年報朝鮮学』15などがある。白井順[2015]『前間恭作の学問と生涯』風響社もあわせて参照されたい。

7) 1937年5月、「京城」において「書誌学的方面から朝鮮文化の研究に寄与しようとして誕生した」のが「京城、書物同好会」である。1943年4月時点の会員数は160名にのぼったという。毎月1回の例会(計65回開催)を中心とした活動の一端は、こんにち「書物同好会冊子」「書物同好会会報」から知ることができる。(桜井義之[1978]「解題」『京城書物同好会会報 附冊子』復刻、龍溪書舎、参照)

「日帝御用史家」による「植民地主義史観」として批判されることになった。他律性論(半島的性格論)、停滞論、党派性論、満鮮史観等が批判対象となった。

1945年の日本の敗戦は、植民地都市「京城」の終焉でもあった。「京城」を拠点とした朝鮮学研究者たちの多くは「引き揚げる」ことになった。研究資源(蔵書や文献資料)の多くを「京城」に残したまま、身一つで帰国した例も少なくない。日本人による朝鮮学研究はここに「断絶」を迎えた。

2. 戦後日本の朝鮮史学と朝鮮時代史――「断絶」か「継承」か――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は、戦前の研究をいかに「継承」すべきかという問いから始まった。日鮮同祖論・満鮮史・他律性論・停退論などの「誤った朝鮮史像」「ゆがめられた朝鮮史像」を批判・克服し、「新しい朝鮮史像」を作り出すことを目標として、朝鮮史の主体的発展、内在的発展が追求された。

他律性論・停滞論批判と唯物史観という二つの指向性は互いに矛盾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こうした雰囲気の中で、奴隷制、封建制、郡県制、土地所有、そして資本主義萌芽に関する研究が、在京の若手研究者を中心に高い関心を集めた。

南北朝鮮における研究成果を、ときに肯定的に、ときに批判的に評価、吸収しつつ、これらの研究が進展するにつれ、停退した社会の典型のように見られてきた朝鮮時代史像も徐々に変貌を遂げた。1960年代半ば以降の資本主義萌芽論の盛況とともに、かつては不振であった朝鮮後期に関する研究も深化をみせた。

1970年代後半になって、朝鮮後期社会の諸分野で近代的萌芽探しにのみ終始しているとの批判が顕在化したのは、この分野の研究蓄積が極めて急速に進んだことの裏返しとも言えよう。

旗田巍が提唱した「外圧と抵抗」という新たな視点が、対外関係史研究に与えた影響も大きかった。モンゴルの外圧に対する高麗の抵抗、壬辰丁酉乱時の日本軍に対する義兵の戦いなど、戦前の研究では描かれることがなかった朝鮮史像が示された。高麗の郡県制のように、かつては知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朝鮮社会の独自性・主体性が次々と明らかにされた点も高く評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動きの中心にあったのが、1959年に創立された朝鮮史研究会であった。

一方、こうした「誤った朝鮮史像」克服のための動きに加えて、末松保和、中村

栄孝、四方博、田川孝三ら、かつての「京城」に人的・学的つながりをもつ人々による、正確な史料的知識に裏づけられた実証的研究が進んだ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戦後、日本に引き揚げた「京城」の研究者たちの多くは、天理大学と朝鮮学会(1950年創立)を中心に研究活動を再開した。国家の収取体制(貢納制・大同法・均役法等)、郷村社会史研究の進展は、彼らの実績である。

朝鮮史研究会を拠点とした少壮の研究者と、朝鮮学会を拠点とした名士・老大家たちは、互いを意識しながらも、親しく交わることは少なかったようである。しかしながら、戦後日本の朝鮮史学、とりわけ朝鮮時代史研究の発展過程において、結果として両者の動きは相互補完的に作用し、戦後の新たな朝鮮史研究の礎を築くことになった。

3. 朝鮮時代史研究の現況

〈表1〉は「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DB版)」に登録されている論文の篇数を、1945～50年代、60年代、70年代の3期に分け、考古古代、高麗、朝鮮、近代、現代、現代在日、一般の7分野別に整理してみたものである。

ここからは、朝鮮時代史を扱った論文の少なさが目に付く。朝鮮中近世史が全体に占める比率をみると、1950年代までが16%、60年代 12%、70年代になると9%にまで低下する。考古・古代史の盛況や、かつて不振といわれた近代史・現代史の急激な増加に比してみるとき、絶対数の減少が明らかな高麗時代史はもちろん、絶対数が2倍近くに増加している朝鮮時代史においても明らかな相対的減少傾向がみられるのである。

〈表1〉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論文の分野別篇数と比率(1945～1979年)

	考古古代	高麗	朝鮮	近代	現代	現代在日	一般	計
1945–59	186 (28%)	52 (8%)	105 (16%)	79 (12%)	114 (17%)	25 (4%)	98 (15%)	659 (100%)
1960–69	283 (18%)	75 (5%)	181 (12%)	314 (20%)	492 (32%)	53 (3%)	157 (10%)	1555 (100%)
1970–79	623 (26%)	53 (2%)	205 (9%)	647 (27%)	560 (23%)	78 (3%)	220 (9%)	2386 (100%)

典拠: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論文篇)DB版(http://www.chosenshi.gr.jp/sengo/ronbun.html)(比率の小数点以下は四捨五入)

次に〈表2〉は、同じDBに登録された2000年以降、17年間分のデータを、〈表1〉との7分野に「史料」を加えた8つの分野別に整理したものである。

二つの表を比較して、最も大きな違いは考古古代分野の比率がほぼ半減した点であろうか。年によって増減があるものの、それ以外の分野別比率は1970年代のそれから大きく変化していない。

〈表2〉日本における朝鮮史研究論文の分野別篇数と比率(2000～2016年)

	考古 古代	高麗	朝鮮	近代	現代	現代 在日	一般	史料	計
2000	120 (13.2%)	12 (1.3%)	95 (9.7%)	234 (25.7%)	266 (29.2%)	54 (5.9%)	116 (12.7%)	15 (1.6%)	912 (100%)
2001	144 (10.8%)	29 (2.2%)	101 (7.0%)	247 (18.6%)	416 (31.3%)	78 (5.9%)	269 (20.3%)	44 (3.3%)	1328 (100%)
2002	125 (13.5%)	13 (1.4%)	65 (6.5%)	164 (17.7%)	242 (26.1%)	46 (5.0%)	236 (25.4%)	37 (4.0%)	928 (100%)
2003	72 (7.4%)	16 (1.6%)	83 (8.3%)	173 (17.8%)	157 (16.2%)	39 (4.0%)	422 (43.4%)	18 (1.9%)	972 (100%)
2004	132 (14.8%)	24 (2.7%)	83 (9.1%)	215 (23.6%)	230 (25.8%)	37 (4.1%)	154 (17.3%)	16 (1.8%)	891 (100%)
2005	80 (10.8%)	11 (1.5%)	52 (6.5%)	168 (22.6%)	162 (21.8%)	42 (5.7%)	217 (29.2%)	11 (1.5%)	743 (100%)
2006	110 (11.8%)	22 (2.4%)	73 (7.4%)	202 (21.6%)	271 (29.0%)	39 (4.2%)	207 (22.1%)	11 (1.2%)	935 (100%)
2007	86 (9.3%)	19 (2.0%)	77 (8.0%)	179 (19.3%)	175 (18.9%)	67 (7.2%)	313 (33.7%)	12 (1.0%)	928 (100%)
2008	88 (10.2%)	18 (2.1%)	89 (9.7%)	155 (18.0%)	195 (22.7%)	38 (4.4%)	260 (30.3%)	16 (1.9%)	859 (100%)
2009	84 (13.9%)	21 (3.5%)	108 (17.1%)	186 (30.7%)	86 (14.2%)	24 (4.0%)	80 (13.2%)	16 (2.6%)	605 (100%)
2010	122 (13.3%)	21 (2.3%)	81 (8.1%)	296 (32.1%)	134 (14.6%)	45 (4.9%)	196 (21.3%)	25 (2.7%)	920 (100%)
2011	90 (10.4%)	13 (1.5%)	111 (12.0%)	241 (27.9%)	199 (23.0%)	36 (4.2%)	168 (19.4%)	6 (6.9%)	864 (100%)
2012	127 (18.8%)	12 (1.8%)	86 (12.4%)	166 (24.6%)	138 (20.5%)	30 (4.5%)	104 (15.4%)	11 (1.6%)	674 (100%)
2013	139 (17.0%)	12 (1.5%)	102 (12.1%)	243 (29.9%)	177 (21.7%)	49 (6.0%)	83 (10.2%)	9 (1.1%)	814 (100%)
2014	96 (15.3%)	25 (4.0%)	79 (12.0%)	187 (29.9%)	95 (15.2%)	28 (4.5%)	108 (17.3%)	8 (1.3%)	626 (100%)
2015	122 (16.4%)	11 (1.5%)	67 (8.5%)	186 (25.0%)	203 (27.2%)	37 (5.0%)	98 (13.2%)	21 (2.8%)	745 (100%)
2016	98 (11.6%)	16 (1.9%)	111 (12.6%)	207 (24.5%)	195 (23.1%)	27 (3.2%)	180 (21.3%)	11 (1.3%)	845 (100%)

典拠: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論文篇)DB版(http://www.chosenshi.gr.jp/sengo/ronbun.html)

朝鮮時代史に限ってみると、2009年に大幅な増加が見られるが、17篇の朝鮮時代の論文を収録した北島万次他編『日朝交流と相克の歴史』(校倉書房)が同年に刊行されたことによるものだろう。

しかしながら、2009年以前は10%を越えることがなかった朝鮮時代の比率が、これ以降12%を前後して推移する趨勢が見られる点は注目してよいかも知れない。

次に、2000年以降の朝鮮時代史研究がどのような分野で進んできたのかを確認しておこう。

〈表3〉2000～2010年代の日本における朝鮮時代史研究現況(論文篇数・著者・分野別)

篇数	著者名(分野)	
		対外関係史
23篇	桑野栄治(儀礼、対外関係)	
18篇	六反田豊(社会経済、日朝関係)、山本進(経済史)	
16篇	中純夫(思想、朱子学、陽明学)	仲尾宏(近世日朝、通信使)
15篇	山内弘一(社会史、思想)、山内民博(社会史、戸籍)	
13篇		池内敏(近世日朝)
12篇	須川英徳(経済史)	村井章介(中世日朝)
11篇	長森美信(社会史、歴史地理、交通)	関周一(中世日朝)、ケネス=ロビンソン(近世日朝)、ロナルド=トビ(近世日朝、通信使、文化史)、糟谷政和(日朝、漂流民、通信使)
10篇	押川信久(仏教史)	伊藤幸司(中世日朝、大内氏、宗氏)、米谷均(近世日朝)
9篇	吉田光男(社会、史料)、韓普光(泰植)(仏教史)	貫井正之(日朝、壬辰役、通信使)、荒木和憲(中世日朝、対馬)、佐伯弘次(中世日朝)、須田牧子(日朝、大内氏、宗氏)、太田秀春(日朝、軍事史、城郭史)、田代和生(近世日朝、経済) 夫馬進(朝中、日朝、通信使、燕行使)、木村拓(朝中、女真)
8篇	川原秀城(思想)、矢木毅(社会史)、鈴木信昭(思想、文化史)	松尾弘毅(日朝、五島、平戸)、津野倫明(日朝、壬辰役) 松浦章(朝中、東アジア交流)、清水太郎(朝越交流)、鈴木開(朝清)
7篇	井上和枝(社会史、女性史)、宮嶋博史(社会史、理論、近世化論)	橋本雄(中世日朝、偽使)、中野等(日朝、壬辰役)、北島万次(日朝、壬辰役)、李泰勲(中世日朝、倭寇) 荷見守義(朝中、女真)
6篇	染谷智幸(文化、文字)	
5篇	川西裕也(古文書)、藤本幸夫(書誌学)、文純実(文化史、社会史、対外関係)	横山恭子(近世日朝、通信使)、河宇鳳(日朝、通信使)、高橋博巳(日朝、文化)、姜在彦(近世日朝) 辻大和(朝清)

典拠: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史文献目録(論文篇)DB版

〈表3〉は〈表2〉に示した2000～2016年の17年間に5篇以上の論文を発表した著者とその研究分野を示したものである。

ここから指摘できることは、日本の朝鮮時代史研究者層の薄さである。報告者はかつて1945年～1970年代の高麗時代史・朝鮮時代史研究状況を考察した際にも、全く同じことを指摘したが、30年以上が経った今もその状況には大きな変化はない。

研究分野における傾向も変わらない。1945年～1970年代と同様、対外関係史分野の研究が占める割合が高い。そして、その多くが日本史側・中国史側からの視角によるもので、朝鮮史プロパーによる研究が少ない。(〈表3〉の執筆者51名中、日朝関係史分野が24名、中朝関係史分野が7名)ただし、木村拓氏、鈴木開氏、辻大和氏らによって朝鮮史側から対外関係、特に対明・対清関係史研究が進展している点は、2000年代に入っての変化として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朝鮮史プロパーによる研究分野にも偏りがある。社会史、経済史、思想史分野の研究が比較的豊富な一方で、政治史分野の研究は極めて少ない。

むすびに代えて

日本における朝鮮時代史研究の特徴は、限られた数の研究者が各々の関心にしたがって個別・単発的に研究を進めてきたということに尽きる。そして、それが戦後一貫して、日本における朝鮮時代史研究の置かれてきた状況であり、克服すべき課題である。

日本において朝鮮史は外国史である。自国史として膨大な研究が蓄積されていく韓国学界と、日本の朝鮮史学界が異なる状況にあることは至極当然のことである。そのことを前提とした上で、日本の朝鮮時代史研究者には何が求められるであろうか。

2000年代に入ってから、朝鮮時代を舞台にした「韓流時代劇」が日本で一定の人気を集めている。報告者も市民講座やカルチャーセンターで一般の人々を対象に朝鮮時代史の話をする機会があるが、その反応は極めて良い。韓流時代劇は、華やかな朝鮮王朝、面白い朝鮮時代というイメージを日本の一般人に植え付けた。その影響力は甚大である。

韓流時代劇の大きな影響力は、時にマイナス方向にも働く。エンターテイメントである韓流時代劇には、当然ながら、大げさな演出や脚色が加えられることがある。そうしたエンターテイメント性を、史実の歪曲、歴史の捏造などと言って批判し、あげつらう「嫌韓」的言論が生まれる。そのような「嫌韓」的言論はインターネットでつながった様々な媒体を通じて拡散する。

このように韓流時代劇が正負双方向に大きな影響力を発揮する一方、朝鮮史研究者が学術誌に個別論文を発表したところで、一般の人々が読むことはない。研究論文や専門書ではなく、一般の人々が手にとりやすい一般書、韓国学界の成果を分かりやすく紹介する翻訳書を刊行したり、韓流時代劇の紹介や字幕翻訳の監修等は研究者のやるべき仕事ではない、といわれるかも知れない。日本の朝鮮時代史研究の現況をみるとき、個々の研究者にできることは何なのかを改めて考えてみてもよいのかも知れない。

韓国における日本近現代史研究の理解

金 宗 植（亞洲大）

韓国の日本近現代史の研究は、韓国社会という動かすことのできない基盤の上に立っている。日本近現代史の研究は、日本による韓国侵略と植民地の経験により、他の地域の歴史研究とは違う独特の歴史的背景を持つようになった。韓国社会の歴史的経験は、韓国の日本近現代史研究者たちが共通の意識と認識を共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東洋史学会創立50周年を迎え韓国の日本史研究動向を整理したハム・ドンジュは、これを二つの時期に分けて説明した。第一の時期の特徴としては、日韓関係史が、韓国の日本史研究が歴史学の分科としての位置を獲得することに大きな役割を遂たしたとし、第二の時期が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ポストモダン時代の日本史研究であるとした。結論的にハム・ドンジュは、韓国の学界の日本史研究は日本の学界の研究方向や目的とは別に、韓国的観点から日本史を再解釈・再設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起した。筆者は歴史的に形成された日韓関係が韓国の日本史、特に日本近現代史研究の出発であるという点に同意する。しかし、日本近現代史の拡大は世界史的な研究の流れの展開による変化とも認められるが、それよりも、韓国の政治・社会・文化の環境と日韓関係という研究の出発点の拡張に沿った展開として捉えられる。このような研究傾向が、韓国の日本近現代史研究の流れであると考えられる。

韓国の日本近現代史の研究分野は大きく二つ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1)] まず、日本近現代史そのものに対する研究、次に韓国が日本と隣接していることによる両国の相互交渉・関係、比較史の領域である。既存の研究もこれと似た分類がなされ、行われてきた。本発表でも日本史それ自体を扱うことを「自体」と分類し、日韓の相互交渉と関係の歴史を「関係」として分けて整理したい。具体的には量的な分析を通して韓国における日本近現代史研究の傾向を把握しようと思う。

日本近現代史研究の流れと人的構成の変化をみると、まず1945年から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までは日本史研究の空白期であり、次に1965年から1980年くらい

1) 1985年から2015年までの『歴史学報』(歴史学会)の「回顧と展望」を参考に分類した。

までは模索期、そして1980年からが本格的な日本史研究の胎動期と言えるだろう。空白期と模索期の日本近現代史研究は、植民地の時期に生まれ、高等教育を受けた日本史学習者あるいは韓国史研究者を中心に展開された。胎動期を担ったのは1945年を前後に韓国で生まれ高等教育を受けて、日本や米国に留学して日本史で博士号を取得した少数の研究者たちである。彼らが帰国し、研究者として教育と研究を始めた。1990年代半ば以降、日本の歴史の研究は発展期を迎えた。その担い手は胎動期の研究者から影響を受けたり、教育を受けたりし、韓国で日本史研究を始めた世代である。彼らは韓国的な背景を持った日本近現代史研究の課題を本格的に細かく遂行し始めた。

1980年代半ばまでの日本近現代史研究では、主に政治学の政治史研究者らが日本近代政治史に政治学的に取り組んで研究成果を出し、同時に近代日韓関係史についての研究も継続して行われた。1990年代まで、日本近現代史研究は、依然として日韓関係史に偏っていた。

1994年9月、日本歴史研究会の発足と研究者の量的増加により、日本史研究の飛躍的な量的成長が成し遂げられた。2000年代に入り、日韓の関係研究も大幅に増加したが、日本近現代史の研究そのものが飛躍的に増加し、日本近現代史自体の研究においても研究分野が多様化した。2006年に入り、韓国近代史の領域で行われた植民地時代の朝鮮に関する研究成果が、日本近現代史の回顧と展望から除外された。このことにより、日本近現代史の自体研究が関係研究よりも量的に優位に立つ状況が演出された。その後、このような流れは現在まで変わることなく維持されている。

韓国では、日本近現代史に対する研究分野も韓国の歴史的経験に基づいて拡張された。韓国における日本による侵略という歴史的経験は、まずはじめに日本帝国主義に対する研究を進めさせた。主に日本近代史の中の朝鮮、あるいは日韓関係の分野である。次に、日本帝国主義の基盤を把握するため、「近代日本」の国家の形成とその展開を理解するための研究が活性化した。

また、韓国における日本の植民地経験と日本近現代史の研究は、まず植民地時代の朝鮮に関する研究を中心に行われ、その後日本帝国史へと移り、植民地時代の朝鮮に関する研究も帝国史の一部へと拡げられた。また、日韓間の歴史的経験は、現在のさまざまな方面での歴史問題をはじめとした日韓間の問題を発生させ、韓国の日本近現代史の研究領域を拡張させ続けてきている。

植民地期韓国史研究と「帝国史」－現況と課題

松田利彦（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韓国と日本における植民地期研究には、他の二国間関係史に比べ、例を見ないほどに活発な交流と相互乗り入れ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日本と韓国における研究を分離して語ることは難しいが、本報告では、日本を一つの震源地としながら次第に広まりつつある潮流として、「帝国史」をとりあげ、その現況と課題について考えたい。

「帝国史」という言葉は、グローバリズムの進展と「国民国家」批判を背景に、1980年代より歴史学界で使われ始めた。その特徴としては、①複数の植民地と日本本国の状況の相互連関を横断的に捉えようとすること。②政治史や文化史の領域を重視すること。③「日本人」「日本語」「日本文化」の形成と受容の過程に着目するという視角、などをあげられるだろう。

日本と日本植民地を「帝国」という枠組みを通じて包括的に理解することには、さまざまな困難がともなう。一つは、植民地帝国日本の統治構造が統合的なものではなく、日本の植民地支配を横断的に捉えることが構造的に容易でないという点である。もう一つは、植民地統治を横断的に把握できたとしても、それが誰のための歴史なのかというより原理的な問題がある。

このような点を念頭に置きながら、本報告は、まず、帝国日本の統治構造を概観する。植民地帝国日本の統治構造は、遠心力と求心力を同時に内包したシステムであったこと、そのいずれがより強く作用するかは植民地現地の状況や本国の政治情勢によって左右されたこと、それゆえに、「帝国」を一体のシステムとして把握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ことを論じようと思う。

次に、従来の帝国史研究の限界と課題を整理したい。「帝国史」が“誰のための歴史な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は、つとに「帝国史」が自己中心的な歴史叙述に陥る危険性が指摘されてきた。すなわち、日本史の立場からいえば、「帝国史」が日本一国史の東アジア拡大版にとどめないためにはどのような思考が必要か不断の省察

が必要となる。他方、韓国史の立場からいえば、「帝国史」によって韓国史が回収されることなく、同時に韓国史を一国史的枠組みから外に開いていくという課題にどのように応えていくかという問題がある。このような「帝国史」の隘路を切り開く試みの一つとして、帝国史と地域史(地方史)の接合について検討し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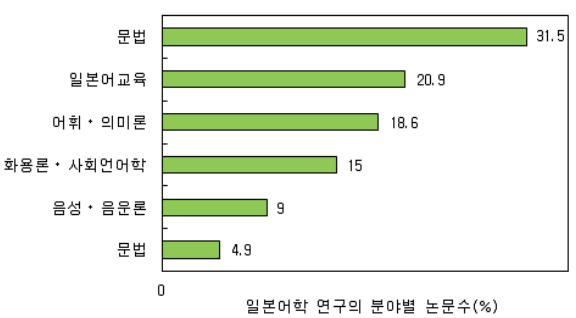
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研究

- 語用論･社会言語学の分野 -

李 吉 鎔（中央大 アジア文化学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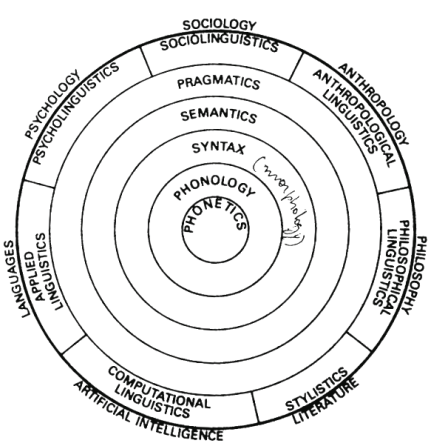
1. はじめに

韓国日本語学会では、2年ごとに日本語学の各分野の現況と展望を行っている。最近2年間(2015.1.1.–2016.12.31.)で、韓国研究財団の18誌の搭載(候補)学術誌に収録された論文(標本数812本)を対象に、日本語学の研究現況を分析したグラフを見ると、文法が256本(31.5%)と最も多く、次いで日本語教育170本(20.9%)、語彙論･意味論151本(18.6%)、語用論･社会言語学122本(15.0%)、音声学･音韻論73本(9.0%)、日本語史40本(4.9%)の順になっている。すなわち、文法、日本語教育、語彙など上位3つの分野の論文が全体の71%を占め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これは、韓国における日本語研究および教育の現場ではこの三つの分野が依然として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るということを物語っている(洪珉杓2017)。



2. 語用論･社会言語学とは

本発表では、語用論研究･社会言語学研究に絞って展望を行うが、そこには語用論的な意味、社会言語的な意味、談話情報に関わる意味を分析した研究が射程に入ってくる。語用論



<The Scope of Linguistics>

と社会言語学は、言語学の領域を示した次の図の最も外側に位置する。

たとえば、我々は、語用論的能力と社会言語能力の両方の能力が備わっているからこそ、次の2人の学生の会話を一見しただけで、どちらが男性の発話であるか、どっちが先輩か、そしてBはAの発話の意図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か、容易に気づくのである。

A:もう12時だね。遅くなったから送ってやるよ。
B:いや、暗いから一人で帰ります。

語用論と社会言語学の2つの分野は、互いに関連する話題を扱うことも多く、たとえば呼称(address　term)や敬語、スピーチレベルの選択をはじめとするポライトネス、発話行為といった問題は、双方の関心事である。そして我々が第2言語(または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学び使用すること、すなわち学習者言語に焦点を当てれば、学習者が習得すべき内容は、ある言語共同体の中で社会生活を営むための言語知識の総体として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に他ならな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は、社会言語能力と語用論的能力を含むものである。

3. 2015−16年の語用論研究・社会言語学研究の現況

本稿では語用論・社会言語学の分野において2015−16年度に韓国で発表された122本の研究論文を対象とする。何本かの共著を含めて73人の著者のうち、姓名(氏名)から判断して、42人は韓国在住の韓国人研究者であり、論文数は95本に上る。また韓国在住の日本人研究者は19人ほどであり(論文数は15本)、日本在住の韓国人研究者が9人ほどである(論文数は9本)。日本在住の日本人によって行われた研究は井上史雄(2015)などわずか3本のみと極めて少なく、そのうちの1本は日本在住の韓国人研究者・中国人研究者との共同研究である(金庚芬・関崎博紀・趙海城2016)。

こうして全体の約82%の論文が韓国人の研究者によるものであり、この点は「対照研究」という研究の形に大きく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言語行動)を浮き彫りにするのに、韓国人のそれとの対照を

試みる方法をとったものである。この視点は、日本人とは異なった規範を持つ日本語学習者は日本語のさまざま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とその運用をどのように身につけるのか、などという広がりを持つ。

具体的に検討すると、122本の論文から664個のキーワードを取り出し、類似するものを上位カテゴリーにまとめ、表に示す。表からは、＜韓国語と日本語との対照談話分析＞という、韓国における語用論研究･社会言語学研究の特徴が浮き彫りになる。そして、(1)韓･日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日常会話)における機能、(2)初対面の接触場面における発話行為の戦略、(3)第2言語習得、などの分野におけるキーワードが目立つ。具体的な言語項目としては、呼称や敬語、ノダ形式･終助詞などの文末表現、会話の話題導入や連鎖構造などがある。またポライトネス理論に依拠し、親疎関係の側面や性差、地域差を考慮し、項目間の相関や評価について分析･考察する、という方法論が見えてくる。

<表1> キーワードの分布

実数	代表項目
30	談話
20	韓国語
19	日本語
17	対照
15	韓日、発話
14	コミュニケーション
13	日常会話
11	言語行動、発話行為（依頼・断り・謝罪・誘い）
9	機能、敬語
7	初対面、接触場面、戦略
6	ポライトネス、親疎関係、第2言語、習得、地域方言、呼称、終助詞
5	ノダ、文末表現、話題、連鎖構造、社会言語学、性差、女性、相関、評価

3. 社会言語学の研究分野における位置づけ

以上から、韓国における語用論研究･社会言語学研究の3つの主流分野は、以下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i)韓･日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日常会話)における機能
(ii)初対面の接触場面における発話行為の戦略
(iii)第2言語習得

ここで、社会言語学の研究分野をHymesに倣って整理しておく(황적륜(黄迪倫 2010)を参照)。Hymes(1974)は、社会言語学の3大領域を次のように分類している。

(1) social as well as linguistic phenomena(社会現象は言語現象)
(2) socially realistic linguistics(社会的に実写する言語学)
(3) socially constituted linguistics(社会的に構成された言語学)

(1)の領域はことばを通して社会を知ろうとするスタンスをとり、「言語社会学(sociology of language)」とでもいえよう。Joshua Fishman、Uriel Weinreichなどによって主導され、言語政策、2言語併用、言語交替、言語習得などを主なテーマとする言語接触学派(the language contact stand)である。

(2)はPerer TrudgillやWilliam Labovに代表される領域で、社会言語学こそ言語学であるというスタンスをとる(そういう意味で「純社会言語学(sociolinguistics proper)」とも)。Labov式社会言語学(Labovian type of sociolinguistics)とも言われるこの分野の主な研究テーマは、社会的要因と関わる言語変異(language variation)と変化(change)である。あるコミュニティーの言語形式の変化を捉え、その変化がどのようにコミュニティーの社会的または文化的事象とダイナミクスに相関しているか、それによってどのように生成されているか、などを追求し、ことばの社会的変異現象を通時的変化(diachronic change)の共時的反映(synchronic reflex)であることを示した。

(3)は「ことばの民族誌(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といわれる領域であり、社会的および文化的状況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さまざまな違いを探る。ことばの民族誌の枠組みでは、「言語」は言語構造よりも言語使用のことであり、また、文化は人々に内在する世界観のような認知的知識ではなく、人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実践によって作り上げるものである。

社会言語学は、社会とことばの相関関係に焦点を当てた学際的な研究分野である。しかし、韓国における語用論研究・社会言語学研究の3つの主流分野は、ハイムズの分類に従えば、今期の韓国では(3)の領域の研究が盛んに行われたことがわかる。

4. 研究事例:ことばの使い方の変化

ここでは、最近筆者が行っている社会言語学の研究を一つ紹介する。仮題は、「韓国は民主主義国家となった。コトバも変わった。ー1987年と30年後の2017年の敬語の変化ー」と考えている。

今から30年前の、1987年当時の韓国は軍人が統治する国であった(軍事独裁政権期)。伝統的な儒教の価値観が重視され、権威的な上下関係が社会を支配していた。目上には厳しく敬語の使用が要求され、反対に目下には普通体で待遇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一方、経済的には発展期に入り、1988年にはソウルオリンピックも開催した。当時の聞き手敬語の使用様相は、荻野他(1990)に詳しくまとめられている。「どういう人物を丁寧に待遇するか」に注目し、結果のみを簡略に要約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a) 韓国では、家族内でも上下関係を考慮して丁寧に待遇する。
(b) 韓国では、年齢差をより重視し、社会関係の差は小さい。
(c) 韓国では、親疎関係の影響が少なく、年齢差で決まる度合いが多い。

その後、1992年の軍事独裁政権の終焉と民主化の進行、1997年のIMF金融危機などを経て、権威主義的、集団主義的な考え方は次第に薄れ、個人の人権を重視する社会へと発展してきた。ただし、経済的には、IMF金融危機を克服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新自由主義を導入し、弱肉強食の超競争社会と変わった。こうした社会の変化が、コトバの使用にどのように反映されているか確認するため、1987年の荻野他(1990)の調査と同じものを2017年に実施した。30年後の聞き手敬語について、主な結果をまとめれば、次のようになる。

(d) 家族内でも上下関係を考慮して丁寧に待遇するとは、もはや言えない方向に向かっている。両親に対して略体丁寧形(40%)より略体普通形(60%)が多くなってきた。
(e) 年齢さをより重視し、社会関係の差は小さいことについては、まだ言えよう。30年前とほぼ同じ結果である。
(f) 親疎関係の影響が少なく、年齢差で決まることについては、今でも変わらないが、少し変化の兆しもみられる。すなわち、初対面の高校生や中学生には「下称」が残っており、近所の小学生や4–5才の子どもにも「略待丁寧形」を使用する人が20%ほどある。

韓国における聞き手敬語の変化は、(a)家族内から始まり、(b)略体普通形の拡大と上称と下称の減少へ向かっていると思われる。そして(c)略体丁寧形が社会的尊重というわきまえの標識になる、といったことがうかがえた。

5. おわりに

2003−04年、筆者が博士論文を執筆していた頃は、スピーチレベル(待遇レベル)シフト研究が、丁寧体がベースの談話において非丁寧体へのダウン・シフトを中心に、「規範からの逸脱」という観点から活発に行われており、さらには友人同士の会話でのアップ・シフトを捉えようとする動きもあった。この手の研究はもう見ない。ひとつの研究の風が止まった。

今は第3節で紹介した研究が盛んに行われ、多くの研究者の努力によって韓国人と日本人の言語行動の具体的な姿が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しかし「実証的な言語行動の韓日対照研究は量的にも質的にもまだ不足する」という生越直樹(2012)の指摘はまだ有効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それは特定の言語行動の観察や記述を目的とするものが多い一方、なぜそのような姿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要因分析型研究が少ないということによる。

【参考文献】

黃迪倫(2010)「사회언어학의 기원과 성립」『사회언어학』18−2 한국사회언어학회 pp.1−27

荻野綱男(1989)「対照社会言語学と日本語教育−日韓の敬語用法の対照研究を例にしてー」『日本語教育』69 日本語教育学会 pp.47−63

荻野綱男・金東俊・梅田博之・羅聖淑・盧顕松(1990) 「日本語と韓国語の聞き手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朝鮮学報』136輯 朝鮮学会 pp.1−51

生越直樹(2012) 「言語行動の日韓対照研究ーその成果と問題点」野間秀樹編『韓国語教育論講座(第2巻)』くろしお出版.(「언어 행동에 관한 한일 대조 연구ー그 성과와 문제점」오고시 나오키・이현희(2015)『일본의 한국어학』に再掲)

洪珉杓(2017)「巻頭言」『日本語學研究』第51輯 韓国日本語学会 pp.5−8

Hymes, D.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J. B., & Holmes, J.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Baltimore, USA: Penguin Education, Penguin Books Ltd. pp.269−293(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江戸時代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分布

岸田文隆（大阪大）

1. 序

江戸時代、日朝間の外交現場において、情報伝達は多くの場合朝鮮語によってなされたと推測されるが、その際実際にどのような朝鮮語がやりとりされていたのかを具体的に示す資料は多くはない。しかし、近年資料公開の機運が盛り上がり、徐々に新しい資料が発見されつつある。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として学界に知られたものは、かつては、長正統によって紹介された8通の倭学訳官のハングル書簡がすべてであったが、近年、新たに対馬歴史民俗資料館の宗家文書一紙物の日朝往復ハングル書簡類100余通が見つかった。発表者は、その研究に従事する過程で、その他の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伝存状況一般についても調査した。以下、発表者が今までに確認しえた、江戸から明治初年にかけての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一覧を提示し、その分布について若干の考察を加える。

2. 江戸時代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一覧[1)]

[01]「朝鮮人拾壱人慶良間島漂着馬艦船を以唐え送越候日記」所収書付1通：東京大学法学部法制史資料室所蔵琉球評定所記録[1770]、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p.31、慶良間島に漂着した朝鮮人が1723年12月1日に差し出した書付を収録。

[02]「韓牘集要」所収書簡63通：京都大学文学部所蔵、薩摩苗代川伝来朝鮮語学書の一つ、1732年頃成立。

[03]「東館修理記録」所収書付2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799]、1750年3月20日条に監董官の君聲崔鶴齢が差し出したハングル書付2通を収録。

[04] 多田主計「裁判記録」巻5所収書付4通：日本国会図書館所蔵[WA1−6−14]、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974]、1751年閏5月22日に訓導玄僉知、別差黄判官が差し出した書付、

1) ただし、以下のハングル文書は、省略する。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に収録された総112通の一紙物史料のハングル文書、およびそこで言及された記録類等所収の関連のハングル文書；釜山市民図書館古文献室の近代韓日外交資料中のハングル文書；大浦家鍵屋歴史館所蔵のハングル文書。

1753年4月28日に訓導朴同知、別差朴判官が差し出した書付、同年5月に商訳(都中)が差し出した書付を収録。

[05] 「分類紀事大綱」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33]、1753年6月7日に商訳(都中)一統が差し出したハングルの書付1通を収録。上記[03]所収の4通目の書付と同一。

[06] 吉村橘左衛門「裁判記録」巻5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879]、1760年4月17日に訓導崔僉正(崔寿仁(大来))・別差李僉正(李命和(聖欽))が裁判(吉村橘左衛門)に差し出したハングルの書付1通を収録。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の参考1、参考2に当たるもの。

[07] 「朝鮮人十人国頭間切安田村え漂着に付送届候日記」所収書付1通:東京大学法学部法制史資料室所蔵琉球評定所記録[800]、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p.158、国頭間切安田村に漂着した全羅道江津出身の朝鮮人が1794年2月2日に差し出した書付を収録。ただし、そのハングルは、伝訛甚だしく解読できない。

[08] 「朝鮮於和館御用ノ向応対始終之覚書」所収書簡1通: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目録巻2, 記録類2, 朝鮮関係Q56]、1796年7月26日に朴致儉(景和)が送った書簡を収録。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の史料10に続くもの。押印があることから書簡原本と見られる。

[09] 「朝鮮関係覚書綴」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149]、1804年12月に訓導陽元玄判官、別差敬天玄主簿が差し出した書付を収録。

[10] 文化「信使記録」所収書付1通:慶應義塾所蔵[93−1−58、慶応冊子番号26、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慶應本第50リール]、1807年10月に訓導敬天玄同知、別差明遠崔判官が久光市次郎に差し出したハングルの書付1通を収録。

[11] 文化「信使記録」所収書付1通:慶應義所蔵[93−2−40、慶応冊子番号4、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慶應本第56リール]、1807年10月に訓導敬天玄同知、別差明遠崔判官が久光市次郎に差し出したハングルの書付1通を収録。上記[10]所収のものと同一。

[12] 文化「信使記録」所収書付1通:慶應義所蔵[93−2−40、慶応冊子番号17、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慶應本第59リール]、1807年10月に訓導敬天玄同知、別差明遠崔判官が久光市次郎に差し出したハングルの書付1通を収録。上記[10]所収のものと同一。

[13] 「分類紀事大綱」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89]、1832年11月に大通官(大通詞)住永恵介が旧訓導維清朴知事に差し出したハングルの書付1通を収録。

[14] 櫛田駿編「朝鮮聞見録」所収書簡1通:福岡市博物館・福岡県立図書館所蔵、1833年11月15日に崔乃維、鄭子建が朝鮮語通詞の津吉善右衛門に送った書簡1通を収録。

[15] 「両訳より差出候書面写し并に和解」所収書付2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6169]、

1836年11月15日に訓導聖五李同知、別差子述玄僉知が差し出した書付、訓導実兄から届いた手紙の写しを収録。

[16] 「分類紀事大綱」所収書付2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85]、1836年11月15日に訓導聖五李同知、別差子述玄僉知が差し出した書付、訓導実兄から届いた手紙の写しを収録。上記[15]所収のものと同一。

[17]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7431]、1837年9月に旧訓導仲元朴僉知、別差伯綏崔主簿が差し出した書付。

[18]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6483]、辛酉(1861?)年12月19日に子儀鄭千摠、致伯鄭把摠が差し出した書簡。

[19]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1702]、辛酉(1861?)年12月5日に訓導が差し出した書簡の別録。

[20]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7060]、1864年3月に船主張白雲が差し出したハングル上書。なお、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8648]が本ハングル上書の和解である。

[21] 対馬宗家文書古文書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5804]、癸亥(1863?)年7月4日に船主채진보、船乗り고운경が差し出した書付。

[22] 「莱府返答の趣任訳より印書にて差出候写」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984]、1866年2月に訓導学一李主簿、別差景文李主簿が一代官藤守道に差し出した書付を収録。表紙には後人が書き入れた「文化三年丙寅」との記載があり、ゆまに書房の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フィルムにも文化信使記録として収録されているが誤り。1806年(文化3年)ではなく、1866年が正しい。

[23] 「示談書」所収書簡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6464]、1870年7月5日に幹伝官が訓導に送った書簡を収録。

[24] 渡辺小右衛門「年限裁判記録」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972]、1871年1月18日に別差景五玄主簿に渡した書付を収録。

[25] 「申含」所収書付1通: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815]、1871年4月15日に訓導が送ったハングルの書簡1通を収録。

3. その分布についての考察

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は、江戸初期には見当たらず、18世紀初中葉以降に出現する。そのうち、倭学訳官等が発給したハングル文書がそのような時期的分布を示す背景には、単に朝鮮国内におけるハングルの使用域の拡大という要因だけで

はなく、日朝交渉を担う朝鮮の倭学訳官と日本の朝鮮語通詞の言語能力・文書能力の推移という要因も関わっ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

日朝交通の現場において交わされる文書には、漢文、朝鮮語吏読文、朝鮮語ハングル文、和文があった。朝鮮の倭学訳官は、このうち漢文、朝鮮語吏読文、朝鮮語ハングル文の能力は近世全期を通じて有していた。とくに、漢文の能力は全く衰えることなく、倭学訳官が日本側に発給する文書は近世末期に至るまでほとんどが漢文であった。しかし、倭学訳官の和文の能力については、18世紀中葉以降は徐々に衰えていったものと見られる。もちろん、17世紀から18世紀初にかけては、十分な和文の能力を有していたと思われ、朝鮮司訳院刊行の倭学書の「捷解新語」の巻10には日本語の書簡文の例が収録されているし、国史編纂委員会所蔵の対馬宗家文書[古文書278]や[古文書11055]など、倭学訳官が書いたと見られる和文書簡の実物もいくつか現存している。しかし、18世紀中葉以降は倭学訳官の日本語能力は徐々に衰えていった。国史編纂委員会所蔵対馬宗家文書[古文書5030]は、年寄中が小野六郎右衛門に送った覚であるが、18世紀中葉に活躍した玄泰翼(仲挙)等3名の倭学訳官らの日本語能力が通じない水準にあることを述べている。また、18世紀末から19世紀初にかけて倭館館守を4度務め、朝鮮通信使易地行聘の講定使も務めた戸田頼母の「贅言試集」には、日本側の勤番通詞と朝鮮側の倭学訳官との対話になぞらえた問答例として、その当時の倭学訳官の日本語能力が劣っていることを述べている。これらの記事から、倭学訳官は18世紀中葉以降徐々に日本語の能力を喪失していったものと見られる。

一方、日本側の朝鮮語通詞等の状況はどうであっただろうか。江戸初期から中期にかけての日本側の朝鮮語通詞たちは、驚くべきことに、ほとんどの者がハングルを知らなかった。雨森芳洲「韓学生員任用帳」は、1720年当時ハングルを知っている者は3人しかいなかったことを伝えている。そのため、日本側から朝鮮側に文書を送る際は、礼曹や東萊府使宛ではなく、たとえ倭学訳官の訓導宛であっても、ハングルではなく漢文で文書を作成していた。元禄9年(1696)ころに成立したと推測される「倭館記録・信使并訳官聘問之次第(仮題)」(対馬歴史民俗資料館蔵)には、日本側の倭館館守が朝鮮側の訓導に送る漢文の書簡の文例が収められている。倭学訳官の訓導にまで漢文で書簡を送っていたことを示す資料として注目される。

しかし、漢文で文書を作成し送付することは、日本側にとっては相当な負担が

あった模様である。もちろん、日本側にも東向寺僧や真文役、雨森芳洲等の儒学者のような漢文の能力を有する者もいたが、日常的に朝鮮側と接する通詞や代官らは漢文が不得意であった。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の一代官吉野五良七「東萊接待記」には、元禄15年(1702)5月2日の接待の場で東萊府使が漢文の書付を一代官に示したところ、一代官は自分は文盲のため読めないと返答し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雨森芳洲の教育改革により対馬の朝鮮語通詞がハングルを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後は、日朝間の外交の実務レベルの文書往復においてハングルを使用することは、とくに日本の朝鮮語通詞にとって極めて便利な方法で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漢文バージョンがあるにも拘わらずハングル文書が添えられる場合もままあり、漢文の内容を日本側が理解しやすいようにする意図があったと推測される。

4. 結

以上、本発表においては、江戸から明治初期にかけての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の一覧を提示し、その分布について若干の考察を試みた。これらの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は、送信者受信者ともに男性であり外交の公的な内容のものである点が、従来知られていた朝鮮国内の同時期のハングル書簡類と異なる。従来、朝鮮国内においてハングルが公の文書に使用されるのは1882年甲午改革以降のこととされてきたが、如上の日朝往復ハングル文書は18世紀中葉頃からすでに公文書的性格を帯び始めている。これは、日朝交通という特異な空間において生まれた現象であり、そのような現象が生じた背景には、朝鮮司訳院の倭学訳官らの日本語能力の喪失と、日本側の朝鮮語通詞等のハングル能力の獲得と漢文能力の欠如という要因があったと推測する。

参考文献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沖縄県史料(前近代5)漂着関係記録』 沖縄県教育委員会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対馬宗家文書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 長崎県教育委員会

明治期の韓国語学習書の研究現況

陳 南 澤（岡山大）

1. はじめに

明治時代以前にも日本では對馬島の朝鮮通詞を中心に韓国語教育が行われており、『全一道人』『交隣須知』『隣語大方』などの韓国語学習書が用いられてきた。明治時代に入って、時代的な必要いより多くの韓国語学習書が新たに刊行されたが、特に1894年の日清戦争と1904年の日露戦争期には、韓国語の必要性が大きくなり、韓国語学習書は軍事、商業、貿易など、実用的な目的を持って編纂されたものが多く、明治後期になると、韓国語の文法書も刊行される。また、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学習書のみではなく、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学習書も1890年代から刊行されるが、資料としての性格は類似しているため、この発表では明治期における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学習書と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学習書を区別なく韓国語学習書と呼ぶことにする。

明治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は内容的には貿易及び商業、外交、軍事、治安、鉄道及び土地、朝鮮への移住などの実用的な特徴が著しく、当時国内外の情勢が反映されており、日常生活に用いられる会話が重視されている。韓国語学習書は当時の韓国語の生き生きした話し言葉を反映しており、文明開化期における韓国語の口語を示している点、語彙史の側面からは特に日本語の語彙の影響などといった文明開化期における新たな語彙の定着過程を探ることができる点、韓国語と日本語との対訳文は外国資料として韓国語の研究に相応しい資料となる点から、文明開化期の韓国語研究の資料として価値がある。特に、1890年代から20年間で70種余りの韓国語学習書が刊行されたのは、これらを総合的に分析すると、文明開化期における韓国語の特徴とその変遷の過程を更に細密に調べることに役立つであろう。

明治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の韓国語の資料としての価値を高めるためには、

韓国語及び方言に関する考察が必要になり、このためには日本人の著者が習得した韓国語の特徴及び校閲に参加した韓国人の方言的な背景を明らかにするべきであろう。また、各韓国語学習書との影響関係を明らかにすることも重要であり、書誌学的な研究のためには影印本ではなく実物を確認することも必要であろう。[1)]

本発表では、明治時代に新たに刊行された韓国語学習書[2)]の一覧と、それぞれの習書についての研究の現況を示しながら、韓国語学習書を韓国語の言語資料及び日本語の言語資料として総合的に分析した論文を概観し、『日韓會話』を中心に韓国語学習書の影響関係などを簡単に確認したい。

2. 研究の現況

明治期に刊行された殆んどの韓国語学習書は小倉進平(1940)と桜井義之(1974a, 1974b)に紹介されており、以下の博士論文及び著書にも韓国語学習書についての書誌的な紹介及び分析が行われている。

朴基永(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硏究 : 日本에서 刊行된 韓國語 學習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齊藤明美(2006),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成玧妵(2009),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朝鮮語會話書―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その日本語―, 東京大学博士論文

石塚令子(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 명사 어휘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1) その点から植田晃次の一連の論文で提示されている人物史主義は、日本人の著者の韓国語学習力を知ろうとする望ましい試みであり、原物主義は書誌学的に重要といえよう。ただし、対訳文の内容や音韻、文法などの分析には影印本の利用も問題はないであろう。

2) 明治期以前から用いられていた『交隣須知』と『隣語大方』は、1880年代以後も次のような新たな改訂版が刊行されたが、『交隣須知』と『隣語大方』のみを分析した論文は別にまとめることにする。『交隣須知』と明治期に新たに刊行された韓国語学習書との影響関係を述べる論文は本発表に含めて議論することにする。

1881年刊 交隣須知(明治14年本) 巻一, 二, 三, 四 浦瀬裕校正増補
1882年刊 訂正隣語大方 浦瀬裕校正増補
1883年刊 交隣須知(明治16年本) 巻一, 二, 三, 四 浦瀬裕校正増補
1883年刊 交隣須知(宝迫本) 巻一, 二, 三, 四 宝迫繁勝刪正
1904年刊 校訂交隣須知(明治37年本) 1巻 前間恭作・藤波義貫公訂

李康民(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역락
黄雲(2016), 韓国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 麗澤大学博士論文

以下の表は明治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を刊行年順に整理し、それぞれの学習書を分析した研究論文を示したものである。各論文においては韓国語学習書に関する書誌学的な研究及び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韓国語及び日本語についての研究などが行われており、文法や音韻など、ある主題について韓国語学習書を総合的に分析した論文は別に示すことにする。

	刊行年月	書名	著者	関連研究論文
(1)	1880/11	韓語入門	宝迫繁勝	李康民(2004) 齊藤明美(2009)
(2)	1880/11	日韓善隣通語	宝迫繁勝	李康民(2004) 齊藤明美(2005b) 成玧妵(2015b)
(3)	1882/08	和韓會話獨學	武田甚太郎	
(4)	1891/05	日語工夫	中野許多郎	黄雲(2016)
(5)	1892/06	日韓英三国対話	赤峰瀬一郎	李康民(2005a) 齊藤明美(2006b) 陳南澤(2010)
(6)	1893/10	日韓通話	国分国夫 国分象太郎校	李康民(2003) 成玧妵(2007) 齊藤明美(2005a) 서경숙(2018)
(7)	1894/06	朝鮮医語類集	鈴木裕三	
(8)	1894/07	朝鮮俗語早學		
(9)	1894/07	實用朝鮮語 正編	中島謙吉	
(10)	1894/07	兵要朝鮮語	近衛歩兵第1旅団編	
(11)	1894/08	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		
(12)	1894/08	日韓會話	参謀本部	李康民(2006b) 朴基永(2009) 陳南澤(2014) 成玧妵(2018)
(13)	1894/08	新撰朝鮮會話	洪奭鉉	李康民(2017a)
(14)	1894/09	日清韓三國會話	坂井釰五郎	李康民(2005b)
(15)	1894/09	日清韓三國對照會話篇	松本仁吉	李康民(2014)
(16)	1894/09	旅行必用日韓清對話自在	鳳林館 太刀川吉次郎	李康民(2013a)
(17)	1894/11	朝鮮通語獨案内	池田勘四郎	
(18)	1894/12	日韓清會話 獨習速成	吉野佐之助	李康民(2014)
(19)	1894/12	朝鮮語學獨案內	松岡馨	李康民(2010) 陳南澤(2013) 齊藤明美(2014)
(20)	1894/12	日清韓往復文	堀中東洲	
(21)	1895/05	日語捷径	金澤末吉	黄雲(2016)
(22)	1895/06	日本語獨案内	稲益謙吉	陳南澤(2015) 黄雲(2016)
(23)	1895/06	単語連語日話朝雋	境益太郎, 李鳳雲	黄雲(2016)
(24)	1896/04	實地應用朝鮮語獨學書	弓場重栄,内藤健 編	李康民(2008) 齊藤明美(2013) 陳南澤(2016)
(25)	1897/12	簡易捷径日語獨學	弓場重栄	李康民(2011) 齊藤明美(2015) 黄雲(2016)
(26)	1901/11	朝鮮語獨習	松岡馨	
(27)	1902/05	實用韓語學	島井浩	李康民(2007a) 齊藤明美(2015a)
(28)	1903/04	日韓通話捷径	田村謙吾	陳南澤(2012) 成玧妵(2014b) 李康民(2016)
(29)	1904/01	韓語會話	村上三男	李康民(2005c) 齊藤明美(2006c) 朴基永(2013)
(30)	1904/02	日露清韓會話自在法	武智英	
(31)	1904/02	出征必携日露清韓會話	山本富太郎	

(32)	1904/04	滿韓土語案內 : 袖珍實用	平山治久	
(33)	1904/04	實地應用日韓會話獨習	勝本永次著, 李有鎔閱	
(34)	1904/04	一週間速成韓語獨り卒業	阿部正尹編, 金道義校正	
(35)	1904/05	日露清韓會話自在	通文書院 編	
(36)	1904/05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	小須賀一郎	
(37)	1904/05	日韓會話獨習	山本治三	
(38)	1904/06	朝鮮語案內 : いろは引	林山松吉	
(39)	1904/06	朝鮮移住案內	山本庫太郎	
(40)	1904/06	韓国農事案內: 附韓語會話	青柳綱太郎	
(41)	1904/08	最新日韓會話案內	嵩山堂編輯局	
(42)	1904/10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	金島苔水, 李鎭豊	
(43)	1904/10	韓語獨習通信誌 第1編	大韓起業調查局通信部	
(44)	1905/01	韓語教科書	金島苔水, 廣野韓山	陳南澤(2017)
(45)	1905/03	日韓新會話	金島苔水, 廣野韓山	
(46)	1905/04	東語初階 : 韓訳重刊	伊沢修二 閲	李康民(2009)
(47)	1905/05	實用日韓會話獨學	島井浩	成玧妵(2015a) 齊藤明美(2016)
(48)	1905/06	日清韓會話	劉泰昌閱, 吳完與閱	
(49)	1905/07	日韓會話捷径	金島苔水, 廣野韓山	
(50)	1905/08	獨學韓語大成	伊藤伊吉	조강희(2010) 植田晃次(2012) 朴基永(2016)
(51)	1905/09	獨修自在日語捷径	金島苔水, 廣野韓山	黃雲(2016)
(52)	1905/11	日韓清英露五国単語會話篇	堀井友太郎	
(53)	1906/02	日韓韓日新會話	島井浩	成玧妵(2008a)
(54)	1906/04	日韓言語合璧	金島苔水	
(55)	1906/06	韓語正規	近藤信一	
(56)	1906/07	韓語	安泳中	
(57)	1906/11	六十日間卒業日韓會話獨修	柳淇英, 高木常次郎	
(58)	1907/01	朝鮮語獨稽古	川辺紫石	
(59)	1907/05	日韓いろは辞典	柿原治郎, 朴容観	
(60)	1907/09	獨習日語正則	鄭雲復	片茂鎭 외(2005) 한원미(2014),
(61)	1908/06	日語會話	島井浩	成玧妵(2014a) 黃雲(2016)
(62)	1909	文法註釈韓語研究法	薬師寺知曨	윤영민(2015c)
(63)	1909/02	韓日英新會話	鄭雲復, 鮮于叡	李康民(2013b)
(64)	1909/05	韓語通	前間恭作	齊藤明美(2006a) 鄭世桓(2010) 윤영민(2016b)
(65)	1909/06	韓語文典	高橋亨	윤영민(2016a)
(66)	1910/06	日韓會話	秦兵逸	
(67)	1910/06	韓語五十日間獨習	島井浩	
(68)	1910/07	韓語學大全	津田房吉	
(69)	1910/08	新案韓語粟	笹山章	
(70)	1910/12	日韓韓日言語集	趙義淵, 井田勤衛	李康民(2007)
(71)	1912/05	局員須知 日鮮會話		李康民(2017)

以下は、韓国語学習書を総合的に紹介したものの他、韓国語の音韻、文法などを様々な韓国語学習書を通じて考察した論文である。

한중선(1994)	1893年から1910年までの日本語学習書14種	資料的意義と内容上の特徴、韓国語学習書との関連性を考察
李康民(2005d)	交隣須{知 物名 韓語訓蒙 漂民對話 對談秘密手鑑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語 日韓通話	19世紀に書かれた代表的な韓国語学習書を紹介し、その変化の過程を考察

李康民(2006b)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語 日韓英三国対話 日韓通話 日韓會話 韓語會話	文明開化期における代表的な韓国語学習書6種の制作背景と言語資料としての性格を考察
이미향(2007)	日韓通話, 韓語教裎, 新案韓語栞	三つの資料を分析して紹介し、初期の韓国語の教材としての特徴を考察
박기영, 채숙희(2007)	1890−1945の30種の韓国語学習書	韓国語学習書を概観
片茂鎭(2009)	全一道人, 交隣須{知, 日韓善隣通語	明治以前と以後刊行された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韓国語に対する仮名転写の表記の特徴と表記法の変化像を考察
고경민(2011)	韓語文典 韓語研究法 韓語通 實用韓語學	1900年代に刊行された7h巣の韓国語学習書(西洋人が刊行した3種の学習書を含む)の文法範疇の記述についての様相と特徴を考察
김정숙(2012)	實用韓語學を含めた9種の韓国語学習書	各学習書の内容的、形式的特徴を考察
최영철, 허재영(2014)		近代啓蒙期における日本人を対象にした韓国語教育と韓国語学習書の変化の傾向を記述
吉本一(2014)		19世紀末から20世紀中葉に至る時期に韓国で出版された国語の教科書と韓国語学習書の影印文を多角的に分析
윤영민(2015a,)	韓語入門(1880) 實用韓語學(1902) 韓語正規(1906) 韓語通(1909) 韓語文典(1909)	文法項目と記述上の特徴について考察
윤영민(2015b)	韓語入門 日韓善隣通話 實用韓語學 單語連語日話朝雋	韓国語と日本語の文法とその体系がどのように述べられているかを考察
주현희,김희섭(2016)		1880年から1940年代まで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韓国語の音韻現象についての記述を考察
주현희,재영희(2016)		1880年代の文明開化期년から1945年までの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学習書の変遷の過程を網羅して考察

以下は日本語資料及び多国語資料としての韓国語学習書の価値を総合的に考察した論文である。

齊藤明美(2007)	明治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の会話文に用いられる「です」について調査
成玑妵(2008b)	明治前期における韓国語学朱書の一覧を示し、概要と特徴、形式や内容などを分析して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どのように用いるかを考察
成玑妵(2009)	日清戦争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の特徴及び日本語について考察
成玑妵(2010a)	明治後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の一覧及びその特徴を示し、日本語の性格を考察
成玑妵(2010b)	明治前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程度福祉(特に大層と大変)について考察
成玑妵(2015c)	日露戦争期に日本で発行された多国語会話書を示し、出版の目的及び内容について究明し、会話書の構成、語彙及び会話の用例文の特徴を考察
李康民(2015)	文明開花期に日本で刊行された13種の多言語学習書の資料的価値を紹介し、その資料性を検証

3. 韓国語学習書について

3.1. 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ハングル及び仮名音注の表記の保守性

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ハングル表記及び仮名音注の表記は明治以前から存在した韓国語学習書の伝統により保守的に行われたこともあるため、これを考慮して音声、音韻論的分析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例えば、二重母音「ㅖ ㅒ ·ㅣ」の仮名音注の表記は、様々な韓国語学習書に多用に見られるが、『日韓英三國對話(1892)』の「英語竝ニ韓語発音考」には以下のような記述がある。

> 第五 假名ヲ附ルニハ成ル可ク正規ヲ用ヒタリ假令バㅖㅒㆎノ如キ字ガ一寸聞テ聞ユル如ク「メー」「ペー」「ヘー」トセズシテ「マイ」「パイ」「ハイ」トシテ固ク正規ヲ守リテ變訛シタル音聲ニ泥マヌ事ニ定メタリ

上記の説明で「正規」の意味は明確ではない。しかし、この説明は、実際の発音では「·ㅣ」の単母音化がなされているが、最小限「規範」としてはまだ二重母音という意識が残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解釈できよう。これに対して「ㅖ」に関しては別の説明はなく、例文の仮名音注の表記にも日本語の「エ段」と記されており、この時期にも既に単母音化がなされているため、二重母音が「正規」という意識も残っていないことが分かる。これに対して「ㅒ」はほぼ例外なく「ア段＋イ」と記されている。

しかし、『日韓英三國對話(1892)』より後代に刊行された韓国語学習書にも「ㅖ ㅒ ·ㅣ」の仮名音注に転移音「イ」が現れる場合(つまり、二重母音として転写した場合)が多くあるが、これについての解釈は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

3.2. 各韓国語学習書間の影響関係 −『日韓會話』を中心に

従来の研究では、部門の配列の比較などを通じて『交隣須知』が他の韓国語学習書に与えた影響を主に論じているが、各学習書間の影響関係を例文を通して更に明確に確認できる。例えば、『日韓會話(1894.08)』は、当時の他の学習書に影響を及ぼしたことが分かる。

①『旅行必用日韓清對話自在(1894年9月21日印刷 太刀川吉次郎 編輯)』はハングルがなく仮名で韓国語を表記しているが、殆んどの例文が『日韓會話(1894年8月3日印刷)』の例文と同じである。出版時期があまり変わらないことを考えると、『日

韓會話』を調節参考にしたのではなく、同じ資料を底本にして作成した可能性が高いと推定される。

셔울ᄒᆞ고 촌은 풍쇽이 다르오? 각 도가 다 달나요	(日會-61)(旅必-23)
현판 글시가 뉘 글시요? 대원군의 글시요	(日會-111)(旅必-28)(日獨-55)
인쳔셔 셔울 가는 길은 ᄒᆞ나 뿐이요?	(日會-214)(旅必-29)(朝獨-174)

②『朝鮮語學獨案內(1894.12 松岡馨)』は、『日韓會話(1894.08)』と同じ例文も多くあるが、内容を一部修正した例文も見られる。それに、「나일(ᄂᆡ일)」「삼게(삼개)」といった表記の誤りも両者において見られる。これは共通している底本があるか、この資料が『日韓會話』を参考に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のであろう。

나일 (> ᄂᆡ일) 오명에 써난다오	(日會-21)(朝獨-130)
ᄂᆡ일 오명에 써난다오	(日獨-23)
ᄒᆞ나는 별이게를 넘어 삼게로	(日會-214)(朝獨-175)

③『日本語獨案內(1985.06 稻益謙吉)』も、部門の配列の構成が『日韓會話(1894.08)』と類似しており、多くの例文が同じである。更に、「열ᄀᆡ(열개) ᄯᅳᆯ(뜸)」のようにハングル表記の誤りも両者において見られる。しかし、日本語の単語と表現においては異なっているところも見られ、韓国語の表現を修正したり誤字を直すなど、著者の役割もうかがえる。

ᄃᆞᆯ결 살 거시니 열ᄀᆡ(>열개)만 가져 오ᄂᆞ라	(日會-243)(日獨-12)
ᄯᅳᆯ(>뜸)	(日會-90)(日獨-45)

④『韓語教科書(1905 金島苔水)』からも『日韓會話』の例文が多く見られ、著者の金島苔水が『日韓會話』を参考にしていたことが推測できる。

져 길이 갓가오나 ᄆᆡ오 험ᄒᆞ오	(日會-224)(韓教-125)
화륜션 구경 못ᄒᆞ겟소?	(日會-162)(韓教-144)
져길ᄒᆞ고 이길은 어네거시 갓갑소?	(日會-223)
져길ᄒᆞ고 이길은 어네거시 갓잡소?	(韓教-128)

얼마나 갓갑소? ᄒᆞᆫ 십니나 갓갑지요 (日會-224)
얼마나 갓잡소? ᄒᆞᆫ 십니나 갓잡지요 (韓敎-52)
뉵군은 어네 나라히 만소? (日會-59)
뉵군은 어네 가라이(>나라이) 만소? (韓敎-56)

3.3. 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ハングル字母の分類

① 子音と母音とで分類した韓国語学習書[3)]

韓語入門(1880)	日韓通話(1893)	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1894)	日清韓三国対照會話篇(1894)
朝鮮語學獨案內(1894)	日韓會話(1894)	實地應用朝鮮語獨學書日韓通話(1900)	朝鮮語獨習(1901)
日韓通話捷徑(1903)	日韓會話獨習(1904)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1904)	六十日間卒業日韓會話獨修(1906)
韓語正規(1906)	朝鮮語獨稽古(1907	韓語學大全(1910)	

② 父音、母音、子音で分類した韓国語学習書[4)]

實用韓語學(1902)	韓語會話(1904)	韓語獨習通信誌 第1編(1904)	最新日韓會話案內(1904)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1904)	韓語教科書(1905	實用日韓會話獨學(1905)	對譯日韓會話捷徑(1905)
對譯日韓新會話(1905)	日韓言語合璧(1906)	韓語(1906)	日韓韓日新會話(1906)

4. おわりに

本発表では、明治期における韓国語学習書の研究の現況を概観し、韓国語学習書の影響艦影などを簡略に確認した。韓国語学習書の日韓対訳文はそれ自体で両言語における文法研究のための基礎資料として意味を持つが、日本人の著者の韓国語学習力を含めたそれぞれの韓国語学習書において韓国語についての分析が必要であり、これらを踏まえて文明開化期における韓国国内の文献及び西洋人による韓国語学習書などを総合的に分析し、文明開化期の韓国語資料としての価値を見直す必要があるであろう。韓国語学習書に見られるハングルに対する仮名音注意の表記は、保守的な傾向も強いものの、当時の韓国語の音声や音韻的な特徴をある程度反映しており、近代文明語などといった新たな語彙の使用様相は、韓国

3) 『韓語入門(1880)』『速成獨學朝鮮日本會話篇(1894)』『日清韓三国対照會話篇(1894)』には子音と母音の分類が反対である。

4) 金島苔水著『對譯日韓會話捷徑(1905)』と『對譯日韓新會話-附文法註解(1905)』『日韓言語合璧(1906)』には父音と母音の分類が反対である。

の国立国語院によって構築された韓国語コーパス資料と共に検討すれば、韓国語における語彙史の研究に大いに役立つであろう。

今後それぞれの韓国語学習書についての研究が蓄積され、日韓対訳文をコーパス化すれば、音韻、語彙、文法、方言、外来語表記法などの史的研究の資料としても非常に価値があると思われる。更に、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資料と共に総合的かつ体系的な研究が可能であろうことが期待される。

〈韓国語学習書関連の論文一覧〉

1. 韓国で刊行された論文

고경민(2011), 근대 계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권2호 pp.25-35

김정숙(2012),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이중언어학 Vol.49 pp.87-109

朴基永(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硏究 : 日本에서 刊行된 韓國語 學習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_____(2009),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日韓會話』에 대한 일고찰 : 그 성립 과정과 한국어 교재로서의 구성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Vol.1 pp.35-56

_____(2013), 개화기 한국어 회화서 〈韓語會話〉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63호 pp.103-132

_____(2016), 개화기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 〈獨學 韓語大成 全〉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학습서로서의 특징과 한국어 자료의 성격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No.64 pp.121-154

박기영, 채숙희(2007), 일본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에 대한 고찰-1890~1945년에 간행된 교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34 pp.131-156

齊藤明美(2005a),『日韓通話』と『交隣須知』の對譯日本語について, 日本學報 Vol.63 pp.33-48

_____(2006b),『日韓善隣通語』の硏究, 日本語學硏究 Vol.14 pp.95-115

_____(2006),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6a), 1909년 간(刊)『한어통(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 12권 pp.173-196

_____(2006b),『日韓英三国対話』の日本語と韓国語 -明治16年本『交隣須知』との関係を中心に-, 日本學報 Vol.68 pp.81-98

_____(2006c), 明治37年刊『韓語會話』の言語について, 일본학연구 Vol.19 pp.353-371

_____(2007), 明治期の韓国語学習書にみられる日本語の変化,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00-105

_____(2009),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硏究, J&C

_____(2013),『ポケット朝鮮語獨学』と『實地應用朝鮮語獨学書』について, 日本語文學 Vol.59 pp.153-172

_____(2014), 明治27年刊『朝鮮語学獨案内』の研究, 日本語文學 Vol.63 pp.37-59
_____(2015), 弓場重栄の三つの学習書にみられる日本語について-『簡易捷径日語獨学』の日本語を中心に-, 日本語學研究 第44輯 pp.75-81
_____(2015a), 明治35年刊『實用韓語学』の研究, 日本語文學 Vol.65 pp.35-57
_____(2015b), 島井浩が作成した日本語の教科書について, 한국일본어학회 학술발표회 pp.171-176
_____(2016), 明治38年刊『實用日韓會話獨学』の研究, 日本語文學 Vol.71 pp.1-23
_____(2017), 明治41年(1908)刊『日語會話』の研究,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 No.1, pp.19-44
서경숙(2018), 근대 계몽기 한국어 학습서『日韓通話』에 대한 일고찰, 국제어문 Vol.76 pp.7-33
成玧妵(2010b), 明治期朝鮮語會話書における程度副詞の使用狀況と推移, 일본학연구 Vol.17 pp.61-76
_____(2012),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 :조선어회화서 붐의 실체, 아시아문화연구 Vol.25 pp.67-91
_____(2014a), 開化期の日本語學習書『獨學日語會話』に關する考察, 일본어교육연구 Vol.28 pp.65-84
_____(2014b), 개화기 경찰용 조선어 회화서『일한통화첩경』에 관한 고찰 -학습내용 및 일본어 표현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Vol.90 No.1, pp.99-120
_____(2015a), 근대 일본인의 조선어회화 학습서『實用日韓會話獨学』에 대한 고찰, 日本語文學 Vol.65 pp.59-78
_____(2015b), 근대 조선어회화 학습서『일한선린통어』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Vol.55 pp.139-161
_____(2015c), 러일전쟁에 사용된 다국어회화서에 관한 고찰, 日本學報 Vol.105 pp.303-319
_____(2018), 근대 한어회화 학습서의 어학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Vol.66 pp.161-181
吉本一(2014), 19世紀末~20世紀半ばの韓國國語教科書 および朝鮮語學習書, 일본학 Vol.39 pp.93-115
윤영민(2015a), 개화기 일본인이 간행한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 항목 연구, 배달말 Vol.57 pp.1-33
_____(2015b),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 - 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3집, pp.171-201
_____(2015c), 藥師寺知龍외『文法註釋韓語研究法』, 한민족문화연구 Vol.50 pp.207-237
_____(2016a), 개화기 일본인의 한국어 연구 -高橋亨 저『韓語文典』의 문법 사항을 중심으로, 泮矯語文研究 Vol.44 pp.59-82
_____(2016b), 개화기 일본인 간행 한국어 문법서에 대한 일고찰:『한어통(韓語通)』의 품사 설정과 문법 항목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42 pp.371-392
李康民(2003), 1893年刊『日韓通話』의 日本語, 日本語文學 Vol.17 pp.145-165
_____(2004),『韓語入門』과『善隣通語』, 日本語文學 Vol.23 pp.68-88
_____(2005a), 1892年刊『日韓英三國對話』에 대하여, 日本学報 Vol.63 pp.105-116
_____(2005b), 1894年刊『日淸韓三國會話』의 日本語, 비교일본학 Vol.15 pp.131-148
_____(2005c), 1904年刊『韓語會話』에 대하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221-225
_____(2005d), 19세기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pp.265-271
_____(2006a), 開化期 日本의 韓國語 學習書 -言語資料로서의 性格과 成長性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Vol.67 pp.65-80
_____(2006b), 메이지(明治)期 參謀本部의 韓國語 學習書 - 1894年刊『日韓會話』와 관련하여, 일본어문

학 Vol.31 pp.211-232
_____(2007a), 島井浩와『實用韓語學』日本學報 Vol.71 pp.79-91
_____(2007b), 1910年刊『日韓言語集』의 日本語와 韓國語,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11-115
_____(2008), 1896년年刊『實地應用 朝鮮語獨学書)』에 대하여, 日本語文学 Vol39 pp.87-106
_____(2009),『東語初階』의 硏究, 日本學報, Vol.78 pp.59-71
_____(2010), 1894年刊『朝鮮語學獨案內』에 대하여, 日本學報 Vol.82 pp.69-79
_____(2011), 春園李光洙의 일본어학습서『日語獨學』에 대하여, 日本學報 Vol.86 pp.89-98
_____(2013a), 言語資料로서의『日韓清対話自在』, 日本學報 Vol.94 pp.41-52
_____(2013b), 1909年刊『韓日英新會話』에 대하여, 비교일본학 Vol.29 pp.367-379
_____(2014),『日淸韓三國對照會話』와『日韓淸會話』日本學報 Vol.98 pp.65-74
_____(2015), 개화기 다언어(多言語) 학습서와 근대 한일 양국어, 日本學報 Vol.104 pp.51-72
_____(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역락
_____(2016), 1903年刊『日韓通話捷径 』에 대하여, 비교일본학 Vol.36 pp.307-318
_____(2017a),『新撰朝鮮會話』의 日本語와 韓國語, 日本語文學 Vol.75 pp.51-67
_____(2017b), 1912年刊『局員須知 日鮮會話』와 近代 日本語, 비교일본학 Vol.41 pp.349-362
이미향(2007), 일본어 화자를 위한 개화기 한국어 교재의 언어 교수 고찰 -『日韓通話)』,『韓語敎程』,『新案韓語采』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권 1호 pp.337-363
石塚令子(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명사 어휘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鄭世桓(2010), 朝鮮語學習書 韓語通の言語學的一考察 -動詞についての記述を中心に-, 일본근대학연구 Vol.27 pp.29-61
정승혜(2011), 오구라문고 소장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일고찰 - 금고기관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3, pp.43-72
조강희(2010),「獨學 韓語大成」におけるハングルのカタカナ音注表記について, 日本語敎育 Vol.54 pp.39~50.
주현희,김희섭(2016), 근대 시기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음운현상 기술에 대한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351-560
주현희,채영희(2016), 근대 이후 간행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의 변천과정과 문법 내용 연구, 우리말연구 Vol.45 pp.77-118
최영철,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 개항 이후 학제 도입부터 통감시대까지 - 어문논집 Vol.57 pp.453-477
片茂鎭(2009),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仮名) 표기에 관한 고찰 - 명치 이전 한국어학습서류와의 비교를 통하여, 日本文化學報 Vol.43 pp.83-104
片茂鎭 외(2005), 獨習日語正則 : 解題·索引·硏究·原文. 불이문화
한원미(2014), 鄭雲復의『獨習 日語正則』의 대역문 연구, 日本硏究 Vol.22 pp.439~467
한중선(1994), 開化期 日本語 學習書 小考, 일어일문학연구 Vol.25, pp.139-168.

_____(2017), 韓國 開化期 日本語 學習書『日話獨習』에 관한 考察, 日本研究 Vol.74 pp.593-612
허재영(2011), 독학한어대성(獨學韓語大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교육 자료 1, 역락

2. 日本で刊行された論文

植田晃次(2011), 薬師寺知曨ー別府地獄めぐりと朝鮮語をつなぐ人, 言語文化研究 Vol.37 pp.1-19
_____(2012), 明治期朝鮮語学習書・伊藤伊吉『獨学韓語大成 全』の書誌学的研究, 日本語言文化研究 第二輯(下)pp.204-213
_____(2013), 伊藤伊吉の経歴と著書ー日本近代朝鮮語教育史の視点からー, 言語文化研究 Vol.39, pp.11-29
_____(2014), 金島苔水とその著書―日本近代朝鮮語教育史の視点からみた商業出版物としての朝鮮語学習書―, 日本语言文化研究 第三輯(上)pp.63-72
植田晃次・石川遼子・山田寛人・三ツ井崇(2007),『日本近現代朝鮮語教育史』,
小倉進平(1940), 増訂朝鮮語学史, 刀江書院
桜井義之(1974a),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一), 韓 Vol.3 No.7
_____(1974b),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二), 韓 Vol.3 No.8
陳南澤(2010),『日韓英三國對話』におけるハングル表記と仮名音註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6号
_____(2012),『日韓通話捷径』における仮名音註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8号
_____(2013),『朝鮮語学獨案内』における仮名音註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9号
_____(2014), 1894年刊『日韓會話』の韓国語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10号 pp.47-57
_____(2015), 1895年刊『日本語獨案内』について, 大学教育研究紀要 第11号 pp.43-53
_____(2016), 1896年刊『實地應用朝鮮語獨学書』の韓国語について, 教育研究紀要 1号 pp.93-106
_____(2017), 1905年刊『韓語教科書』の韓国語について, 教育研究紀要 2号 pp.65-76
成玑妵(2007),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日韓通話』, 日本語学論集 3 pp.125-142
_____(2008a),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日韓韓日新會話』, 日本語学論集 4 pp.37-57
_____(2008b), 日本語資料としての朝鮮語會話書〔明治前期〕, 日本語の研究 第4巻2号
_____(2009), 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朝鮮語會話書―明治期朝鮮語會話書の特徴とその日本語―, 東京大学博士論文
_____(2009), 日清戦争に使用された朝鮮語會話書―その日本語の様相―, 日本語学論集 5 pp.87-101
黃雲(2016), 韓国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 麗澤大学博士論文
山田寛人(1998), 朝鮮語学習書・辞書から見た日本人と朝鮮語-1880年～1945年, 朝鮮学報 Vol.169 pp.53-83
_____(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朝鮮語を学んだ日本人, 不二出版

日本における現代韓国語文法研究の課題

五十嵐孔一（東京外国語大）

キーワード：対照研究，語学教育，活用，語基

0

日本の韓国研究の分野における言語に関連した主な学会・研究会には言語，文学，社会，歴史などを全般的に研究する朝鮮学会[1]，語学研究を中心とした朝鮮語研究会[2]，語学教育を中心とした朝鮮語教育学会[3]などがある。いずれも定期的に学会，研究会，発表会を開催し，学術誌を刊行するなど，日本における韓国研究の発展に寄与してきた。現代韓国語の文法研究においても，一定の水準を維持しながら根強く継続してきたと言うことができる。本稿では日本で韓国研究を半世紀以上行ってきた朝鮮学会を対象に，その学会誌『朝鮮学報』(年 4 回刊行)に掲載された現代韓国語文法に関する論文を概観しながら，今後の課題を提示することにする。また，韓国語の活用法について，日本でしばしば議論に挙がる「語基」について，本稿の見解を示すことにする。

1

まず，『朝鮮学報』の第 1 輯から最新の第 246 輯(2018 年 5 月現在)の中から現代韓国語の文法(概説，方言，教育を含む)に関するものを探し出したところ，145 本の論文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各論文の掲載輯，刊行年，題目，著者については本稿末尾に一覧表にして示しておいた。以下，本稿に現れる「(数字)」はその表の

1) 1950年10月～現在。http://www.tenri-u.ac.jp/soc/korea.html
2) 1983年4月～現在。http://www.tufs.ac.jp/ts/society/tyosengo/
3) 1999年3月に朝鮮語教育研究会として設立，2014年7月に朝鮮語教育学会と改称し，現在に至る。http://jakle.sakura.ne.jp/

「NO.」の数を指す。

日本における韓国語研究の特徴としては韓国語に関して日本語話者が主に日本語で研究活動をするという点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インフォーマントの意見を土台に，小説，新聞記事，シナリオなど具体的な資料を中心に長い期間にわたり研究してきた。このような基本的な研究姿勢は今後も継続していくものと思われる。また他の特徴としては韓国語と日本語の対照研究が多いという点である。全145本中には21本の論文(25)(30)(36)(38)(44)(47)(53)(57)(72)(74)(95)(98)(102)(106)(112)(116)(125)(129)(137)(138)(140)と1本の研究ノート(75)があった。このような対照研究の論文は1970年代から現れ始め，現在まで研究内容の幅を広げてきた。この傾向は朝鮮語研究会でも見ることができる。朝鮮語研究会の最近の発表テーマは以下の通りである[4]。

(1) 朝鮮語研究会における口頭発表のテーマ例
「「-어야」構文について―「必須条件」の日韓対照研究―」(2016.9)
「韓国語「는데」と日本語「ケド」の対照分析」(2017.5)
「「のだ」と「-ㄴ것이다」の対応関係とその全体像」(2017.9)
「一項名詞文から見る「이다」と「だ」の意味機能」(2017.12)
「個別的事態を表す現代日本語「と」と現代韓国語「-자」の対照分析」(2018.2)

ここで『朝鮮学報』の研究がどのようなものを対象にして行われているか，具体的に見てみよう。まず，語彙を対象とするもの(1)(2)(3)(12)(15)(19)(22)(29)(31)(49)(64)(107)が1960年代の早い時期から現れており，1960年代中ごろからは助詞(体言語尾を含む)を対象とするもの(4)(24)(26)(36)(40)(66)(71)(77)(113)(114)(119)(145)が見られる。一方，語尾(接続形を含む)を対象とした研究(63)(68)(72)(78)(79)(86)(88)(90)(92)(94)(101)(113)[5](123)(126)(136)は遅く1990年代に入ってから始まっているが，それ以後，多くの研究が現れた。接尾辞(先語末語尾)に関する論文には「-겠-」(20)(46)(124)(127)(133)，「-었겠-」(82)があるが，この「-겠-」は日本語話者にとっては理解が難しい接尾辞である分，根強く研究が行なわれている。

4) 朝鮮語研究会HP(アドレスは本稿脚注2)参照)を2018年5月25日(金)に閲覧。
5) (113)の「現代朝鮮語の‘나마’について」(五十嵐孔一，2007)では助詞としての나마と語尾としての나마を論じている。

文法的な形式を扱った論文には「-어 놓다, -어 두다」「-다 보니까, -고 보니까, -어 보니까」「連体形+것 같다」など(37)(73)(85)(130)(131)(142)がある。これらは研究者自身が韓国語を学習する際に感じた用法と意味に対する疑問点と，韓国語を教える視点から見て学習者が理解しにくい点や間違いやすい点などが研究の動機になっ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

2000 年代に入ってからは談話の分野の研究(95)(98)(111)(119)(129)(138)(140)(143)が増える傾向がうかがわれる。

ところで，時制(tense)(48)(54)(67)，相(aspect)(33)(55)(60)(67)(92)(105)，法(mood)(46)(51)(85)，態(voice)(38)(39)(69)(75)(108)は従来からも盛んに論じられていたが，ここ 10 年ほど目立った論文が無いようである。敬語(13)(14)(16)(23)(28)(34)(53)(57)も同じ状況である。一方，否定(17)(67)(141)，文法史(9)(41)(132)(139)，方言(3)(10)(13)(14)(16)(28)(143)はそれぞれ 20 年，30 年，40 年以上を経て論文が再び登場し始めた。

以上，『朝鮮学報』の掲載論文を中心に，日本における現代韓国語文法研究の傾向を概観した。文法研究の特徴としては韓国語と日本語の対照研究が多い点をあげることができ，最近の動向としては談話研究が増えたという点である。前者は語学教育と関連性があり，後者は発話の現場における実際的な研究である。いわば両者は韓国語の語学的な「用法」に重点を置いて論じているのである。一方，数 10 年を経て再び研究されるものもあれば，時制，相，法など，いわゆる言語学の「文法」が研究のテーマとして今後扱われる可能性も十分に見出すことができた。だとすると，用法と文法をどのようにあつかうべきか。多角的な視点を持って研究し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がこれからの課題になるであろう。

2

最後に，形態論の観点から活用法について見ることにする。日本では活用を説明するとき「語基」を用いることがある。語基とは用言の語幹が変化すると見なすものだが，この点で語幹は変わらないとする活用法と対立する。この活用法をめぐって多くの議論が起こったが，今までに明確な結論は出ていない。

[表 1]の잡다(つかむ)の活用表を見てみよう。(a)は語幹が変わらないものであ

り, (b)は語幹が 3 つの形に変わるものである。(a)は韓国の標準的な文法に基づく活用法で, (b)は語基を用いた活用法である。語基には「잡-」のように語幹それ自体(第Ⅰ語基),「잡으-」のように으が付く形(第Ⅱ語基),「잡아-」のように아/어が付く形(第Ⅲ語基)の 3 つがある。日本でも(a)の方法で説明する場合がほとんどであり, むしろ(b)は少数派である[6]。

[表1]「잡다(つかむ)」の活用表

	(a)	(b)
	語幹-語尾	語基-語尾
잡고(つかんで)	잡-고	잡-고
잡으면(つかめば)	잡-으면	잡으-면
잡아요(つかみます)	잡-아요	잡아-요

活用表をめぐる議論は語幹の形が変わらないとする立場と, 語幹に「으, 아/어」が付くとする立場に分かれる。前者は用言の一般的な定義にのっとったものであり, 後者は中世韓国語の活用を論拠にしたものである。後者はまた日本語の活用と比較して説明し得るので教育的な側面で有利な点がある。例えば,「書く」の活用を示すと[表 2]の通りである。

[表2]「書く」の活用表

	活用		
書かない	かか ない	kak-a	nai
書きます	かき ます	kak-i	masu
書く	かく	kak-u	Ø
書けば	かけ ば	kak-e	ba
書こう	かこ う	kak-o	u

[表 1](b)の韓国語の「잡-」に母音「으, 아」が結合する点と, [表 2]の日本語の「kak-」に母音「a, i, u, e, o」が結合する点が活用の比較が可能な部分である。

これらの活用法の文法的な正統性に対する議論が続けられてきたが, 明確な結論には至っていない。今後も新たな見解を得るために文法的な議論は続けるべきだが, 現在のところ, これらの活用法が共存しているという状況をありのまま記

6) 発表者の所属する大学では(a)と(b)の両方の活用法で説明している。(a)は韓国で出版された教材や辞書と, 日本で出版された『朝鮮語辞典』(1993),『新版　一冊目の韓国語』(2014/2016)などを用いるとき, (b)は『コスモス朝和辞典　第2版』(1988/1991),『朝鮮語の入門　改訂版』(1981/2007)を用いるとき, それぞれの活用法で説明している。

述す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事実上，一冊の教材や一編の研究論文の中でこの 2 つの活用法を同時に認めて記述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により，活用論については従来の議論が継続して繰り返され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側面から見た場合，日本の韓国語研究と教育において 2 つの活用法を同時に使用する方法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その試みの一つと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韓国語の活用を説明したことがある[7]。ウェブの画面に「語基式」「語幹式」「併記式」という印を設定したのである。例えば，-(으)니까(～から，～ので)の接続方法は，この 3 つの印をそれぞれクリックすることで「Ⅱ-니까」「-(으)니까」「Ⅱ-니까/-(으)니까」と表示されるようにしたのである。紙媒体ではどれか 1 つの方式でしか記述できないが，ウェブ上であればそれぞれの方式に容易に切り替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 2 つの活用法が相互的に同時に使用される場を設定することで今後の活用論に新たな方向性が提示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3

日本で韓国語文法を研究する者は大学生や大学院生，その他に大学などの教育機関で韓国語教育に従事する教員が大部分である。韓国語に関する研究と教育は有機的な関係を持っているはずだが，「研究は研究，教育は教育」というように互いを分離させる傾向がある。今回の調査結果からも分かるように，研究のテーマは教育の現場と密接な関係がある。現実的にも今後は同一の研究者の認識内で研究と教育が互いに歩み寄る必要がある。本稿の 2 章で扱った「語基」は文法研究の立場と韓国語教育の立場の双方の視点から論じた一例であった。

参考文献

五十嵐孔一(2014/2016),『新版　一冊目の韓国語』, 東京, 東洋書店新社.
菅野裕臣(著)/浜之上幸･権容璟(改訂)(1981/2007),『朝鮮語の入門　改訂版』, 東京, 白水社.
菅野裕臣他(編)(1988/1991),『コスモス朝和辞典　第 2 版』, 東京, 白水社.
朝鮮学会(編)(2011),『朝鮮学報総目録　第 1 輯～第 220 輯』, 天理, 朝鮮学会.
油谷幸利他(編)(1993),『朝鮮語辞典』, 東京, 小学館.

7) 東京外国語大学言語モジュール朝鮮語文法モジュールhttp://www.coelang.tufs.ac.jp/mt/ko/gmod/

[表]『朝鮮学報』に掲載された現代韓国語文法研究の論文と研究ノート

NO.	輯	刊行年	題名	著者
(1)	23	1962	朝鮮에서의 漢字語彙에 対하여	洪起文
(2)	24	1962	同義語에 対한 一考察	青山秀夫
(3)	27	1963	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学的研究	梅田博之
(4)	35	1965	主格助詞가成立の過程	浜田敦
(5)	37/38	1966	数詞史考究	劉昌惇
(6)	37/38	1966	朝鮮語の観察	酒井改蔵
(7)	39/40	1966	朝鮮語の色彩形容詞に就いて	青山秀夫
(8)	45	1967	三つの Japanese-Korean Dictionary	青山秀夫
(9)	48	1968	周時経의 国語研究	金敏洙
(10)	48	1968	済州島方言における接尾辞「-아기、-아지、-장이、-아치、-바치」の考察	安田吉実
(11)	49	1968	現代朝鮮語形容詞の形成について	青山秀夫
(12)	49	1968	現代朝鮮語の辞典見出し語における語彙の分布状況	中村暎枝
(13)	51	1969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一)—京畿道驪州邑における実態調査報告—	青山秀夫
(14)	53	1969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二)—京畿道驪州邑における実態調査報告—	青山秀夫
(15)	55	1970	現代韓国語の服飾用語考	梁昊淵
(16)	57	1970	現代朝鮮語の敬語と敬語意識(三)—京畿道驪州邑における実態調査報告—	青山秀夫
(17)	58	1971	韓国語의 否定	申昌淳
(18)	59	1971	現代朝鮮語用言들다の意味·用法について	中川清
(19)	65	1972	現代朝鮮語の擬声語	青山秀夫
(20)	65	1972	現代韓国語의 用言補助語幹「겠」의 意義와 用法	申昌淳
(21)	69	1973	朝鮮語と日本語	梅田博之
(22)	72	1974	朝鮮語の派生擬態語試考	青山秀夫
(23)	73	1974	現代朝鮮語の敬語に関する一考察	油谷幸利
(24)	76	1975	名詞の後につく「나」の文法機能	金吉鎔
(25)	77	1975	意味理論と朝鮮語の意味記述について—朝鮮語と日本語の意味論における対照言語学的考察—	玉城繁徳
(26)	78	1976	朝鮮語の対格助詞「를(을)」について—とくに、その文法機能および意義素を中心に—	奥田一広
(27)	79	1976	朝鮮語の特徴	青山秀夫
(28)	81	1976	大邱方言における「半敬語」について—朝鮮語方言調査報告(Ⅱ)—	大江孝男
(29)	83	1977	韓国語 語彙比較의 問題点	金芳漢
(30)	85	1977	日本語朝鮮語対照言語学の展望	北島静江
(31)	86	1978	韓国感覚語考	梁昊淵
(32)	86	1978	朝鮮語の味覚表現形容詞	前田綱紀
(33)	87	1978	現代韓国語의 動詞分類—aspect 를 中心으로—	油谷幸利
(34)	89	1978	韓国現代敬語法の推移—最近の設問調査をもとにして—	徐正洙
(35)	89	1978	朝鮮語の俚諺の用法について—特定の資料による一考察—	青山秀夫
(36)	90	1979	日本語の副助詞と韓国語の特殊助詞との対照研究(Ⅱ)—その接続機能を中心に—	洪思満

(37)	91	1979	「-어 놓다」と「-어 두다」の意味分析	油谷幸利
(38)	91	1979	朝鮮語の受身と日本語の受身(その一)—「もちぬしの受身」を中心に—	李文子
(39)	94	1980	韓国語使役文誘導制約と意味	金錫得
(40)	96	1980	助辞'와'の問題—共同格助辞'와'の否定と並列助辞'와'の設定—	申昌淳
(41)	97	1980	19 世紀における西洋人の韓国語研究	高永根 (油谷幸利訳)
(42)	98	1981	<研究ノート>マイクロコンピュータによる言語データの収集と整理—朝鮮語処理に対する試み—	油谷幸利
(43)	103	1982	マイクロコンピュータによる朝鮮語の入力と自動印字	油谷幸利
(44)	119/120	1986	数量詞の遊離について—日本語と朝鮮語の対照研究—	塚本秀樹
(45)	126	1988	二重主語構文再考	南基心 (鈴木陽二訳)
(46)	129	1988	<하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用言の mood 形式をめぐって—	野間秀樹
(47)	130	1989	한국어와 일본어의 재귀대명사 비교연구	鈴木陽二
(48)	131	1989	現代朝鮮語動詞の非過去テンス形式の用法について	伊藤英人
(49)	133	1989	朝鮮語の同形異語について	油谷幸利
(50)	133	1989	時間副詞의 時間表示機能에 대하여—「지금」과의 比較를 통한 時間副詞「이제」에 대한 研究—	徐尚揆
(51)	134	1990	<할것이다>の研究—再び現代朝鮮語の用言の mood 形式をめぐって—	野間秀樹
(52)	135	1990	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野間秀樹
(53)	136	1990	日本語と韓国語の聞き手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	梅田博之他
(54)	137	1990	現代朝鮮語動詞の過去テンス形式の用法について(1)—했다形について—	伊藤英人
(55)	138	1991	現代朝鮮語動詞のアスペクト的クラス	浜之上幸
(56)	140	1991	現代朝鮮語の程度副詞について—副詞の<程度>と<様態>の意味を中心に—	徐尚揆
(57)	141	1991	日本語と韓国語の第三者に対する敬語用法の比較対照	梅田博之他
(58)	142	1992	語学研修の方法について—朝鮮語教育の一環として—	大江孝男
(59)	142	1992	現代朝鮮語の「結果相」=状態パーフェクト—動作パーフェクトとの対比を中心に—	浜之上幸
(60)	144	1992	アスペクトとテクストの時間的構成について—時間的局所限定性・タクシス性の観点から—	浜之上幸
(61)	144	1992	「漢字語+시키다」について—再帰性・他動性・使役性・受動性との関わりをめぐって—	柴公也
(62)	148	1993	朝鮮語の用例検索について	油谷幸利
(63)	149	1993	現代朝鮮語의 接続形<-다가>에 対하여—aspect・taxis・用言分類—	野間秀樹
(64)	149	1993	현대 한국어의 시늉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풀이말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徐尚揆
(65)	150	1994	한국어 문법범주의 변화에 대한 연구	권제일
(66)	150	1994	現代朝鮮語の-에서格について	趙義成
(67)	150	1994	物語のテクストにおけるテンス・アスペクト・否定	浜之上幸
(68)	152	1994	現代朝鮮語の接続形Ⅲ-서について	権在淑
(69)	153	1994	韓国語における漢語動詞の受身文について	塚本秀樹他
(70)	153	1994	朝鮮語 CAI の研究	油谷幸利
(71)	154	1995	韓国語 特殊助詞 研究의 한 反省	蔡琬
(72)	154	1995	条件形式「-어(야)」をめぐって—日本語との対照—	金恩希
(73)	155	1995	「-다 보니까」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	柴公也

(74)	157	1995	透明な言語·不透明な言語—韓日の婉曲表現と挨拶表現をめぐって—	李殷娥
(75)	158	1996	<研究ノート>日·韓両語における使役文—使役文を構成する要素の相関関係を手掛かりにして—	林憲燦
(76)	159	1996	現代韓国語'하오体語尾'の形態論的特徴	徐禎穆 (平木葉子訳)
(77)	160	1996	現代朝鮮語の-로格について—単語結合論の観点から—	陳満理子
(78)	161	1996	現代朝鮮語接続形-고について—その意味·用法をめぐって—	鄭鉉淑
(79)	162	1997	「原因·理由」を表わす接続形"-(아/어)서"と"-(으)니까"について—従属節の包含構造を中心にして—	五十嵐孔一
(80)	162	1997	現代朝鮮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動詞の語尾(아)+「내다」を中心に—	李曙洙
(81)	163	1997	현대한국어이 단어결합에 대하여	趙義成
(82)	165	1997	<했겠다>の研究—現代朝鮮語の時間の表現—	村田寛
(83)	165	1997	現代朝鮮語における合成用言について—<用言第Ⅲ語基+用言>の分析—	内山政春
(84)	166	1988	韓国語 統辞構造上의 表現論的 特徴(Ⅰ)	成光秀
(85)	168	1998	<連体形+것 같다>をめぐって—現代朝鮮語のムード形式の研究—	村田寛
(86)	169	1998	現代朝鮮語の用言接続形<-느라(고)>について—「タクシス」と「地と図」の観点から—	五十嵐孔一
(87)	173	1999	辞書検索の指導法について—文末形の場合—	油谷幸利
(88)	173	1999	現代朝鮮語の接続形-어서と-고について	内山政春
(89)	174	2000	尺度名詞 派生과 言語 普遍性의 한 側面	宋喆儀
(90)	175	2000	現代朝鮮語の<-ㄹ>連体形について	村田寛
(91)	176/177	2000	依存名詞만큼について	松尾勇
(92)	180	2001	Ⅰ-고, Ⅲ-서と動詞のアスペクト的特徴との関連性—アスペクト形式による用言分類を通して—	鄭玄淑
(93)	181	2001	接辞「-적(的)」について	松尾勇
(94)	183	2002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한」について	中島仁
(95)	183	2002	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	金珍娥
(96)	184	2002	만들다の格支配構造—人間が主語になる用例を中心に—	油谷幸利
(97)	185	2002	指示詞ユと저の現れ方と知識の共有度について	金善美
(98)	187	2003	"turn-taking システム"から"turn-exchanging システム"へ—韓国語と日本語における談話構造: 初対面二者間の会話を中心に—	金珍娥
(99)	188	2003	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国語の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	金恩愛
(100)	189	2003	이다の省略と縮約—에요か예요か—	油谷幸利
(101)	190	2004	現代朝鮮語の接続形-다가について	内山政春
(102)	191	2004	韓国語と日本語の turn の展開から見たあいづち発話	金珍娥
(103)	195	2005	日本語を母語とする韓国語学習者の誤用分析—해서形と하고形を中心に—	孫禎慧
(104)	196	2005	現代朝鮮語の'그나마'について	五十嵐孔一
(105)	197	2005	現代韓国語の「한다」形と「하고 있다」形について—文の種類と語彙という観点から—	張美仙
(106)	198	2006	接続形式における日朝対照研究—朝鮮語教育の観点から—	油谷幸利
(107)	198	2006	의미 빈도 사전과 어휘 연구	徐尚揆
(108)	198	2006	韓国語の自動受身文と他動受身文—<X-ka [Y-eykey] Z-ka 受身動詞>文と<X-ka [Y-eykey] Z-lul 受身動詞>文を中心に—	林田
(109)	199/200	2006	現代朝鮮語の丁寧化のマーカー"-yo/-iyo"について	野間秀樹
(110)	199/200	2006	만들다の格支配構造(2)—人間以外が主語になる用例を中心に—	油谷幸利

(111)	202	2007	談話状況を考慮した韓国語文法教育	白峰子 (松尾勇訳)
(112)	203	2007	単語結合論的観点から見た韓国語の「타다」と日本語の「乗る」—対照語彙論の構築のために—	安垠姫
(113)	204	2007	現代朝鮮語の‘나마’について	五十嵐孔一
(114)	205	2007	韓国語 助詞‘만’과 ‘도’의意味論	林東勲
(115)	206	2008	朝鮮語 web 辞典の設計について	油谷幸利
(116)	207	2008	現代韓国語と日本語における「이/この+X」の範疇解釈を導く名詞と述語について	金善美
(117)	208	2008	結合関係による‘아래’と‘밑’の意味研究	유현경他(岡 裕美訳)
(118)	208	2008	韓国語の文末表現「것이다」のスコープ機能	丁仁京
(119)	210	2009	現代韓国語の談話における無助詞について—主語名詞句を中心に—	金智賢
(120)	211	2009	朝鮮語 web 辞典について—用例辞典から学習辞典へ—	油谷幸利
(121)	211	2009	意味グループをなす内外空間名詞「안, 속, 밖, 겉」の意味用法について	金恩愛
(122)	212	2009	現代朝鮮語研究の新たなる視座<言語はいかに在るか>という問いから—言語研究と言語教育のために—	野間秀樹
(123)	212	2009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と非修飾名詞の共起に関する研究—hanun(……する)連体形を中心に—	金民
(124)	212	2009	韓国語の先語末語尾‘-겠-’の対人的機能について—ポライトネス効果を中心に—	李憲卿
(125)	213	2009	日本語と韓国語の文末における緩衝表現	金珍娥
(126)	216	2010	韓国語の終結語尾‘-ㄴ걸’‘-ㄹ걸’の研究—話し手が言及する情報と統語形式との関連—	丁仁京
(127)	216	2010	現代韓国語の先語末語尾{-겠-}の文法的機能について	全恵子
(128)	217	2010	位置の名詞と属格	矢野謙一
(129)	217	2010	<非述語文>の現れ方と discourse syntax—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から—	金珍娥
(130)	222	2012	現代朝鮮語の“連体形＋것같다”形について—<“-ㄴ가보다”形>との比較を中心に—	金美玹
(131)	224	2012	可能形式「할 수 있다/없다」の用法について—<ちからの可能>と<蓋然性の可能>—	高恩淑
(132)	224	2012	<研究ノート>『우리말본』の「씨갈」について(1)	五十嵐孔一
(133)	225	2012	推量を表す‘-겠-’のモダリティ機能—‘-(으)ㄹ 것이-’と交替できない用例を通して—	李憲卿
(134)	225	2012	現代韓国語の動詞分類—<-고 있->と<-어 있->の意味分析を基に—	金京愛
(135)	226	2013	廉想渉の言語意識—ハングル綴字法と漢字に対する認識を中心に—	金慶洙 (大川大輔訳)
(136)	231	2014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と非修飾名詞に関する研究—‘han’(…した)連体形と高い頻度で現れる名詞—	金民
(137)	233	2014	現代韓国語の<있다>構文について—日本語の「ある/いる」構文との対照言語学的考察—	韓必南
(138)	235	2015	日本語と朝鮮語の談話における発話連鎖—「質問」と「応答」の連鎖を中心に—	髙木丈也
(139)	236	2015	<研究ノート>『우리말본』の「씨갈」について(2)	五十嵐孔一
(140)	238	2016	人は発話をいかに始めるか—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に照らして—	金珍娥
(141)	238	2016	韓国語における「아니, 아니다」の否定に関する研究	韓松花
(142)	239	2016	現代韓国語の接続形「-고 보니까」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다 보니까」、「-아 보니까」、「-고 나니까」との対照を通じて—	柴公也
(143)	241	2016	遼寧省地域朝鮮語における友人談話の発話形式—基層方言との関係という観点から—	髙木丈也
(144)	243	2017	韓国語の動詞먹다(mekta)の研究	高權旭
(145)	246	2018	韓国語における助詞の結合形態「에를/엘」の用法と構成	小島大輝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況と展望

蔡 京 希 (培花女子大)

1. 海外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

国際交流基金(ジャパンファウンデーション)は、海外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に、3年に1度「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を実施している。2017年度に公表された最新の【2015年度「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結果】によると、日本語教育を行っている海外の機関数と教師数は増加する一方、教育機関で学んでいる日本語学習者の総数は減少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表1＞ 国際交流基金「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2009・2012・2015)」結果の年度別比較表

	2009年度調査結果	2012年度調査結果	2015年度調査結果
機関数	14,925機関	16,046機関	16,179機関
	2006年度比 1,286機関(9.4%)増	2009年度比 1,121機関(7.5%)増	2012年度比 133機関(0.8%)増
教師数	49,803人	63,805人	64,108人
	2006年度比 5,482人(12.4%)増	2009年度比 13,975人(28.1%)増	2012年度比 303人(0.5%)増
学習者数	3,651,232人	3,985,669人	3,655,024人
	2006年度比 671,412人(22.5%)増	2009年度比 334,437人(9.2%)増	2012年度比 330,645人(8.3%)減

* 2011年度報告書(2009年度調査分)・2013年度報告書(2012年度調査分)・2017年度報告書(2015年度調査分)による。
* 調査対象: 2009年度調査(133の国・地域)・2012年度調査(136の国・地域)・2015年度調査(137の国・地域)
* 世界全体: 2006年度機関数(13,639機関)・教師数(44,321人)・学習者数(2,979,820人)

2.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

＜表2＞国際交流基金「韓国日本語教育機関調査(2009・2012・2015)」結果の年度別比較表

	2009年度調査結果	2012年度調査結果	2015年度調査結果
機関数	3,799機関	3,914機関	2,862機関
	2006年度比 220機関(6.1%)増	2009年度比 115機関(3.0%)増	2012年度比 1,052機関(26.9%)減

教師数	6,577人	17,817人	14,855人
	2006年度比 855人(11.5%)減	2009年度比 11,240人(170.9%)増	2012年度比 2,962人(16.6%)減
学習者数	964,014人	840,187人	556,237人
	2006年度比 53,057人(5.8%)増	2009年度比 123,827人(12.8%)減	2012年度比 283,950人(33.8%)減

* 2011年度報告書(2009年度調査分)･2013年度報告書(2012年度調査分)･2017年度報告書(2015年度調査分)による。
* 2006年度調査分: 韓国は機関数(3,579機関)･教師数(7,432人)･学習者数(910,957人)
* 2009年度調査分: 韓国は機関数(1位)･教師数(2位)･学習者数(1位)
* 2012年度調査分: 韓国は機関数(1位)･教師数(1位)･学習者数(3位)
* 2015年度調査分: 韓国は機関数(1位)･教師数(2位)･学習者数(3位)

＜表3＞ 韓国における教育段階別日本語教育機関数･教師数･学習者数(国際交流基金)

	調査年度	初等教育	中等教育	高等教育	その他の教育機関
教育機関数	2009	3(0.08%)	2,825(74.36%)	406(10.69%)	565(14.87%)
	2012	5(0.13%)	2,762(70.57%)	476(12.16%)	671(17.14%)
	2015				
教師数	2009	3(0.05%)	3,900(59.30%)	1,501(22.82%)	1,173(17.83%)
	2012	5(0.03%)	3,724(20.90%)	1,858(10.43%)	12,230(68.64%)
	2015				
学習者数	2009	557(0.06%)	871,200(90.37%)	59,401(6.16%)	32,856(3.41%)
	2012	1,793(0.21%)	694,036(82.61%)	57,778(6.88%)	86,580(10.31%)
	2015	1,160(0.21%)	451,893(81.24%)	51,963(9.34%)	51,221(9.21%)

* 2015年度教育機関数及び教師数の教育段階別調査統計は提示されていない。
* 中等教育やその他の教育機関の減少幅が大きい。

2. 1 初等教育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

教育段階別に見ると、【2015年度「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結果】では、前回の調査と比較して、高等教育や中等教育においては、機関数、学習者数は減少あるいは横ばいという状況が見られたのに対し、初等教育においては、＜表4＞から分かるように機関数、教師数、学習者数がいずれも大きく増加した。

＜表4＞ 初等教育における海外日本語教育機関数･教師数･学習者数(国際交流基金)

	2009年度調査結果	2012年度調査結果	2015年度調査結果
機関数	663機関	907機関(2009年比36.80%増)	1,124 機関(2009年比23.93%増)
教師数	932人	1,271人(2009年比36.37%増)	11,827人(2012年比930.53%増)
学習者数	142,568人	169,881人(2009年比19.16%増)	211,195人(2012年比24.32%増)

一方、＜表3＞「韓国における教育段階別日本語教育機関数･教師数･学習者数」からも分かるように、韓国における初等教育では、機関数、教師数、学習者数全体の規模は小さいものの微増となっている。これは、韓国では英語教育の早期化により、小学校3年生から英語を正規科目として取り入れた政府の教育政策との関連性が高い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2. 2 中等教育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

2. 2. 1 中学校

中学校の日本語学習者に関しては、2009年度の421,631人(中等教育において48.40％の占有率)から2012年度267,218人(中等教育において38.50％の占有率)に減っており、機関数も2009年度929機関(中等教育において32.89％の占有率)から2012年度881機関(中等教育において31.90％の占有率)に減少している。つまり、学習者数が154,413人･36.66％、機関数は48機関･5.17％減少しており、特に学習者数が大幅に減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2012年度は全国の中学校の14％で日本語の授業を取り入れており、中学生全体の7.3%前後が日本語を学んでいることになる。残念ながら、2015年度の統計資料は提示されていない。

2. 2. 2 高等学校

2009年度の高等学校の日本語学習者は449,569人(中等教育において51.60％の占有率)から2012年度426,818人(中等教育において61.50％の占有率)に、機関数は2009年度1,896機関(中等教育において67.11％の占有率)から2012年度1,881機関(中等教育において68.10％の占有率)に減っており、学習者数が22,751人･9.49％、機関数は15機関･0.79％で微減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表5＞ 大学修学能力試験における**第二外国語/漢文**の選択者数(％)

○年度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試験実施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ドイツ語	3.9	2.9	2.7	2.9	3.4	2.9	2.8	2.2	1.9	1.89
フランス語	4.3	3.5	3.2	3.6	4.0	3.3	2.8	2.3	1.9	1.82
スペイン語	2.5	3.1	3.1	3.7	4.2	3.1	2.9	2.4	2.0	1.99
中国語	13.5	10.5	9.3	9.1	10.6	19.6	7.8	6.2	5.5	5.33

日本語	27.5	21.2	18.6	17.0	17.2	13.1	11.2	9.1	8.3	8.59
ロシア語	1.9	2.7	3.0	4.2	5.7	2.9	1.8	1.5	1.4	1.44
アラビア語	29.4	42.3%	45.7%	45.8	41.1	16.6	20.0	51.6	69.0	71.42
ベトナム語						38	42.4	18.4	5.5	3.10
漢文	17.0	13.9	14.4	13.7	13.8	10.5	8.3	6.3	4.5	4.42
合計人数 %	99,693 17.8%	120,817 18.9%	107,377 16.1%	86,575 13.5%	90,277 13.5%	79,533 12.2%	84,044 13.1%	90,752 14.4%	94,358 15.6%	92.831 15.6%

* 試験実施年は試験が行われた年を表す。(○○年11月実施)(韓国教育課程評価院報道資料)

＜表5＞に表れている分布率は、高校での第二外国語受講占有率とは異なる現象を見せている。

＜表6＞ 年度別高等学校**第二外国語/漢文**の学習者数

年度別		ドイツ語	フランス語	スペイン語	中国語	日本語	ロシア語	アラビア語	ベトナム語	漢文	合計人数
2008	学校数	190	165	24	781	1214	7				
	学級数	688	951	115	4,262	9,026	31				
	学生数	21,004	19,973	3,885	121,822	296,457	781				463,922
2009	学校数	159	157	19	826	1,266	5				
	学級数	586	692	93	3,826	8,806	24				
	学生数	19,008	19,959	3,510	130,218	306,534	835				480,064
2010	学校数	119	126	20	688	1044	8				
	学級数	438	620	83	3,457	7185	25				
	学生数	12,579	15,058	2,390	104,950	237,205	755				372,937
2011	学校数	128	144	29	911	1,322	8	3			
	学級数	495	635	129	4,431	8,749	40	9			
	学生数	14,206	18,624	1,987	144,149	292,899	800	93			472,758
2012	学校数	56	102	21	661	887	3	1		567	
	学級数	215	279	52	2,029	3,703	9	2		3,741	
	学生数	6,524	7,865	1,514	61,820	121,114	257	12		131,383	330,489

* 2015年度以降の学校数･学級数･学生数の統計資料は提示されていない。(韓国教育開発院教育統計サービス資料)

＜表7＞ 年度別大学修学能力試験受験者数の増減

○年度 (試験実施年)	受験者数 (人)	前年度比受験者数(増減)		第二外国語/漢文選択者数		
		人	%	人	全体受験者比%	前年度比(人/%)
2012 (2011.11)	693,631人					
2013 (2012.11)	668,552人	25,109人減		90,277人	13.5%	

2014 (2013.11)	650,747人	17,775人減	2.7%減	79,553人	12.2%	10,744人/11.9%減
2015 (2014.11)	640,621人	10,126人減	1.6%減	84,044人	13.1%	4,509人/5.7%増
2016 (2015.11)	631,187人	9,437人減	1.5%減	90,752人	14.4%	6,708人/8.0%増
2017 (2016.11)	605,987人	25,199人減	4.0%減	94,358人	15.6%	3,607人/4.0%増
2018 (2017.11)	593,527人	12,460人減	2.1%減	92,831人	15.6%	1,527人/1.6%増

* 韓国教育課程評価院報道資料(2013.9.7/2014.9.13/2015.9.12/2016.9.10/2017.9.11)

2. 3 高等教育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

＜表8＞ 高等教育における大学日本語関連学科数(韓国教育開発院教育統計サービス資料)

年度別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大学	100	101	105	105	104	101	105	109	112	112
短大	71	77	73	73	76	66	59	54	50	46

日本語関連学科の総在籍学生数は、1999年の調査では21,658名(大学12,351/短大9,307)であったのが、2009年は25,999名(大学19,177/短大6,822)、2011年は28,731名(大学21,544/短大7,187)で、1999年に比べて2011年には約133%増加している。一方、2017年度は19,041名(大学15,530/短大3,511)で、2011年に比べて2017年には約34%も減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

＜表9＞ 短大の外国語関連学科数·学生数·入学定員(韓国教育開発院教育統計サービス資料)

	専攻	学科数	在籍学生数	入学定員	志願者	入学者
2011 年度	日本語	73	7,187	2,380	18,541	2,614
	中国語	57	4,601	1,610	15,491	1,715
	英語	82	7,952	2,503	25,705	2,945
	ヨ·他	8	718	143	496	306
2012 年度	日本語	76	6,464	1,867	13,386	1,943
	中国語	53	4,507	1,425	12,747	1,572
	英語	82	7,366	2,183	21,526	2,617
	ヨ· 他	11	935	306	908	289
2017 年度	日本語	46	3,511	897	9,195	990
	中国語	40	3,642	1,064	9,422	1,161
	英語	62	4,047	1,027	10,911	1,163
	ヨ· 他	8	236	33	157	40

* 全般に外国語関連学科数·学生数·入学定員などが大幅に減少している。

＜表10＞大学の外国語関連学科数·学生数·入学定員(韓国教育開発院教育統計サービス資料)

	専攻	学科数	在籍学生数	入学定員	志願者	入学者
2011 年度	日本語	89	21,544	3,026	31,247	3,321
	中国語	113	26,020	3,984	44,815	4,367
	英語	208	52,441	7,096	88,337	7,810
	ヨ·他	187	34,955	5698	68,835	6,109
2016 年度	日本語	112	17,043	2,239	17,300	2,436
	中国語	149	25,418	3,214	28,727	3,484
	英語	225	46,496	6,292	57,095	6,924
	ヨ· 他	217	32,543	4,712	45,604	5,110
2017 年度	日本語	112	15,530	1,889	15,781	2,063
	中国語	151	23,470	2,721	24,771	3,080
	英語	226	42,787	5,296	46,535	5,883
	ヨ· 他	233	31,531	4,304	43,515	4,848

* 全般に外国語関連学科数は増えたが、学生数·入学定員などが減少している。

▸**大学院**:2017 年現在、大学院の修士課程に設置している日本語関連研究の学科数は 34/在籍学生数は 323 人で、博士課程の学科数は 23/在籍学生数は 102 人である。

2. 4 その他の教育機関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状況

2011.3.11の東日本大震災以降、韓国では日本語の学習熱が急速に冷え込んだ。2012年度の日本語関連学科の入学率や、大学の日本語専攻者の数、教養科目の履修者の数も大きく落ち込み、民間の語学学校(学院)などの教育機関での日本語科目の講座が閉講になる事態が起こった。

＜表11＞「民間の学院の日本語受講生年度別増減率」からも分かるように、韓国最大手の日本語学校の受講生データによると、2010年の総受講生数を100%とすると2011年の総受講生数は84.47%、2012年は68.18%に留まっている。このデータからも3.11を境にして日本語教育の需要が急落したことが分かる。一方、2015年度は104.00%で2010年の基準点までの回復を見せた後、2016年度143.69%、2017年度121.79%、2018年度111.65%と日本語学習者が再び増加する勢いを見せている。さらに、新たな傾向として、日本の大学受験を目指すEJU受講生が急増したのもその特徴の一つである。2015年度を基準点としたEJU受講生の前年比増減率は、2016年度163.03%、2017年度152.10%、2018年度152.65%となるが、このようなことは民間の学院としても好ましいとは言えない現象であろう。

＜表11＞ 民間の学院における日本語受講生年度別増減率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受講生前年比増減率	100%基準	84.47%	68.18%	93.17%	90.06%	104.00%	143.69%	121.79%	111.65% *1/4分期

* 1年4分期:1月−3月/4 月−6月/7 月−9月/10月−12月

3. おわりに

韓国は、2006～2010年に実施された「英語教育活性化5カ年総合対策」をはじめ、公教育制度の変遷の中で英語教育の早期化が強化されてきた。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数および日本語教育全般に影響を与える要因はいくつか考えられる。

・政府が定める教育課程/政策

・大学入試での第二外国語科目/日本語の扱い

・東日本大震災・原発事故や日本の経済状況、日韓の政治外交関係の悪化等

・少子化現象背景

いま韓国語・中国語母語話者に対する日本語教育に求められるもの
―認知言語学をふまえて―

守屋三千代（創価大）

1. はじめに

周知の通り、日本ではグローバル化が叫ばれるようになって久しい。この背景には日本の少子高齢化に伴う深刻な労働力不足への危惧がある。文科省をはじめ、各省庁による2020年を目途とした「留学生30万人計画」(2008)のもと、各大学もグローバル化を推進するとともに、企業も留学生・外国人の採用枠を積極的に拡大しており、これに伴い多くの留学生が日本企業への就職を希望するようになった。企業は彼らに対して即戦力として働ける、より高度の日本語力と異文化対応力を求めるようになり、この動きは日本語教育の分野に脅威を与えている。

一般に外国人を対象とした上級の日本語力とは、日本語能力検定試験のN1合格がこれに相当するとされてきた。だが、N1レベルの日本語力は仕事を進める上では不十分とするのが、もはや企業間の常識となっている。留学生はエントリー・シートや履歴書が的確に書けるだけでなく、企業インターンシップでプレゼンテーションや議論ができる能力が求められ、採用試験では日本人の大学4年生に相当する日本語力が問われ、就職後には異文化対応力が求められる。ようやく就職した外国人が異文化摩擦が原因で離職したと思われるケースが少なくない中、こうした変化に対して、日本語教育は十分な対応ができない状況にある。確かに国内の日本語教育の分野では、職場での異文化摩擦を想定し、それを回避するヒントを提供するような、ビジネス日本語の教材が続々と開発・刊行されているが、特定の言語話者を想定した異文化摩擦の事例を、異なる言語を母語とする全ての学習者に当てはめ、応用を図るのは無理であろう。

以上をふまえ、日本語話者と韓国語・中国語の話者が日本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う際の摩擦の要因と、その回避に向けた日本語教育のあり方を、認知言語

学の立場から考察する。

2. 認知言語学の事態把握：事態の主観的把握VS客観的把握

認知言語学は、言語形式と意味の対応だけでなく、その背後で言語活動を統括する母語話者の存在に着目する。話者がいかに言語化の対象となる事態を把握し、それを具体的にどう言語化するか、そしてその仕方が言語話者によりいかに異なるかを考察する。日本語教育に応用する際も、日本語母語話者と学習者の言語の母語話者とで、認知的にどう異なるかに大きな関心を寄せる。学習者は日本語では①.一人称である「私」をあまり言わない、②.終助詞がよく使われる、③.敬語が必要となる、④.授受動詞が多用される、⑤.自動詞表現が好まれる、などの点を疑問に思うことがあるが、いずれも認知言語学的な特徴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すなわち、日本語話者は言語化する事態に対し、自らを客体化・抽象化することなく、従って自身を代名詞化せず、主観的に事態を捉え(事態の主観的把握)、主観的に捉えたままに言語化することを好む傾向がある(①)。同様に、聞き手も主観の延長と捉えて言語化せず、主観の共有を目指しながら、協同的に会話を構成する。この主観的把握の傾向により、事態に臨場したまま事態を表出的に言語化する点で、発話は内言的・独話的となる。その結果、発話が聞き手向けか内言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しばしば終助詞を必要とする(②)。客観的事態把握の傾向のある、例えば英語や中国語の話者の場合、話し手も聞き手も抽象化され、言語化されて、それを踏まえて対等な会話が構成される。この相違の結果、日本語話者は「私」を繰り返す学習者の発話に対し、自己主張が強いと感じやすく、逆に客観的把握の高い言語話者は、日本語話者の発話が曖昧で苛立つことがある。終助詞でも必要度が高くなるのは「ね」であるが、これは共同主観性を前提とする。問題はその共同主観性の成立の可否が、話し手と聞き手の間の社会的認知の仕方に拠ることである。例えば、授業中に先生のお腹が鳴った場合、学生が親しみを込めて「先生はお腹がすきましたね、後で一緒にご飯を食べましょう」と言ったら、それは多くの日本人の先生にとり私的領域を超えた不躾な発話となる。これらを含め日本語話者の社会的認知の傾向は、話し手と聞き手との社会的関係性を言語的に明示することを志向するため、敬意や謙譲、丁寧さの表現、親疎や男女の言葉など、社会的

認知を表す形式を細かく使い分ける(③)。

主観的把握の傾向の強い日本語話者は、話し手が自身を抽象化することを回避する一方で、話し手自身の事態への関与―主に感情・心理的変化―の言語化に関心が向かうため、話し手に関わる事態は、受益表現や受身表現、「来る」などの趨向性の動詞などを伴って言語化され、その多くが文法化されている(④)。この点で、日本語話者は話し手中心的傾向が強い言語だと言える。一方、多くの客観的事態把握の傾向の言語話者は、受け手優先的表現よりも、対象化された行為者がその意志で行為を実現するという表現を好む。そのため「いろいろお世話をな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のように、教師が世話をしたという客観的事実に関し、その行為に対して敬語を用いた上で、謝意を述べるのが適切であると考えた結果、受益表現を落としやすい。こうした誤用は、日本語話者には受益表現とそれに伴う恩恵意識を欠落させた文と映り、無礼な発話だと感じやすい。このように日本語話者は自身を事態の受け手という認知者と捉え、それに基づいた表現を好む結果、行為者の意志によって行為を実現するという表現よりも、事態の趨勢によって行為が実現し、その結果が話者に残る、という表現に価値を見出す傾向を持つ。これはナルをはじめとする自動詞による自発表現を好む傾向として現れる(⑤)。その典型例に「このたび結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という表現がある。これは客観的把握の傾向のある話者には奇妙な文と映るが、日本語話者には「このたび結婚することにしました」とすれば、話し手自身をとりまく事態の流れに逆らって、結婚を実行するという意味を含む。

中国語話者は上の客観的把握の話者にほぼ相当する。問題は韓国語話者の場合である。①.韓国語話者は日本語話者よりも一・二人称を言語化する傾向があり、これは話し手・聞き手を客体化し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②.韓国語では文体が発達しているが、日本語のような聞き手目当ての指標を必要とせず、対等な会話が構成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③.韓国語も敬語が発達しているが、社会的関係やその場の状況に応じて使い分ける日本語の相対敬語と異なり、年齢の上下など、より客観的基準に基づく絶対敬語である、④.韓国語にも授受動詞はあるが、「クレル」や「～してモラウ」の形式を欠く点や受動表現を用いない傾向から、日本語に比べ話し手中心性が希薄だと考えられる。⑤.韓国語もナル相当動詞を有するが、日本語の機能動詞がスルだけであるのに対し、事実関係に応じてスルとナルを使い分

ける。このように、韓国語は類型論的に見れば日本語と共通点も多いが、事態把握の点では客観的把握の傾向が顕著であり、中国語話者により近いことが予想される。これは我々が互いに見落としがちな事実である。

3. 社会言語学的特徴：高コンテキスト的言語VS低コンテキスト的言語

3. 1.「おばあさんが横断歩道で困っていたので、手を引いてあげました。」

上の文は『日本語文型辞典』の「～してあげる」の例文の一つであり、極めてコンテキストに依存した文である。日本語話者はこの文を読むと、「横断歩道で渡れなくなって困っているお婆さんがいたので、(読み手は)彼女の手を引いて一緒に渡ってあげた」というようにコンテキストを補完し、かつ自身がその事態に臨場していると解する。これは日本語が高コンテキスト的であり、かつ話者の主観的把握の傾向が強いことによる。この文を中国語に訳す際は、必要な単語を補う必要があるが、それは中国語が低コンテキスト的言語だからである。韓国語話者には上の文は理解し難いものではなく、これは日本語と同様、高コンテキスト的言語である可能性を示唆する。ただし、韓国語話者の読み手は、場面を補って理解するが、その場面には自身は臨場しない、つまり主観的把握の傾向は示さない可能性がある。問題は、日本語のような高コンテキスト的言語の発話は、低コンテキスト的言語の話者には曖昧で、わかり難いという点である。日本の会社では、「例のあれ、どうなった？」「そこを何とか」「宜しく」などの高コンテキスト的表現は日本人同士でも曖昧でわかり難いため、職場では不適切だと言われるようになったが、現実にはまだまだ消えない、こうした発話がいかに外国人に対して、わかり難さという異文化摩擦を引き起こす可能性を孕んでいるか、日本語母語話者は気づく必要がある。

3. 2. 学生のメール「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かったので、他の先生に印鑑をお願いしました」

ある留学生がゼミの日本人教員に約束した時間に会えず、必要な書類に認印をもら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急いで提出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他の教員に認印をもらって提出した。そのことを上のようにその教員に報告したら、「何と失礼な

言い方か」と叱られたことがある。客観的事態把握・低コンテキスト的表現言語の傾向を持つ言語話者の場合、相手が先生だから、自分は敬語を用いて、事実関係を正確に伝えたと考えており、なぜ叱られるのか理解できない。一方、主観的事態把握・高コンテキスト的表現の傾向を持つ日本語話者は、自分が不在だったことが、他の教員を煩わせる原因となったと言わんばかりの表現だと感じ、不快になるのである。この場合、「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かったようなので」と、話し手の責任において不在と判断したという表現を選べば、日本語話者には摩擦は生じない。だが、この学生にしたら「先生がお留守のようだった」と推量表現を用いることは、よく確認もせずに不在と断定したことを意味し、それは選びたくない表現であろう。なお、韓国語話者からは中国語話者とほぼ同様の回答が得られたが、「ようだ」のような表現を伴うことの意味も理解可能という回答を得た。

4. おわりに

異文化間の摩擦は、話し手が使用言語の母語話者か否かに限らず、聞き手がその発話をいかに受けとめたかによって起きる。問題のない言葉であれば、摩擦が生じないとは限らない。認知言語学を日本語教育に応用した結果、自然な日本語を生成する上のヒントが明らかとなってきたが、聞き手が異文化摩擦を最終的に認定するのだとしたら、今後は相手の発話の意図した意味を、相手の事態把握に即して察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自分はこう言う言語の母語話者であるから、このように相手の発話を受けとめる傾向がある、A語の母語話者ならば、このように事態を捉えて発話する可能性があると推測するなど、各々が心得ていれば、摩擦は中和されよう。そのためには、異文化理解の要点となる事態把握や高低コンテキストというものについて理解を図りながら、異文化教育を進めていくこと、そして過渡期である今は話し手と聞き手の双方の仲立ちとなる、異文化の架け橋―メンター―を養成することが急務であると考える。

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況と課題、展望

徐 一 平（北京外大）

一、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概況

1949年新中国成立して以来、日本語教育はずっと外国語教育の中で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た。多くの総合大学や外国語大学の中では、50年代の初めころに、日本語専攻を設置していた。

しかし、「文化大革命」の中で、このような教育はほぼ中断してしまい、再開されたのが1972年日中国交回復された以降であった。

21世紀に入ってから、中国の日本語教育の規模がますます拡大され、教育部の統計によれば、中国の四年制大学1117か所の中で、日本語専攻が設置されている大学は、2015年現在、506大学になっているという。

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の調査によれば、この506大学の中の6割近く、約353大学が、2000年以降に開設されたのである。21世紀に入ってから、中国の日本語教育の規模がますます拡大され、教育部の統計によれば、中国の四年制大学1117か所の中で、日本語専攻が設置されている大学は、2015年現在、506大学になっているという。

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の調査によれば、この506大学の中の6割近く、約353大学が、2000年以降に開設されたのである。その中の特徴としては、大学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規模が一番大きいということである。

大学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数は674,005人(60％以上、世界平均は9％)、日本語教育機関は1,153ヶ所、日本語教師は11,271人である。これらの数字から見れば、中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は規模が大きく、特に大学の日本語教育は重要な地位を占めている。

最近、中国日本語教育界における二つ大きな事件:

『尋常高等学校日本語課程標準』の頒布と『普通高等教育本科専攻類教育質量国家標準』の制定

二、高校日本語課程標準の改訂

以下の文献を参考にした

『中国学生発展核心素养体系』(2014−2015)　『普通高中課程方案(改訂稿)』(2014)『アメリカ外国語学習スタンダード』(1996)『CEFR』(2001)『日本の学習指導要領(高校)』(2009)『JF日本語教育スタンダード』(2010)『アメリカ各州共同核心スタンダード』(2010)『JLC日本語スタンダーズ2011改訂版』『外国語学習のめやす』(2013)『オーストラリアスタンダード』(第二外国語英語、中国語、日本語)(2015)

「核心的素養」に対する理解

21世紀における情報化社会と新しい経済モデルのもとで、人材育成の方法に関する再思考

複雑で、不確定的な条件の下で、如何に問題を発見し、それを解決するかの総合的な素質的な問題

今までのような単純的な学科知識だけでは解決できず、学際的な総合能力の養成が必要

日本語学科の革新的な素養は、「言語能力」「文化意識」「思考資質」「学習の力」から成り立ち、お互いに関連しながら、日本語学科の人材育成の根本である。

三、大学日本語課程国家標準の制定

中国史上初の専攻別教育基準、中国語では“国標”と略し、ここでは「基準」と略称する。92の大類別　587専攻をカバー

各専攻の教育内容、学科の構成、育成目標

1　学生を中心に教員が如何に教えるかから学生が如何に学ぶかへ

2　結果重視　社会のニーズ　国際社会、就職、社会で活躍の能力

3　改革を持続的に推進

- 内容

1、概説　学科基礎　育成目標

2、適用範囲と専攻

3、育成目標

4、育成基準　学制　学位　履修時間　単位数

5、教員　基本人数　構成　出身学科　研修

6、設立条件　教室　、図書、設備、経費等

7、質保障　評価

8、付録　知識構成　講義構成

- 具体的な要求:

日本語人材育成の具体的な目標として、知識、素養、能力といった具体定期な要求を明確にした。

- 素質的な要求
- 知識としての要求
- 能力
-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キーワード:①効果、②その場相応しい

四要素:知識、技能、態度、意識

- 人材育成の多様性

学術型人材、応用型人材

四、核心的素養の確立から日本語教育を考える

- この二つの標準の発表により、日本語教育はどのような人材を養成するのかを改め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 特に「核心的素養」の養成により、学生の学習方法の変化を促進し、また教師の教育理念と教育方法、教育ストラテジーの変化も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このような標準の指導の下で、新しい教材の開発も期待される。
- もっとも重要なことは、如何に学習の全過程の中で、能力育成を貫くことである。
- もっとも肝心なことは、如何に「知識伝授」の教育を「精神育成」の教育に変えることである。
- われわれの目標は、学生を社会発展のニーズに応えられる人材に育て上げることである。

東アジア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現況と展望

李 吉 遠（東亜大）

1. はじめに

世界文明史的に転換の時代である21世紀は、交流と融合で創造される新たな文明生成のグローバル時代といえる。また、個人と個人、国家と国家が相互依存し協力することで共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代でもある。このような時代に内から外へ開いた外国語や外国文化に関する好奇心と教育の必要性は求められており、外から内への言語文化に対する受容と教育の重要性も時代的課題として捉らえられている。

本稿では、韓国における言語、歴史、地理、政治、経済、社会、文化など、様々な分野において韓国固有のものを研究･啓発する韓国学のうち、韓国の言語に関して、特に韓国語教育に関する東アジアの現況と展望について眺望したい。

2.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韓国語教育

(1)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

韓流ブームと日韓ワールドカップ(2002年)を起点に、韓国語教育は刮目に値する成長を重ねてきた。各大学における専攻韓国語課程の設置、教養韓国語課程の拡大、専任教員の人数が増加した(日本語母語話者の韓国語教員の比率は少なく、専攻として日本語及び日本文学専攻者の比率は多いことが確認された)。韓国語学習者における韓国語学習の動機が旅行や単位の取得などと、韓国語の活用の動機付けが低い点も示唆に富む。

2012年、専攻課程(韓国語)国立大学7か所、公立大学4か所、私立大学11か所、短期大学1か所と、計23か所の大学に設置された。

1995年、教養科目(韓国語)全大学の25.3%/2003年47.7%(702か所の大学のうち335か所)

2002年、教養科目―ドイツ語(577か所で84.1%)、中国語(568か所で82.8%)、フランス語(543か所で79.2%)、韓国語(322か所で46.9%)、スペイン語(240か所で35.0%)、ロシア語(189か所で27.6%)、ラテン語、イタリア語、アラビア語(44か所で6.4%)

2012年には教養科目(韓国語)が全大学の50%以上の大学において開設された。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現況としては、韓国語教員の任用の問題(専攻や国籍)、専任教員が不足している状況、韓国語教育の研究や実践研究(教材や教授法の開発など)が不足し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

⑵ 中国のおける韓国語教育

中国における韓国語教育は1945年の当時、中国の首都であった南京の国立東方語文専門大学に韓国語学科を開設したことを起点に始まった。韓中修交以前の韓国語教育は量的には大きく活性化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1980年末期まで量的な変化は見られなかった。韓中修交を起点に韓国の企業が中国に多く進出し、韓国語の人材の需要が急増して、中国の大学に韓国語学科が続々開設され始める。この時期、韓国語学科の開設は韓国との経済交流が最も頻繁であった北京、上海、天津、山東、遼寧などの地域に偏っていた。そこで韓国との交流が次第に活性化されて韓流ブームが中国全地域に広がり、各地域の大学の韓国語学科が開設され、韓国語居幾は量的な側面から飛躍的な発展を遂げた。

2012年の統計によると、中国で韓国語専攻を開設した大学は117か所であり、在学者数はおよそ35,000人に上る。そのうち修士課程を開設した大学は27か所、博士課程を開設した大学は7か所である。

中国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当面の課題としては、韓国語教育学の学問的土台の構築と韓国語教育の多様化を目指すべきであること、韓国語の高級人材の養成と韓国語教育・力量の結集などが問題点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

⑶ 香港における韓国語教育

韓国語/韓国学教育機関を見てみると、学部の専攻課程が開設されている大学は香港城市大学の他に香港大学の2か所であり、副専攻課程は香港城市大学、香港大

学、香港理工大学、香港中文大学の4か所に開設されており、副学士(高級学位を含む)課程は香港城市大学専門学校と香港中文大学専業進修学院、そして最近開設された香港大学専業進修学院までの3か所で運営している。香港の現地人が運営している韓国語の塾とその受講者数も年に増加しつつある。

⑷ 台湾における韓国語教育

台湾に韓国語文学科または韓国語組が開設されている大学は国立政治大学、中国文化大学、国立高雄大学などの3か所であり、そのうち国立政治大学と中国文化大学には修士課程が開設されている。かつての1956年に設立された国立政治大学の韓国語文学科と1963年に設立された中国文化大学の韓国語文学科は、韓流ブーム以前から韓国語または韓国学の人材の育成を担ってきた。国立高雄大学の東アジア語文学科は2008年に設立されたものの、僅か7年で国際化を実現し、韓国語の人材の養成を積極的に進めている。

⑸ モンゴルにおける韓国語教育

モンゴルの15か所の大学において専攻(約700人)と教養及び選択科目として韓国語を学ぶ学生数(1,500人)が計2,200人と集計された(2014年基準)。また、現在韓国語を教えている教員数は計76人であるが、モンゴル人の教員は51人、韓国人は25人である。2007年から韓国文化観光部傘下の国立国語院の支援によってモンゴル国立大学と国際ウランバートル大学に「世宗学堂」が開設され、一般の人々向けの韓国語教育と文化の普及のために努力している。

⑹ ベトナムにおける韓国語教育

韓国語学科が設置されている大学のみではなく、経済大学、工学大学などにおいても第2外国語での韓国語の講義が行われている。大学における韓国語教育は他機関に比して最も体系的で安定的といえる。最初はベトナムの北部から韓国語教育が始まったが、発展につれて南部の教育機関数が先立っている。その理由は韓国の企業が経済の中心地である南部(ホーチミン市)により進出しているからで

ある。

(7) タイにおける韓国語教育

韓国語教育がタイにおいて本格的に始まった時点は、韓国の映画やドラマが放映された2000年前後であり、周辺の国家よりも先立っているといえる。しかし、韓国関連の教育は大学機関において韓国語より韓国学に関する研究と講義が先に始まった。8か所の大学(2014年の統計)によると、韓国語と韓国学において学士課程が開設される他、1か所の大学では韓国学専攻として修士課程が開設された。1964年後半のタイの大学の学生向けの教科課程に韓国の政治や社会、文化の科目も既に含めている。

(8) ミャンマーにおける韓国語教育

1993年にヤンゴン外国語大学に、1997年にマンダレー外国語大学に韓国語学科が開設された。ヤンゴン外国語大学の学部は正規課程のみでなく、非正規課程もあるが、一つは朝の授業と言われるDiploma授業で、対象者は大学卒業者であり、殆んど就職者である。もう一つは午後の授業と言われる講座で、資格証が与えられる、韓国の「語学堂」といった課程である。2009年からは修士課程が開設され、既に修士課程修了者だけでも計10人となった。2016年からは博士課程の開設も予定している。ミャンマーの韓国語教育の改善案として提示されたのは、韓国語の教員の体系的な研修と、学習者のニーズを考慮した韓国語の教材の開発、教育課程の改編と学習者の韓国への語学研修や韓国の文化体験プログラムなどである。

(9) 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韓国語教育

韓国の企業の進出と共に韓国語教育は更に活性化された。韓国の文化への関心や両国間の経済的交流の増加などにより韓国語教育に更に拍車をかけることになった。また、韓国との交易の拡大と韓国への就職を希望するインドネシアの労働者の韓国語試験の学習ブームが韓国語教育への需要の増加の大きな背景となっている。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問題点としては、良質の教材の開発

及び普及の他、デジタル学習システムとオンライン教育事業、語学院フランチャイズ・チェイン事業などへの韓国の投資と参与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

(10) フィリピンにおける韓国語教育

フィリピンでは2003年、放送局GMA7で韓国のドラマを放映してから韓流ブームが拡散された。2004年から韓国語能力試験のための韓国語教室を運営したことを起点に韓国語教育が拡散された。フィリピンの大学において専攻として韓国語学科を運営している大学は1か所の大学(フィリピン国際大学)であり、5か所の大学(2015年基準)において教養の選択科目として韓国語が開設されている。更に、大学における韓国語の専攻の開設の拡大を目指して2+2交換学生プログラムを通じた単位の獲得や奨学金制度の構築を政策的に検討している。

東アジアにおける各国の韓国語教育への支援の強化と発展方案をまとめると、1)韓国語の教材の作成と韓国語学科における教科課程の編成につれての支援、2)各国の教育環境や事情を充分に理解し、各国の言語学者や韓国語の教員との共同研究を通じた方案の模索、3)各国の多言語社会において言語教育の施策の確率に伴う努力の尊重と援助などといえる。

3. おわりに

21世紀韓国と北朝鮮との統一を望む2018年のこの時点で特に韓国語の経済的な価値は勿論、東北アジアの核心的役割を遂行している観点からも中国語、日本語と共にアジアでは勿論、世界的にも非常に重要な言語の一つになることに他ならない。世界的な韓流と共により経済的な価値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言語としても浮彫りされている。また、韓国語を国際言語の一つとして発展させていくべきという当為性を踏まえ、汎国家的なプロジェクト(韓国語の世界化)のために積極的に努力している。

韓国語は将来韓国人だけのものでなく、東北アジアにおいて重要な言語、ひいては世界的に愛用され、関心の対象となる言語として定着するであろう。

發表者 略歷

發表者 略歷

하우봉 (河宇鳳)

全北大 교수, 서울대 史學科卒, 西江大 文學博士, 韓國對外關係史, 朝鮮後期史.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硏究』(1989), 『朝鮮時代 韓日 漂流民 硏究』(2001), 『朝鮮王朝時代の世界觀と日本認識』(2008, 日本明石書店) 등.

박진한 (朴晋熯)

仁川大 교수, 京都大 文學博士, 日本社會史, 都市史·法制史.
「日本近世의 庶民支配와 儉約의 政治」(2010), 「地圖로 만든 近代都市 仁川」(2017) 등.

나가모리 미쓰노부 (長森美信)

天理大 교수, 關西大 文學博士, 朝鮮史學, 朝鮮近世史.
「朝鮮王朝後期海上交通史硏究」(2003),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2013) 등.

김종식 (金宗植)

亞洲大 교수, 東京大 文學博士, 日本近現代史, (現)韓國日本歷史文化學會 會長.
「1920年代 日本의 政黨政治」(2007), 『日本右翼의 어제와 오늘』(2008) 등.

마쓰다 도시히코 (松田利彦)

國際日本文化硏究센터 교수, 京都大 文學博士, 韓國近代史.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2009), 『東亜聯盟運動と朝鮮·朝鮮人』(2015) 등.

이길용(李吉鎔)

中央大 교수, 大阪大 文學博士, 社會言語學, (現)韓國日本語學會 會長
『日本語學·日本語敎育 敬語編』(2013), 『異文化主義의 理論과 實際』(2010) 등.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

大阪大 교수, 京都大 博士課程, 韓國語學·滿洲語學.
「漂流民이 전한 韓國語 -日本 시마네현(島根県) 다카미케(高見家)문서에 대하여-」(2000), 『아스톤(W.C.Aston)旧藏·京都大學文學部所藏隣語大方 -解題·索引·原文-』(2005) 등.

진남택(陳南澤)

岡山大 교수, 東京大 文學博士, 日本語音韻史, 韓日對照言語學.
「日本語における子音の変遷 -朝鮮資料の音注を中心に-」(2002), 「日本資料를 통해 본 "·"의 變遷過程」(2004) 등.

이카라시 고이치(五十嵐孔一)

東京外國語大 교수, 서울대 文學博士, 韓國語學·文法論.
「現代朝鮮語の '-고 보면'と '-고 보니까' について」(2012), 「語学とテキスト論」(2014) 등.

채경희(蔡京希)

培花女大 교수, 九州大 文學博士, 日本語敎育, (前)韓國日語敎育學會 會長.
『日本語學 研究의 最前線』(2012),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ための漢字クラスの実践研究」(2016) 등.

모리야 미치요(守屋三千代)

創価大 교수, 東京外大 文學修士, 日本語學·日本語教育·認知言語學·文化記號論.
『日本語教科書の落とし穴』(1999), 『自然な日本語を教えるために –認知言語学をふまえて–』(2009) 등.

쉬 이핑(徐一平)

北京外大 교수, 神戸大 文學博士, 日本語學, 中日言語對照研究, (前)中國日本語教育學會 會長.
『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1999), 『漢日語同形副詞研究』(2013) 등.

이길원(李吉遠)

東亞大 교수, 大阪大(博士課程), 文學博士, 日本語文法, 韓國語教育, (現)國際韓國語應用言語學會 會長.
『日本語 文法의 理解』(2014), 「베트남의 韓國言語·文化教育 現況에 관한 研究」(2014) 등.